

2022 6모 대비 국어 실전 모의고사 1~3등급용 1회

제 1 교시 나무아카데미 국어영역

1

나무 아카데미
무료 월간 자료
6모 대비 국어 실전 모의고사 1~3등급용 1회



이 자료는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자료의 일부입니다. 무단 배포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자료들은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

www.namuacademy.com
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방공호 위에
어찌다 핀
채송화 꽃씨를 받으신다.

㉠ 호(壕) 안에는
아예 들어오시질 않고
말이 솟제 적어지신
할머니는 그저 노여우시다.

㉡ — 진작 죽었더라면
이런 풀
저런 풀
다 보지 않았으련만…….

글쎄 할머니,
그걸 어찌란 말씀이셔요.
솟제 말이 적어지신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는 없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인제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대도
할머니는 역시 살아 계시는 동안은
그 작은 꽃씨를 받으시리라.

-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나)
오늘 내가
도시락 뚜껑을 열다가
눈물을 흘린 것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인간이 살면 얼마나 삽니까
올해로 그분의 나이 아흔 살
오늘은 그분의 아흔한 번째 생신날
마른 북어 몇 마리
연시 몇 개
그분이 좋아하시던 ㉢ 식혜 한 대접
상을 차리고
㉣ 낡은 여자와 북한 사내가
두루뭉수리로 된 아들딸 데리고
끓어 엮드려
천 번 만 번 빌었습니다.

신의주에서 안동까지
열차를 타고 소풍 갔던 그날처럼
임진강 녹슨 철로를 닦고 닦아
뽕뽕 신나는 기적을 울리며

당신 품에 이 손주들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시라고
천만 번 빌고 빌었습니다.

당신의 생신날 아침
아내가 싸 준 찰밥덩이
무심코 도시락 뚜껑 열다가
눈물 흘린 것
아무도 모릅니다
㉤ 아무도 모를 거예요.

- ‘도시락 뚜껑을 열다가’

-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회상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④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⑤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보기>

(가)는 6·25 전쟁 중의 상황을, (나)는 전쟁 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 주었다. 전쟁으로 인한 인명 살상을 비롯한 직간접적인 피해는 휴전 이후에도 후유증을 남겼다. 남북의 군사적 대치,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정치적·외교적·경제적 피해는 물론, 이산으로 인한 아픔, 전쟁의 공포 등 그 후유증은 민족적인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와 (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연관 있는 인물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심리와 삶의 태도, 희망 등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아픔의 일부를 엿볼 수 있다.

- ① (가)의 ‘방공호’와 (나)의 ‘임진강 녹슨 철로’는 6·25 전쟁이나 휴전 이후의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고 있군.
 - ② (가)의 ‘채송화’와 (나)의 ‘도시락’은 시대적 상황과 연관 있는 인물의 행동이나 심리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군.
 - ③ (가)의 ‘노여우시다’와 (나)의 ‘눈물을 흘린 것’은 시대적 상황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행동으로 볼 수 있군.
 - ④ (가)의 ‘그걸 어찌란 말씀이셔요’와 (나)의 ‘인간이 살면 얼마나 삽니까’에는 시대적 상황의 지속으로 인한 체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군.
 - ⑤ (가)의 ‘꽃씨를 받으신다’와 (나)의 ‘천만 번 빌고 빌었습니다’에는 현재의 부정적인 시대적 상황이 극복되기를 바라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군.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할머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② ㉡ :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심정이 내재되어 있다.
 ③ ㉢ : ‘그분’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 : 상상을 통해 남북 간의 이념적 대립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고 3

염원을 나타내고 있다.

㉔ : 화자의 개인적인 아픔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데 황수건은 그의 말대로 노랑수건이라면 온 동네에서 유명은 하였다. ‘노랑수건’ 하면 누구나 성북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나는 차츰 알았다.

㉑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에 그랬거니와 그에겐 우스운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삼산학교에 급사로 있을 시대에 삼산학교에다 남겨 놓고 나온 일화도 여러 가지라는데, 그중에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옮겨 보면,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하기를 대단 즐기어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간 새 손님이 오면 으레 손님을 앉히고는 자기도 걸상을 갖다 떡 마주 놓고 앉는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는 곧 자기류의 만담 삼매로 빠지는 것인데,

㉒ 한번은 도 학무국에서 시학관이 나온 것을 이따위로 대접하였다. 일본말을 못 하니가 만담은 할 수 없고 마주 앉아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하였다.

“센세이 히, 오하요 고자이마스카(선생님, 안녕하세요)? ... 히히 아메가 후리마스(비가 옵니다). 유키가 후리마스카(눈이 옵니까)? 히히 ...”

시학관도 인정이라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열 번 스무 번을 되풀이하는 데는 성이 나고 말았다.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 한 선생이 나와 보니 종 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요 유키가 후리마스카 ...’ 하는 판이다.

그날 ㉓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물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에 쫓겨나오고 만 것이다.

그는,
“너의 색시 달아난다.”
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한다. 한번은 어느 선생이 장난옛말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엔 옛날부터 색시들이 달아나기를 좋아하는데 어제도 저 아랫말에서 둘이나 달아났다니 오늘도 이 동리에서 꼭 달아나는 색시가 있을걸 ...”

했더니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어서 바빠 하학을 시키고 집으로 갈 양으로 오십 분 만에 치는 종을 이십 분 만에, 삼십 분 만에 함부로 다가서 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중략)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소?”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스카이(용인) 노릇을 합쇼. 밑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삐젯이 장사를 할 텃몹쇼.”
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 될 때까지 차미 장사도 하곤킨, 가을부터는 군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쇼. ㉔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곤킨. 저를 선생들보다 낮게 치는몹쇼.”

한다.
㉕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삐젯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㉖ “선생님 잡수시라곤킨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들으니 ㉗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밑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실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썰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떡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 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뎛값을 물어 주었다. 포뎛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 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길을 간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 ... 케 ... 와 나 ... 미다카 다메이 ... 키 ... 카 ...”(1)
를 부르며 큰길에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
[A] 을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격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펍펍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 ‘달밤’

(주) (1) “사 ... 케 ... 와 나 ... 미다카 다메이 ... 키 ... 카 ...”: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라는 뜻의 일본 가요.

4. <보기>에서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보기>

- ㄱ. 과거와 현재를 병치하여 특정 사건을 부각하고 있다.
 ㄴ. 인물의 특정 행위를 통해 그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ㄷ.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ㄹ. 서정적 배경을 설정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ㅁ. 서술자가 관찰한 사실과 판단한 내용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

-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 : '나'는 며칠 사이에 동네 사람들이 '황수건'을 왜 '노랑수건'이라고 하는지 알게 되었다.
 ② ㉡ : '황수건'은 '시학관'이 심심하지 않도록 '시학관'과 대화를 나누려고 했다.
 ③ ㉢ : '황수건'이 학교에서 쫓겨난 이유는 자신을 꾸짖는 선생님들에게 대들었기 때문이다.
 ④ ㉣ : '황수건'은 자신이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⑤ ㉣ : '황수건'은 '나'에게 장사가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어 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태준의 단편에는 주로 지식인의 입장에서 관찰한 당대 사회에서 소외받는 인물의 삶이 표현되어 있다. 관찰 대상인 작중 인물은 각박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그러나 작가는 그들의 비극적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기 보다는 그들의 순박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의 작품 속에서 서술자는 흔히 약자인 작중 인물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그러한 서술자는 당대의 소외받는 인물들을 바라보는 작가를 대변한 인물로 볼 수 있다.

- ① 몇 마디 배운 일본말을 활용하여 일본인과 대화하려는 '황수건'의 행위를 통해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군.
 ② 색시가 달아날까 봐 학교 종을 마음대로 치는 '황수건'의 행동을 보니 그가 어리석은 정도로 순박한 인물임을 알 수 있군.
 ③ '나'가 '황수건'에게 장사를 하라며 조건 없이 돈을 주는 것은 소외된 인물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연민이 표현된 것이로군.
 ④ 작가는 정 많은 '황수건'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 각박하고 인정 없는 당대 현실을 표현하려했군.
 ⑤ '나'가 어제 성북동 길에서 '황수건'을 보고도 먼저 피한 행위에는 '황수건'과 같은 인물을 소외시키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군.

7. ㉡의 소식을 접한 '나'가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엮친 데 덮친 격이로군.
 ②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했어.
 ③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로군.
 ④ 섶을 지고 불로 들어가려는 상황이로군.
 ⑤ 내 조언에 콧방귀만 끼더니 결국 그렇게 됐군.

8. 다음 중 화자의 심리가 ㉠에 담긴 '나'의 심리와 가장 유사한 것은?[3점]

- ① 그리하여 다시 / 껍데기는 가라. / 이 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 아사달 아사녀가 / 중립(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 / 부끄럼 빛내며 / 맞절할지니
 ②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③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앓고 보낸 /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 맡긴 신세임을
 ④ 계집 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텅 비인 차안 한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 계집 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를 하면서 /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뽕뽕 얼어서 /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 짝을 내밀고 /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 아아, 마침내, 끝끝내 /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 꽃피는 나무이다.

고 3

[9~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이르러 인공 지능(AI) 로봇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인간에 준하는 능력과 지능을 갖춘 인공 지능 로봇이 출현할 것이라고 ㉠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인이 중심이던 법체계에서 사회적·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법적 주체인 법인이 등장한 것처럼, 현존하는 인공 지능과 완전히 다른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추고 물리적 실체를 가지는 ‘충분히 발달한 인공 지능 로봇(SAAR)’이 등장할 경우, 이들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 지능은 인간이 지닌 총체적 지능의 창조를 지향하는 기술 또는 그러한 기술로 만들어진 결과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인공 지능의 개발 역시 궁극적으로는 복잡하게 주어진 여러 상황에서 모두 작동하는 총체적 지능을 모방하고 모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인공 지능은 ㉡ 약한 인공 지능(weak AI)과 ㉢ 강한 인공 지능(strong AI)으로 나뉘어진다. 약한 인공 지능(weak AI)은 인간과 같이 마음을 지니지는 않고 한정된 분야에서 인간의 지능 활동과 유사한 결과물을 발생시키는 인공 지능이다. 한편, 강한 인공 지능(strong AI)은 인간의 마음 및 사고 체계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며, 문제를 분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공 지능이다. 결국 약한 인공 지능은 특정 데이터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시킴으로써 유형, 무형의 특정 작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강한 인공 지능은 인간의 뇌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약한 인공 지능이 특정 영역에서 기능하며 인간을 보조하는 수준을, 강한 인공 지능은 범용성을 지향하며 인간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강한 인공 지능은 인간과 같은 SAAR의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 전망된다.

㉤ 튜링 테스트는 이러한 인공 지능의 수준을 검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튜링 테스트는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Alan Turing)이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일련의 자연어 문답 과정을 통해 피험자가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별하는 시험이다. 튜링 테스트는 자연어 구사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갖춘 여러 능력 중 핵심이며 자연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만 상호의 공감과 지식의 전달, 도덕의 전승 등이 가능하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튜링 테스트는 질문자들이 컴퓨터를 통해 피험자와 대화하는 채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체로 30% 이상의 판정자가 대화 상대자가 인간인지 인공 지능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시험 대상인 인공 지능의 알고리즘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검사가 아니라, 인간과 인공 지능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인공 지능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간이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며, 인공 지능 로봇을 인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 높은 지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때 이는 특정 개개의 인간이 실질적으로 고차원적인 지적 능력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갓난아기나 정신 질환자 등 지적 능력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들도 법적으로 인간이라는 점에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간의 주요 특성이 지적 능력을 갖춘 것이라고 할 때, 이는 지적 능력을 갖추 수 있는 가능성(잠재적 형태의 지적 능력) 내지는 극히 최소한의 지적 능력을 의미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인공 지능은 발달 초기부터 기억력이나 연산력 등 일부 지적 능력에서는 인간을 초월하고 있다. 앞으로 인공 지능이 여러 영역에서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인공 지능 로봇은 슬픔, 기쁨, 두려움 등 감정이 없으므로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인공 지능 로봇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가장 고전적인 논거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인간이 느끼는 감정 역시 개개의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며, 인간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어느 정도 발달한 동물들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감정을 갖는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분노와 슬픔·동정심을 지닌 동물도 있다. 그리고 SAAR 역시 부당한 비난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을 과격하게 하거나 거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분노 감정을 표현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지는 논란이 있겠지만, 최소한 SAAR이 감정을 외부적으로 구현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인간이 다른 인간의 감정을 읽어 내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공 지능 로봇 역시 인간의 표정이나 몸짓으로부터 감정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갖추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자유 의지는 인간의 본성이자 핵심이고, 인공 지능 로봇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논거가 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인공 지능 로봇 혹은 SAAR은 프로그램된 대로만 움직이며 여기에는 어떤 형태의 자유 의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뇌과학의 연구들은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회의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벤자민 리벳(Benjamin Libet)의 실험인데, 리벳은 관찰자들이 피험자의 뇌 영상을 관찰함으로써 피험자가 인식하기도 전에 그가 왼쪽과 오른쪽 중 어느 버튼을 누를지 예측해 내기도 하였다. 또한 여러 질병의 사례들은 인간의 의지나 의식이 없음에도 외부적·물리적인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헌팅턴 무도병(Huntington's Chorea) 환자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수시로 춤을 추듯이 몸을 움직이게 된다. 즉, 인간의 자유 의지와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 고리는 항상 견고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SAAR에게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자유 의지가 존재하기 전이라도 인간이 최초로 프로그래밍을 한 후에 별도로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공 지능 로봇이 스스로 복잡한 작업을 해낸다면 그 SAAR은 자율적인 성향 혹은 자율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인공 지능이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상호작용한다면 인간의 행동 양식과 큰 공통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인공 지능은 일부 영역에서 인간과 동일한 지적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인간을 ㉦ 능가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과 유사한 지능이나 능력을 갖춘 인공 지능은 개발되지 못했다. 강한 인공 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극복하여야 할 과제가 많은데, 역설적이게도 그 과제들 중 상당수는 인간 입장에서 지극히 쉬운 것들이다. 이를 ㉧ 모라벡의 역설이라고 한다. 복잡한 연산과 같은 일은 인공 지능에게 쉬운 일이지만, 담화의 문맥을 파악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인공 지능의 법적 지위 부여와 관련한 논의에서, ㉨ SAAR에 인간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갖는 ‘결여됨’의 주장과는 달리, 불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인간과 인공 지능 로봇 사이에는 공통점이 더 많다. 인공 지능 로봇은 완전하고(혹은 완전성을 지향하고) 인

고 3

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결론을 짓는 것은 조급한 행동이며, 인간과 인공 지능 로봇은 모두 완전성을 지향하되 항구적으로 불완전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㉔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견고하게 종속된 인과적 성격을 지닌다.
 - ② 인공 지능은 일부 영역에서 인간과 동등하거나 능가하는 능력을 보이고 있다.
 - ③ 인간과 인공 지능 로봇 사이에는 불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 ④ 지적 능력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들도 법적으로 인간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 ⑤ 새로운 법적 주체인 법인이 등장한 것은 사회적·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10. ㉔, 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와 ㉕는 모두 현존하는 인공 지능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를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② ㉔와 ㉕는 모두 궁극적으로 인간과 동등할 정도로 '충분히 발달된 인공 지능 로봇'을 지향한다.
 - ③ ㉔와 ㉕는 모두 인간의 마음 및 사고 체계를 모방하여 현실에서 인간을 보조하는 것을 지향한다.
 - ④ ㉔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에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㉕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을 수준을 갖는다.
 - ⑤ ㉔는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㉕는 모든 분야에서 인간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 ㉑과 <보기>의 사례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존 설은 인간과 기계·비인간을 구별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튜링 테스트에 대해 중국어 방(Chinese Room) 논증을 들어 비판하였다. 피험자(영어는 잘 알지만, 중국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는 중국어로 쓰인 종이를 들고 방 안에 들어간다. 방에는 책자가 있는데, 책자에는 피험자가 들고 온 종이를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시사항이 적혀 있다. 피험자는 책자를 참고하여 종이에 쓰인 과제를 수행하여 답변을 방 밖으로 내보낸다. 그렇다면 실제로 피험자가 중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험자의 답변에는 책자에 지시된 대로 중국어 글자들이 쓰여 있게 된다. 중국어 방 사례에 관한 존 설의 주장에 따르면 설령 중국어로 된 질문에 대해 중국어로 올바른 답변을 하더라도 그것이 피험자가 중국어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① 튜링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기계'는 중국어 방 논증의 '피험자'

- 에 해당하겠군.
- ② 튜링 테스트의 '알고리즘'은 중국어 방 논증에서 '책자에 지시'된 내용에 해당하겠군.
- ③ 튜링 테스트의 '자연어 문답 과정'은 중국어 방 논증에서 '중국 어'에 기반한 지시와 행동에 해당하겠군.
- ④ 존 설과 튜링은 모두 지시에 따른 문답 과정은 인간의 '의사소 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겠군.
- ⑤ 튜링은 존 설과 달리 인공 지능이 채팅으로 '피험자와 대화'하는 것은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고 보겠군.

12. ㉔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한 인공 지능은 인간을 모방하고, 인간은 강한 인공 지능을 모방한다.
 - ② 인간은 인공 지능을 능가할 수 없고, 인공 지능은 인간을 능가할 수 없다.
 - ③ 인간은 노력 없이 발전하고, 인공 지능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발전한다.
 - ④ 인간은 다른 인간을 뛰어 넘을 수 없고, 인공 지능은 다른 인공 지능을 뛰어넘을 수 없다.
 - ⑤ 인간에게 쉬운 것이 인공 지능에게는 어렵고, 인공 지능에게 쉬운 것이 인간에게는 어렵다.

13. <보기>는 ㉔을 정리한 내용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보기>

SAAR이 본질적으로 인간과 같지 않다는 입장에서는 그 근거로 SAAR이 인간에게 있는 결정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그 논리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ㄱ. 어떤 속성 X는 인간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ㄴ. SAAR에게는 X가 없다.
 ㄷ. SAAR에게 X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는 X를 흉내 낸 것(X')이며, X'는 X가 아니다.

- ① '지적 능력'과 관련한 논의에서, SAAR에 지적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부정하고 미래에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여 ㄴ과 같은 관점을 반박하고 있다.
- ② '감정'과 관련한 논의에서, 동물들도 제한된 범위의 감정을 가지며 SAAR 또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점을 들어 ㄱ과 같은 관점을 반박하고 있다.
- ③ '감정'과 관련한 논의에서, SAAR이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인간의 감정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ㄷ과 같은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 ④ '자유 의지'와 관련한 논의에서,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인공 지능 간의 자율적인 상호작용 가능성을 들어 ㄴ과 같은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 ⑤ '자유 의지'와 관련한 논의에서, 특정 실험이나 질병의 사례를 들어 '자유 의지'가 인간을 규정하는 본성인지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 ㄱ과 같은 관점을 반박하고 있다.

14. 문맥을 고려한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어떤 일을 직접 당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여 둠. 또는 그런 내용.
 - ② ㉡ : 앞날을 헤아려 내다봄. 또는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 ③ ㉢ :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 ④ ㉣ : 능력이나 수준 따위가 비교 대상을 훨씬 넘어섬.
 - ⑤ ㉤ : 물건 값을 헤아려 매김.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백공은 비복을 시켜 이실직고할 때까지 매질을 하라고 호령하였다. 사정을 두지 않고 마구 치는 비복들의 매 밑에서 숙영 남자의 백옥 같은 귀밑에는 피멍울 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눈 같이 흰 살결은 핏물이 배어 붉은색으로 변하였다. 남자는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도 고통을 참고 이를 악물며 말하였다.

“지난번에 낭군께서 길을 떠난 날 밤과 그 이튿날 밤, 두 번을 삼십 리쯤 가다가 숙소를 정하였으나 저를 잊지 못하고 밤중에 집으로 몰래 돌아왔습기에 제가 한사코 타일러서 다시 돌려보낸 일은 있었사옵습니다. 그때는 어린 제 소견으로 시부모님께 꾸중을 들을까 봐 겁을 내어 지금까지 고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옵니다. 하오나 조물주가 그것을 밋게 여기시고 귀신이 그것을 시기하여 이런 췌지 못할 누명을 입은 듯하옵니다. 이제 와서 늦은 변명같이 되었사오나, 밝은 하늘이 날날이 살펴 아시오니 아버님께옵서는 그러한 사실을 밝히시어 저의 정상을 다시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번 눈과 귀로 확인한 의심인지라, 백공은 점점 더 노하여 비복에게 더욱 심한 매질을 가하도록 호령하였다. 남자는 참을 수 없는 매질에서 하늘을 우러러 호소하였다.

“아아, 푸른 하늘은 무고한 이내 몸을 굶어살피소서. 오월에 서리가 내리고 십 년을 원망해야 할 이 원한을 어느 누가 풀어 주오리이까?”

하고는 엎어져서 혼절하고 말았다. 이 참상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울면서 영감에게 말하였다.

“옛말에 이르기를, 한 번 엎지른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다 하였사오니, 영감께서 사실도 잘 모르시면서 티 없이 굳은 정절을 가진 며느리를 억울하게 음행(淫行)의 죄를 씌워 다스리시니, 만약 며느리의 무죄함이 밝혀졌을 때 무슨 면목으로 현부를 대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뜰 아래로 뛰어 내려가 남자를 부여잡고 목을 놓아 울었다.

“너의 백옥같이 티 없는 굳은 절개는 내가 잘 알고 있다. 오늘 이런 변은 꿈에도 생각지 못할 일이니 그 아니 원통하겠느냐?”

남자가 절박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옛말에도 다른 소문과는 달리 음행의 소문을 씻기는 어렵다 하였사온 즉, 동해 바닷물을 모두 기울인다 한들 이 누명을 씻으오리까? 이런 췌지 못할 누명을 쓰고 어찌 구차히 살기를 바라오리까?”

시어머니는 남자를 가엾게 여기고 갖은 말로 무수히 위로하였다. 그러나 남자는 듣지 않고 바른 손에 ㉠ 옥비녀를 빼어 들고 하늘을 우러러 절을 한 다음 빌었다.

“밝고 밝은 저 황천(黃泉)은 부디 굶어살피소서. 제가 만일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 사실이 있거든 이 옥비녀가 제 가슴팍에 꽂히고, 이것이 억울한 누명이거든 이 옥비녀가 저 섬돌에 박히도록 영험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는, 옥비녀를 허공에 높이 던지고는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잠시 후에 옥비녀가 떨어지면서 섬돌에 깊이 박히었다.

(중략)

그렇게 행차하여 남으로 사흘을 간 후에 백선군이 잠시 피로를 풀고자 주점에 들러 쉬고 있는데, 문득 졸음이 와서 눈을 감으니 비몽사몽간이라. 숙영 남자가 온몸에 피를 흘리며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 선군의 옆에 앉더니 절통하게 울면서 호소하는 것이었다.

“낭군께옵서 입신양명하여 영화롭게 오시니 기쁘기 그지없사오나, 저는 이미 박명하여 이 세상을 버리고 구천을 떠도는 원혼이 되었나이다. 일전에 낭군님의 편지 사연을 들으니, 낭군께서 저에 대한 사랑은 간절하시오나, 이것 또한 저의 연분이 척박하여 별췌이 세상을 하직 하였으니, 구천의 혼백이라도 한스럽기 그지없사옵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원통한 사연을 낭군께옵서 풀어 주시어 편히 눈을 감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썼기로 아직까지 분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 구천을 방황하고 있사오니 모름지기 낭군께서는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시시비비를 가려 누명을 벗겨 주시오면 죽은 혼백이라도 깨끗한 귀신이 되고자 하나이다.”

하고 나서는 남자의 모습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선군이 크게 놀라 ㉡ 잠에서 깨어나 보니 온몸에 식은땀이 축축하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선군은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연유를 짐작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부터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인마를 재촉하여 서둘렀다. 며칠만에 풍산 마을에 이르러 숙소를 정하였으나, 남자 생각에 골몰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앉아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밤이 점점 깊어갈 무렵이었다. 갑자기 하인이 와서 이르기를,

“대상공(大相公)께서 오셨나이다.” 하였다.

아들을 만난 백공은 망설이다가 가족들이 모두 무사하다고 거짓으로 알리고는 선군이 장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한 사연을 물으면서 억지로 기뻐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선군을 향해 은근한 말로 권유하였다.

“장부가 뜻을 얻으면 아내를 얻는 것이 고금의 상례로 되어 있다 하니 너도 이제 그렇게 힘이 좋을 듯하구나. 듣자 하니 이 마을 임 진사의 딸이 매우 현숙하다 하므로 내가 이미 구혼하여 혼례 일자를 잡아 놓았으니, 이곳에 온 김에 내일 당장 육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선군은 숙영 남자가 꿈에 나타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일을 반신반의하고 있다가 막상 부친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보니 이상한 마음이 들어 생각하되, ‘부친께서 이렇듯 나에게 재취를 권유하시는 것을 보니, 숙영 남자가 죽은 것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나를 속이고 임 남자와 결혼하게 하여 나를 위로해 주시려는 의도임에 틀림없다.’ 하고는 당장 부친께 말씀드렸다.

“아버님 말씀은 지당하시오나, 소자의 마음은 급하지 않사오니 나중에 청혼하여도 늦지 않을 줄로 아옵니다. 그러하오니 그 말씀은 지금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들의 성질을 잘 아는 백공은 더 이상 조르지 못하고 근심 속에서 그날 밤을 지냈다. 첫닭이 울고 먼동이 트기가 무섭게 선군은 행졸(行卒)을 재촉하여 곧바로 안동으로 향하였다.

(중략)

선군은 낮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다가 다시 아내의 빈소로 가서 크게 목을 놓아 울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집안의 모든 남녀 노복들을 한 자리에 묶어서 마당에 꿇어 앉혔다. 그 가운데 매월이도 끼어 있었다. 선군이 옷소매를 걷어 올리고 빈소로 들어가 이불을 벗기고 보니 마치 살아 있는 듯 조금도 살이 썩지 않고 있었다.

선군은 울음을 삼키면서, ‘이제 내가 왔으니 낭자는 부디 안심하라. 가슴에 박힌 칼이 빠진다면 그 칼로 원수를 갚아 낭자의 원혼을 달래리라.’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칼을 잡고 당기니 가볍게 쭉 빠지는 것이었다. 그와 함께 낭자의 가슴팍에서 ㉠ 파랑새 한 마리가 나와서,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하고 세 번을 울고는 날아갔다. 조금 후에 또 다른 파랑새가 날아와서,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하고는 또 세 번을 울고는 날아가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선군은 매월의 질투 소행인 줄을 알고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였다. 형틀을 갖추고 모든 노복들을 차례로 문초하고 매질하였다. 하지만 죄가 없고 또한 비밀도 모르는 노복들이 어찌 진실을 말할 수 있으랴? 마지막으로 매월을 끌어내다가 문초하였으나 간악한 매월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사실을 자백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죽을 때까지 사정 두지 말고 매우 쳐라!”

추상같은 선군의 호령에 좌우 사령들이 매월을 향해 사정없이 매질을 가하였다. 매가 백 장(杖)에 이르자, 무쇠 같은 몸인들 어찌 터지지 않고 배기랴? 그토록 모진 매월도 절반은 낮이 나가서 개개승복(個個承服)*하면서 빌었다. 그리고 사건 전말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숙영 낭자가 이 덕 본실로 들어온 후로 선군이 자기를 멀리하고 낭자만 총애하기에, 질투가 생겨 그 원통한 마음을 풀려고 그와 같은 간계를 꾸며 낭자에게 누명을 씌웠노라고 하였다. 선군은 즉시 공모한 불량배 둘이를 잡아다가 문초를 하였다. 그런 결과 매월의 꼬임으로 돈에 팔려 숙영 낭자의 방에 드나드는 외간 남자처럼 꾸며서 백공의 의심을 사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에잇,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아!”

선군은 노기가 충천하여 칼을 들고 뜰로 내려와서 매월의 목을 한칼에 베어 버렸다.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개개승복: 지은 죄를 낱낱이 인정하고 자백함.

15.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교차시켜 사건의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③ 작중 상황에 대한 작품 밖 서술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배경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부정적인 세태에 대한 풍자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16.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공은 선군이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하며 이야기의 화제를 돌리고 있군.
- ② 선군은 임 낭자와의 옥례를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숙영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군.
- ③ 선군의 어머니는 숙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며느리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리고 있군.
- ④ 매월이 느낀 선군에 대한 원망과 숙영에 대한 시기가 백공 집안의 갈등을 초래하는군.
- ⑤ 백공은 임 진사 집안과의 혼담을 통해 입신양명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군.

1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력자를 통해 인물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된다.
- ② 인물에게 닥칠 부정적인 운명을 암시하는 복선이 된다.
- ③ 인물이 부재중에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④ 현재와 대비되는 장면을 제시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유발한다.
- ⑤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현실에 대한 인물의 체념적 정서를 강조한다.

18. ㉠과 ㉡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숙영의 결백함을, ㉡은 선군에 대한 매월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낸다.
- ② ㉠은 선군과 숙영의 과거의 추억을, ㉡은 선군과 숙영의 다가올 밝은 미래를 의미한다.
- ③ ㉠은 숙영의 억울한 심정을 나타내고, ㉡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 ④ ㉠은 선군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고, ㉡은 선군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계기가 된다.
- ⑤ ㉠은 숙영에게 가해지는 현실적 고통을 의미하고, ㉡은 선군에게 현실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만든다.

고 3

1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보기>

조선 시대에는 남녀 간의 사랑이 당사자의 의지대로 성취될 수 없었고, 거기에는 윤리적 규범이나 신분적 제약과 같은 당사자의 애정실현 의지를 방해하는 외적 요인과의 갈등이 심각하였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유교적 질서가 흔들리고 기존의 가치관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인물 유형이 나타났다. 또한 인간 본연의 성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당사자들이 애정 문제의 주체가 되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거나 사건 전개에 중심축이 되기도 했다.

- ① 권위적인 백공의 모습은 선군과 숙영의 애정을 방해하는 외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숙영과 선군은 사건 전개에 중심축으로, 사랑이라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긍정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 ③ 백공에게 제 뜻을 분명히 밝히는 선군은 애정 문제에 대해 주체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혼사를 거절하는 선군은 가문의 명예보다는 부부간의 사랑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자신의 명을 거역하는 선군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하는 백공의 모습은 조선 시대 신분 질서가 약화되어 봉건적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무정히 서 있는 바위 유정하여 보이는데
 최령(最靈)흔 오인(吾人)1)도 직립불의(直立不倚)2) 어렵건만
 오랜 세월 곧게 선 자태 고칠 적이 업느다

<제1수>

강가에 우뚝 서니 쳐다볼수록 더욱 높다
 바람 서리에 불변하니 뚫을수록 더욱 굳다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흐노라

<제2수>

탁연직립(卓然直立)3)하니 본받음 직하다마는
 구름 깃흔 골짜기에 알 이 있어 츄즈오라
 이제나 광야에 옮겨 모두 보게 흐여라

<제5수>

㉡ 세정(世情)이 하 수상하니 나를 본들 반길넌가
 왕기순인(枉己循人)4)하야 내 어딤 읊아가리오
 산 도쿄 물 도흔 골에 삼긴 대로 늘그리라

<제6수>

중용(從容)히 다시 묻자 너 난 지 몇천 년고
 네 나인 필연(必然)하고 내 나인 적견마는
 이제나 너과 나와는 함께 늙자 흐노라

<제9수>

㉢ 당우(唐虞)5)를 그제 본 듯 한당송(漢唐宋)을 어제 본 듯
 꿈같이 지나가니 남은 해도 적다마는
 십이회(十二會)6) 못다 간 뜻이라면 나도 너와 늘그리라.

<제10수>
 - '입암이십구곡'

[어휘 풀이] 1) 최령(最靈)흔 오인(吾人) : 가장 신령스런 우리.
 2) 직립불의(直立不倚) : 꼳꼳이 섬. 3) 탁연직립(卓然直立) : 빼어나 곧게 섬. 4) 왕기순인(枉己循人) : 자기 몸을 굽혀 남을 좇음. 5) 당우(唐虞) : 중국 고대의 임금인 요(堯)와 순(舜)을 아울러 이르는 말. 태평 시대를 이룸. 6) 십이회(十二會) : 매우 오랜 시간을 이룸.

(나)

나는 어제 하룻밤 사이에 한 강(江)을 아홉 번이나 건넜다. 강은 새외(塞外)로부터 나와서 장성(長城)을 뚫고 유하(榆河), 조하(潮河), 황하(黃河), 진천(鎭川) 등의 여러 줄기와 어울려 밀운성(密雲城) 밑을 지나 백하(白河)가 되었다. 내가 어제 두 번째로 백하를 건넜는데, 이것은 바로 이 강의 하류(下流)였다.

내가 아직 요동(遼東) 땅에 들어오지 못했을 무렵, 바야흐로 한여름의 피약벌 밑을 지척지척 걸었는데, 홀연(忽然)히 큰 강이 앞을 가로막아 붉은 물결이 산같이 일어나서 끝을 알 수 없었다. 아마 천 리 밖에서 폭우(暴雨)로 홍수(洪水)가 났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을 건널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들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기에, 나는 그들이 모두 하늘을 향하여 묵도(默禱)를 올리고 있으려니 생각했었다.

㉣ 그러나 오랜 뒤에야 비로소 알았지만, 그때 내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다.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탕탕(蕩蕩)히 돌아 흐르는 물을 보면, 굵실거리고 으르렁거리는 물결에 몸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서 갑자기 현기(眩氣)가 일면서 물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 얼굴을 젖힌 것은 하늘에 기도(祈禱)하는 것이 아니라, 솟제 물을 피하여 보지 않기 위함이었다. 사실, 어느 겨울에 그 잠깐 동안의 목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으랴.

그건 그렇고, 그 위험(危險)이 이와 같은데도, 이상스럽게 물이 성나 울어 대진 않았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요동의 들이 넓고 평평해서 물이 크게 성나 울어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물을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서 나온 오해(誤解)인 것이다. ㉠ 요하(遼河)가 어찌하여 울지 않았을 것인가? 그건 밤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한 곳을 보고 있는 눈에만 온 정신이 팔려 오히려 눈이 있는 것을 걱정해야 할 판에, 무슨 소리가 귀에 들려온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젠 전과는 반대로 밤중에 물을 건너니, 눈엔 위험한 광경(光景)이 보이지 않고, 오직 귀로만 위험한 느낌이 쏠려, 귀로 듣는 것이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아, 나는 이제야 도(道)를 깨달았다.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자는 귀와 눈이 누(累)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더욱 밝아져서 큰 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까지 나를 시중해 주던 마부(馬夫)가 말한테 발을 밟혔기 때문에, 그를 뒷수레에 실어 놓고, 이젠 내 손수 고삐를 붙들고 강위에 떠 안장(鞍裝) 위에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모아 앉았는데, 한 번 말에서 떨어지면 곧 물인 것이다. ㉢ 거기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물로 땅을 삼고, 물로 옷을 삼고, 물로 몸을 삼고, 물로 성정(性情)을 삼을 것이리라. 이러한 마음의 판단(判斷)이 한번 내려지자, 내 귓속에선 강물 소리가 마침내 그치고 말았다. 그리하여, 무려 아홉 번이나 강을 건넜는데도 두려움이 없고 태연(泰然)할 수 있어, 마치 방안의 의자 위에서 좌와(坐臥)하고 기거(起居)하

고 3

는 것 같았다.

옛적에 ㉔ 우(禹)가 강을 건너는데, 누런 용(龍)이 배를 등으로 져서 지극(至極)히 위험(危險)했다 한다. 그러나 생사(生死)의 판단(判斷)이 일단 마음속에 정해지자, 용이거나 지렁이거나, 혹은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아무런 관계(關係)도 될 바가 없었다 한다. 소리와 빛은 모두 외물(外物)이다. 이 외물이 항상 사람의 이목(耳目)에 누(累)가 되어, 보고 듣는 기능(機能)을 마비(痲痺)시켜 버린다. 그것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강물보다 훨씬 더 험하고 위태(危殆)한 인생의 길을 건너갈 적에 보고 듣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치명적(致命的)인 병이 될 것인가.

나는 또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 앞내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면서 이것을 경험(經驗)해 볼 것이려니와, 몸 가지는데 교묘(巧妙)하고, 스스로 총명(聰明)한 것을 자신(自信)하는 자에게 이를 경계(警戒)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일야구도하기'

2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의 형식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묘사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느끼거나 생각한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의도와 상반된 표현을 사용하여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21. (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인간과 바위를 비교하며 바위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 ② 제2수에서는 인간이 본받을 만한 바위의 긍정적 속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제5수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위를 보여 주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나타나 있다.
- ④ 제6수에서는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살겠다는 바위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제9수에서는 바위와 달리 유한한 존재임을 인식한 화자의 회한이 나타나 있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보기>

'일야구도하기'에서 글쓴이는 상반된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다. 한 인간형은 외물(外物)에 현혹되는 사람이다. 이들은 대상의 외적인 면모에 현혹되어 대상의 본질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 다른 인간형은 외물에 초연한 사람이다. 이들은 감각에 구애됨이 없는 초연한 자세로 대상이 지닌 본질을 찾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한다. 글쓴이는 전자에 가까웠던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 ① '물을 건널 때'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이들은 외

물에 현혹되어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이라 할 수 있군.

- ② '물이 성나 울어 대진 않았다'고 말한 '배를 타는 사람들'은 감각에 구애됨이 없이 강을 바라보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군.
- ③ '귀와 눈만을 믿는 자'가 걸리는 '큰 병'이란 사물의 외적인 면모에 현혹되어 본질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군.
- ④ '내 귓속에선 강물 소리가 마침내 그'친 상태는 글쓴이가 초연한 자세로 마음을 다스린 상태라고 할 수 있군.
- ⑤ '몸 가지는 데 교묘(巧妙)하고, 스스로 총명(聰明)한 것을 자신(自信)하는 자'는 글쓴이가 반성하고 있는, 과거 자신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군.

23. ㉔와 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㉔와 ㉕ 모두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활용되었다.
- ② ㉔와 ㉕ 모두 자연에 비해 인간의 능력이 보잘 것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되었다.
- ③ ㉔는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 ㉕는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되었다.
- ④ ㉔는 인간을 멀리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㉕는 과거의 삶에 대한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되었다.
- ⑤ ㉔는 자연물이 인간과 오랫동안 더불어 살아왔음을 드러내기 위해, ㉕는 자연물을 통한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24. ㉔~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㉔ : 화자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의 무심함을 닮고 싶어 한다.
- ② ㉕ : 화자는 이제는 떠나온 속세의 삶에 대해 미련을 갖고 있다.
- ③ ㉔ : 글쓴이는 물을 무사히 건너가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하늘에 기도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다.
- ④ ㉕ : 글쓴이는 사람들이 요하가 울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낮에는 시각에 정신이 풀리기 때문이라 판단했다.
- ⑤ ㉕ : 글쓴이는 물과 사람이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여겨야 물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했다.

[25~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조는 ‘법이란 천하 공공(公共)의 명기(名器)’이므로 국왕이 사은(私恩)으로 굽혀서는 안 되며, ‘형정 운용은 천리의 공정함에 맞아야 한다’라는 법률관을 지니고 있었다. 법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 주장에는 세 가지 의미가 ㉠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법이 사회의 척도로서 국가 통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도구라는 인식이다. 즉,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데 교화(教化)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다. 즉, 왕은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이지만 일단 법이 제정된 후에는 왕 자신도 마음대로 법을 ㉡ 위반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 집행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다. 즉, 형벌은 공의(公義)와 대의(大義)로 결단해야 하며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다. 법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주장은 통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

법률에 의거하는 법치주의가 실현되려면 국왕 통치는 다음의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먼저 성문법전이 만들어져야 한다. 모두가 반드시 ㉢ 준수해야 하는 행위 규범을 담은 성문법이 반포될 때 비로소 법제의 통일성과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경제육전』 · 『경국대전』 · 『대전속록』 · 『속대전』 등이 편찬되어 법제를 갖추었으나, 각 기관별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통합이 되지 않아 관리가 참고하여 증거로 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조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 법전인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법전의 편찬은 관행이나 관습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를 극복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정조의 법전 편찬은 법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관료를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다음으로 국가가 형벌권을 장악하여야 한다. 양반 사대부들의 사형(私刑)을 금지하고 공형벌권(公刑罰權)을 강화하는 것이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국가가 형벌권을 장악하는 공형벌 체계가 추구되면서 양반 토호가 임의로 백성에게 형벌을 가하던 사문용형(私門用刑)이 불법으로 ㉣ 간주되었다. 권세 있는 양반 토호가 백성을 사사로이 감금하거나 매질을 가하는 사형, 향약이나 동계에서 집을 헐어 없애고 동리 밖으로 쫓아내는 훼가출동(毀家黜洞)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정조는 소민(小民)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정 운용은 일정한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형벌 사용을 가벼이 하는 것은 세금을 가볍게 하는 것과 함께 인정(仁政)의 요체였다. 영조 대에 이르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각종 악형·혹형이 거의 폐지되었다. 영조의 이러한 홀형(恤刑) 정신을 계승한 정조는 즉위 직후 『흙흙전칙』을 반포하여 곤장·신장 등의 형벌 도구의 규격을 정함으로써 형벌 남용을 ㉤ 방지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잘못된 형구를 바로잡는 형구이정운음(刑具整正輪音)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시로 어사를 파견하면서 정해진 형구가 아닌 다른 형구를 사용하는 수령의 폐단을 각별히 살피고 감시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 정조는 세종과 더불어 조선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지적인 통치자였다. 수십 권의 개인 문집을 남겼고, 왕실 아카데미인 규장각을 설치하여 신료들에게 직접 강의를 주도했으며, 수시로 신하들에게 시문을 짓는 과제를 냈다. 이런 정조였으므로 당시 유행하는 문체가 ‘불온’하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다. 그는 연암 박지

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 때문에 문체가 타락했다며 연암에게 반성문을 요구한다.

문체는 한 시대가 지나는 사유 체계의 표현 형식이다. 그것은 단지 내용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내용을 규정하는 장치이다. ㉧ 고문(古文)은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사유의 틀이었다. 육경(六經)의 문장과 사마천과 반고로 대표되는 선진양한(先秦兩漢)의 문장 및 한유와 소식 등 당송(唐宋) 팔대가의 문장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고문(古文)이란 중국의 고대에 완성된 문장들의 전범이다. 즉, 고문은 ‘지금, 여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조선 왕조의 체제 유지를 위한 교묘한 장치였다.

이 견고한 장치에 명말 청초의 문집이 유입되면서 고문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문체들이 번성하게 된 것이다. 가령, ㉨ 소품문(小品文)은 ‘어린아이가 우는 것’, ‘사나운 개가 서로 싸우는 것’과 같이 미시적인 세계를 다룬다. 정조가 보기에 이는 우주와 천하를 논하는 고문의 권위를 해체하는 것이었다. 한편, 당시에 ‘금병매’, ‘수호지’ 등과 같은 중국 소설들이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소설 마니아들이 속출했는데, 웬만큼 사상 무장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유희를 물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소설은 그 허구성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기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정조는 중국 서적 수입을 금지하고, 사대부의 글쓰기 전반에 대해 대대적 검열을 실시하는 ㉩ 문체 반정(文體反政)을 일으켰다. 타락한 문체를 구사하는 사대부는 고문체로 글을 짓거나 반성문을 제출해야 했고, 심지어는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체 반정의 바람은 마침내 문풍 타락의 출발점으로 ‘열하일기’를 찾아 낸다.

㉪ ‘열하일기’는 연암이 청 건륭 황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로 북경에 들어갔다 귀국하기까지 6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기록한 연행록이다. ‘산천, 배와 수레, 벽돌, 언어’ 등으로부터 ‘수행원의 귀밀 사마귀, 여인네들의 몸치장, 말의 행렬’ 등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세심한 축수로 잡아 낸다. 소설과 소품문, 고문과 변려문이 자유자재로 섞이는 한편, 천고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거대 담론과 시정의 우스갯소리, 잡다하고 황당한 이야기들이 공존한다.

정조는 이러한 ‘열하일기’ 때문에 문체가 타락했다며 ㉫ 연암에게 고문체로 글을 지어 죄를 씻으면 벼슬을 주겠노라고 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휘두른 이 노회한 조치에 대해 연암은 자신의 글이 임금의 눈을 더럽혔다고 자책하면서도, 글을 지어 이전의 잘못을 덮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조가 비난한 연암체는 당대 주류의 언어였던 고문체를 더듬거리게 하고, 나아가 문체의 경계조차 무의미하게 만드는 균열이었던 것이다.

25.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정조’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은 국가 통치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 ② 사대부들의 글쓰기에 대해 큰 관심을 지녔다.
- ③ 과도한 형벌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 ④ 중국 소설의 대량 유입으로 발생한 현상을 우려했다.
- ⑤ 고문체로 인해서 문체와 문풍이 타락하였다고 생각했다.

26.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정조 이전에는 법률 체계가 통일되지 않은 채 법이 시행되었다.
 - ② 영조와 정조는 가혹한 형벌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 ③ 정조는 형구의 규격을 정함으로써 수령들의 형벌권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 ④ 정조는 어사를 파견하여 수령의 악행을 막고 인정(仁政)을 펼치고자 하였다.
 - ⑤ 정조 대에는 백성에 대한 양반들의 사사로운 형벌 사용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27. <보기>는 (나) 사고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문체는 한 시대가 지나는 사유 체계의 표현 양식이다.

↓

정조는 고문을 통해 체계를 유지하려 했고, 연암은 이질적 문체로 새로운 생각을 표현하려 했다.

↓

따라서 당대는 _____ ㉠

- ① 통치자에 의해 생각의 자유마저도 탄압을 받던 사회였다.
- ② 이질적인 문체가 규범적인 문체를 억압하던 혼돈의 시기였다.
- ③ 자유롭고 발달한 사유가 정형화된 규범을 제압했던 시기였다.
- ④ 규범적인 사유 체계와 자유로운 사유 체계가 충돌한 변화의 시대였다.
- ⑤ 통치자와 지식인이 사상적 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던 격랑의 시대였다.

28. (나)에 나타난 '문체 반정'(㉡)과 <보기>의 '문화 혁명'(㉢)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보기>

문화 혁명은 모택동에 의해 계획, 추진된 상층 구조의 이념 투쟁이다. 이 기간 동안 상층 구조의 이념 성향에 대한 투쟁을 거쳐 이후 급속히 대중으로 확산되었다. 장기간 대학은 폐쇄되었고, 교육·과학 등 전문 분야의 지도를 비전문가가 장악하였다. 그 결과, 전문 분야의 지식 수준 저하는 물론이고 사회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하였다. 중국 정부는 1981년 6월 중국공산당회의에서 문화 혁명을 평가하였다. 즉, **문화 혁명**은 당·국가·인민에게 건국 이래 가장 심한 좌절과 손실을 가져다 준 모택동의 극좌적 오류이며 그의 책임이라고 평가하였다.

- ① ㉡, ㉢ 모두 정신을 개조하려는 운동이며 움직임이었다.
- ② ㉡, ㉢ 모두 최고 통치자에 의하여 계획되고 추진되었다.
- ③ ㉡는 후대에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는 후대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④ ㉡는 유행하던 문체를 문제 삼았으나, ㉢는 당대의 이념적 성향을 문제 삼았다.
- ⑤ ㉡는 지배층에서만 이루어진 반면, ㉢는 지배층에서 대중으로 확산되어 나아갔다.

29. ㉠~㉣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문체의 새로운 분위기를 감지할 정도로 영민한 왕이었다.
- ② ㉡ : 당대의 문장들의 전범으로서 체제 유지를 위해 동원된 장치이다.
- ③ ㉢ : 미시적인 세계에 관심을 둔 이질적인 문체로, 문풍 타락의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 ④ ㉣ : 북경 여행의 대장정을 기록한 글로, 다양한 문체를 통해 거대 담론을 위주로 담게 된다.
- ⑤ ㉣ : 고문체를 지어 죄를 씻으라는 조치에 대해, 자책하면서도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30. 문맥상 ㉠~㉣을 바꿔 쓸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담겨
- ② ㉡ : 그르치거나
- ③ ㉢ : 지켜야
- ④ ㉣ : 여겨졌다
- ⑤ ㉣ : 막도록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의 정보화 기술은 컴퓨터의 성능 개선과 더불어 발전하고 있으며, 컴퓨터의 성능 개선은 실리콘 반도체 집적화 기술의 발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판되고 있는 실리콘 반도체칩의 집적화는 90나노미터 이하로 내려가면 단열 물질의 두께 감소에 따른 주변 회로 사이의 전자 유출과 전자의 통계적 흔들림 등으로 전자의 운동 방향이 무질서해진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의 집적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그래서 무기물 반도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생체 분자를 이용한 생물전자소자이다.

생물전자소자는 지방, 단백질, 신경 세포 등의 생체 물질로 구성되며 생명체의 신호 전달 처리 등 ㉠ 다양한 생체 기능을 모방한 것이다. 그래서 생물전자소자는 정보를 전달하고 저장하는 전자의 흐름이 무기물인 실리콘에서 수행되던 기존의 반도체칩과 달리 ㉡ 생물 분자인 효소 단백질에서 수행되며 정보의 전달과 저장이 단백질 분자상에서 전자나 광을 제어함으로써 행해진다. 그리고 이렇듯 분자 수준에서 수행되는 신호 전달 및 저장 기능은 피코초(1 피코는 1조분의 1초) 이내의 빠른 전달 속도와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생물전자소자가 기존의 실리콘칩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바탕이 된다.

생물전자소자는 ㉢ 생체 분자를 분자 수준에서 제어하여 전자 소자로 응용한 것이다. 생물전자소자에 응용되는 생체 분자는 그 크기가 수십 옴스트롬(1옴스트롬은 100억분의 1미터)에서 수 나노미터 단위의 크기이기 때문에 생체 분자를 소자로 이용하면 열 발생이 매우 적어 정보 처리의 안정성이 높아지며 ㉣ 집적화 밀도는 기존의 실리콘칩에 비해 1,000만 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이는 더욱 좁은 공간에 더욱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생체 분자는 생화학 반응을 통해 인간의 신경계와 같이 신호를 병렬로 처리하는 등 매우 우수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뇌와 같이 한번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생물전자소자는 시스템의 소요 동력을 줄이며 비약적으로 연산 처리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정보 교환시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생물전자소자가 사용된 ㉤ 바이오컴퓨터를 구현한 기술이 DNA 컴퓨팅 기술이다. DNA 컴퓨팅 기술을 사용한 바이오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와 달리 처리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도 빠른 시간 안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는 DNA 컴퓨팅 기술이 병렬 연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DNA 컴퓨팅은 생체 분자의 병렬성을 이용해서 주어진 문제와 관련해 ㉥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을 전부 탐색한다. 여러 방향으로 연산을 수행한 후 생성된 수많은 해 중에서 최종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발견하는 것이다. 반면에 기존의 컴퓨터는 주어진 연산 방향으로 하나의 연산만을 수행하는 직렬 연산 방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연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거나 잘못된 연산이 수행되면 컴퓨터는 연산의 처음 시점으로 돌아가 다른 변수를 이용한 연산을 수행한다.

생물전자소자 기술은 어느 한 학문에 의해 발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생물전자소자는 완전히 실용화되지 못했지만 최근 20여 년 동안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생물공학, 화학공학 기술 등이 매우 빠르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조만간 실용적이며 상업성 있는 생물전자소자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생물전자소자는 미래의 컴퓨터에서 정보의 처리와 저장 및 검색을 담

당하는 중추가 될 것이다.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과 관련 있는 현상들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있다.
 - ② 대상의 주요 특징과 장점을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의 한계를 지적한 후 극복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 ④ 대상의 우수성을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해 소개하고 있다.
 - ⑤ 대상과 관련 있는 사례들을 제시해 원리를 도출하고 있다.

32. 윗글을 읽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리콘 반도체칩은 크기가 미세해질수록 집적화하는 데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어.
 - ② 생물전자소자 기술은 여러 학문이 종합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면 발전하기가 힘들겠구나.
 - ③ 생물전자소자는 생체 분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대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
 - ④ 실리콘 반도체칩을 사용한 컴퓨터는 직렬 연산 방식이라 대용량의 정보를 처리할 때 시간이 지체될 수 있겠어.
 - ⑤ 생물전자소자가 인간의 신경계처럼 생화학 반응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받는 것은 불가능하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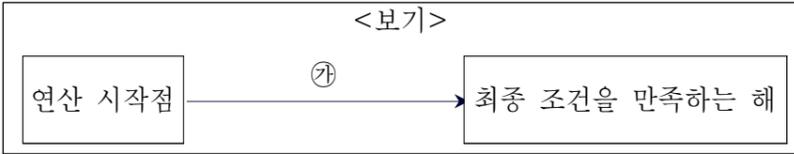
33. ㉠~㉥과 관련해 <보기>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생체 분자에는 분자 인식 기능이 있어, 하나의 분자가 자신의 상대가 되는 분자를 발견해 그것하고만 결합하는 성질이 있다. 이러한 분자 인식과 결합의 원리를 응용하여 생체 분자를 자동적으로 조직화하고 집합화함으로써 생물전자소자는 극미세(極微細) 가공이 가능하며, 제작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① ㉠과 관련해 생물전자소자가 다양한 생체 기능을 모방하는 원리를 밝힌다.
- ② ㉡과 관련해 정보를 전달하고 저장하는 전자의 흐름이 수행되는 위치를 구체화한다.
- ③ ㉢과 관련해 생체 분자를 분자 수준에서 제어하는 일이 가능한 이유를 제시한다.
- ④ ㉣과 관련해 생체 분자를 이용한 칩을 고밀도로 집적화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 ⑤ ㉥과 관련해 생체 분자의 병렬성과 정보 탐색 기능의 관계를 소개한다.

34. <보기>의 ㉠ 과정에서 살필 수 있는 ㉡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 ① 정보의 처리가 분자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 ② 동시에 여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③ 연산을 반복함으로써 오류의 가능성을 줄인다.
- ④ 적은 에너지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 ⑤ 열이 적게 발생되어 정보 처리의 안정성이 높다.

화법과 작문

[35~37] 다음은 텔레비전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얼마 전 정부가 ○○시의 갯벌을 해상 복합 공간과 국가 전략 산업 단지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과 환경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론 논제는 ‘갯벌을 개발해야 한다.’입니다. 찬성 측에서 먼저 입론을 해 주시고 이후에 반대 측이 입론을 해 주십시오.

찬성 측: 갯벌을 개발하면 생산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용지에 산업 단지, 주거 단지 등을 조성해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갯벌의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는 개발 시점부터 갯벌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저희 팀은 갯벌의 개발을 주장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측: 갯벌은 수산 자원이 풍부하고 각종 동식물의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자연 관찰의 장입니다. 그리고 습지 생태계를 연계한 교육 공간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 관광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갯벌을 개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갯벌은 홍수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여 주는 기능을 합니다. 갯벌의 흙과 모래는 스펀지처럼 그 틈새에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때 순간적으로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아 줍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저희 팀은 갯벌의 개발을 반대합니다.

사회자: 양측의 입론을 들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경제적 효과에 관한 것과 환경 파괴에 대한 것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1차 반론에서는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서 반대 측, 찬성 측의 순서로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측: 찬성 측에서는 갯벌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강조하시는데요, 저희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보존된 갯벌이 지닌 경제적 가치는 연간 16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는 2006년부터 8년에 걸쳐 갯벌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로, 단위 면적당으로 따지면 연간 가치는 약 63억 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개발보다는 보존으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큼니다. 그러므로 찬성 측의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 반대 측에서 갯벌의 보존에 따른 이익을 강조하시는데요, 갯벌의 보존보다는 개발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갯벌을 개발하면서 인공 호수를 만들어 그 물을 농업 및 공업용으로 활용한다면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갯벌과 주위의 섬, 해변 등 풍부한 해양 자원을 활용해 관광 레저 단지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반대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사회자: 양측에서 1차 반론을 했습니다. 2차 반론에서는 환경 파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1차 반론과 같습니다.

반대 측: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갯벌의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갯벌은 바다에 흘러드는 오염 물질을 정화해 줍니다. 공장이나 가정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이 바다로 흘러갈 때 갯벌의 퇴적층은 거름종이처럼 오염 물질을 걸러 냅니다. 이렇게 걸러진 오염 물질은 갯벌에 사는 각종 동식물에 의해 분해되고 정화됩니다. 그런데 갯벌을 개발하면 갯벌의 정화 기능이 사라지는데다가 새로운 토지 이용으로 인한 각종 폐수와 쓰레기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환경 파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찬성 측: 반대 측은 갯벌의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강조합니다. 즉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환경 관리 시설 설치, 천연 동식물 보호 대책 수립, 동식물들을 위한 깨끗한 서식처 제공,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습지 생태 공원 건설 등의 예방 대책을 통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 측은 너무 환경 파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네, 양측의 반론을 잘 들었습니다. 잠시 속의 시간을 거친 후에 최종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5. 위 토론 과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 측은 입론에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근거로 들어 주장을 펼치고 있다.
- ② 찬성 측은 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는 일련의 대책을 근거로 들어 반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③ 반대 측은 입론에서 갯벌을 보존했을 때의 가치가 개발했을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주장을 펼치고 있다.
- ④ 반대 측은 갯벌의 개발 방식의 비과학성을 근거로 들어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⑤ 반대 측은 갯벌의 개발로 인해 갯벌에서 환경 파괴가 가속화될 것임을 근거로 들어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36. 위 토론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론의 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 ② 토론의 진행 절차에 따른 발언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③ 토론자들의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 ④ 쟁점별로 토론자들 간에 상호 반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⑤ 토론에서 제기된 모호한 용어의 정의를 토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고 3

37. <보기>를 참고하여 [A]를 반박한다고 할 때, 반대 측에서 반박할 발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보기>
반론 단계에서는 앞에서 다룬 모든 쟁점을 다시 언급하기보다는 쟁점 중에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쟁점을 선택하여 상대 측 주장의 약점을 드러내야 한다.

- ① 갯벌의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② 갯벌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 수치를 활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③ 갯벌의 개발을 통해 경제 발전과 환경 보존이 상충할 수 있습니다. 경제와 환경을 모두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④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갯벌의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찬성 측은 갯벌의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⑤ 갯벌은 어민들의 생계 터전이자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이런 갯벌을 개발하면 어민들의 생계와 삶의 터전은 사라집니다. 피해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업을 통한 소득이 없어서 궁핍한 삶을 살게 됩니다.

[38~41] (가)는 라디오 방송 대담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학교 신문에 기고하기 위해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라디오 대담
사회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과학 전문가 ○○○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해 주실 건가요?
전문가: 사회자님은 혹시 '펠레의 저주'라고 들어 보셨나요?
사회자: 펠레의 저주라면 축구계의 전설인 펠레가 우승 후보로 예상한 팀들이 어이없게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긴 말 아닌가요?
전문가: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펠레의 말에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펠레의 저주는 확률과 관련된 문제로, 오늘 제가 이야기할 '머피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머피의 법칙이라면 나에게만 불행한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들은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펠레의 저주와 연관이 될 수가 있지요?
전문가: 혹시 사회자님은 월드컵 우승팀을 예측해서 맞히신 적이 있나요?
사회자: 세 번의 월드컵에서 예측을 해 보았는데, 제가 예상한 팀이 우승한 적은 없어요.
전문가: 사회자님의 저주도 만들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웃음) 여기에는 펠레의 저주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승팀을 알아맞힐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팀이라 하더라도 우승 확률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맞는 것이 대단한 것이지 틀리는 것이 불운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자: 그래도 10번 예측해서 10번 다 틀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전문가: 확률이 10%라는 것은 10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맞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8번째까지 틀리다가도 19, 20번째에 맞힐 수도 있지요. 통계학자들은 이처럼 특정 사건이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현상을 '군집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규칙적으로 분포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운은 없을 때는 없다가도 때로는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운이 없는 시기에 놓이게 되면 자기만 불운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머피의 법칙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운이 좋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운이 없는 것은 더 크게 느끼는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머피의 법칙이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사회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요?

전문가: 혹시 마트 계산대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계산대의 줄이 먼저 줄어드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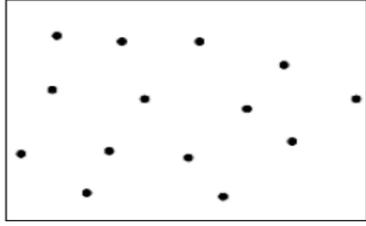
사회자: 네, 있어요. 어떤 때는 줄이 좀 짧다 싶은 쪽으로 가면 원래 있던 줄이 더 빨리 줄어들더라고요.

전문가: 그것도 사회자님이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개의 계산대가 있다고 할 때 내가 줄 선 계산대의 줄이 제일 먼저 줄어들 확률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으니, 여간 운이 좋지 않은 한 다른 줄이 먼저 줄어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제일 먼저 줄어드는 줄만 바라보니까 운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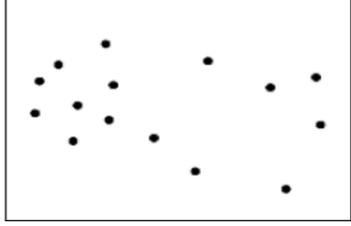
진행자: 그리고 보니 우리가 너무 운이 좋은 일만 일어나 주길 바라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청취자들의 질문을 받고 계속하겠습니다.

(나) 학생의 초고
머피의 법칙은 과학이다
살다 보면 꼭 나만 운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마트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 다른 줄은 빨리 줄어드는데 꼭 내가 선 줄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 날은 물건을 잔뜩 들고 있는데 버스도 빨리 오지 않는다. 이럴 때 쓰는 '머피의 법칙'이란 말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꼬이기만 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
머피의 법칙은 1949년 미국의 에드워드 공군 기지에서 일하던 머피 대위가 '어떤 일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 하나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누군가는 꼭 그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필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까 하는 생각이 머피의 법칙을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의 상당수는 확률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들이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4개의 계산대가 있다고 할 때 자신이 선 줄이 가장 먼저 줄어들 확률은 1/2이다. 나중에 줄어드는 줄에 선 자신이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먼저 줄어드는 줄에 선 사람이 운이 좋은 것이다.
안 좋은 일은 몰려서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역시 마찬가지다. 아래 그림에서 종이에 찍은 점을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림 1>은 규칙적으로 골고루 일어나는 경우이고, <그림 2>는 안 좋은 일이 몰려서 일어나는 경우이다. 통계학자들은 <그림 2>와 같은 분포를 '군집 현상'이라

고 부르며 <그림 1>보다 일어날 확률이 높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그림 1>



<그림 2>

세상에서 불운을 경험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그 불운이 몰려서 오는 것도 아주 특이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좋은 상황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불운을 겪으면 자신에게만 불운이 몰려서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때로는 행운이 연속되는 날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머피의 법칙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38. (가)의 대담 참여자들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자는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② 사회자는 물음의 형식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③ 사회자는 중심 화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대담을 진전시키고 있다.
- ④ 전문가는 사회자의 경험을 확인하고, 이를 주제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전문가는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며 사회자가 이해한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39. (가)의 대담을 들은 청취자가 질문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저는 월드컵 우승 팀을 예상할 때마다 모두 빗나갔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 ② 사람들이 '머피의 법칙'에 대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③ 확률이 10%라는 것은 열 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닌가요?
- ④ '펠레의 저주'라는 말이 공감을 얻는 데에는 펠레의 말에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 ⑤ 특정 사건이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것이 규칙적인 것보다 자연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40. (나)에 나타난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방송에 나왔던 예를 이용하여 '머피의 법칙'을 설명한다.
- ② '머피의 법칙'을 대하는 자세를 이야기하여 주제 의식을 보여준다.
- ③ '군집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각 자료를 활용한다.
- ④ 방송에 나오지 않았던 '머피의 법칙'의 유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이해를 돕는다.
- ⑤ '머피의 법칙'에 작용하는 심리적 요인을 배제하고 수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41. (나)의 점검 내용과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항목	점검 내용	수정 방안	
①	제목	머피의 법칙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법칙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음.	'과학적 관점에서 본 머피의 법칙'으로 수정함.
②	1문단	내용상 불필요한 문장이 사용됨.	세 번째 문장을 삭제함.
③	2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머피의 말을 잘못 해석함.	'다른 사람이'를 '자신'으로 수정함.
④	3문단	논리상 맞지 않는 수치가 사용됨.	'1/2'을 '1/4'로 수정함.
⑤	마지막 문단	접속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음.	'그리고'를 '그렇지만'으로 수정함.

[42~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의 작문 계획]

-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들
- 주제: 인포그래픽에 대한 이해
- 글의 구성
 - 1문단: 인포그래픽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한다.
 - 2문단: 인포그래픽의 유형별 장단점을 정리한다.
 - 3문단: 인포그래픽의 제작 과정을 설명한다.
 - 4문단: 강조할 부분을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초고]

요즈음 인포그래픽이라는 말을 여러 매체에서 듣게 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인포그래픽은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의 ‘인포’와 ‘그래픽’이 합쳐진 말로, 정보를 그래픽 형태로 나타낸 것을 일컫는다. 인포그래픽이 요즈음 각광받는 이유는 우리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찾는 것은 가능해도 그 핵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인포그래픽은 정보를 선별한 후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중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수많은 정보를 뒤져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있다. 이러한 인포그래픽은 광고, 통계 자료, 학술 저서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인포그래픽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이미지형 인포그래픽은 정보를 이미지 형태로 표현하여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른 인포그래픽에 비해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현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어 단조롭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영상으로 구현되는 모션 인포그래픽이 있다. 영상의 특성을 살려서 배경 음악이나 해설 등의 청각적 요소를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치 자료와 같은 것도 다양하게 삽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지형 인포그래픽에 비해 제작 비용이 많이 들고 정보의 수정이나 업데이트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대화를 한다는 의미의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은 정보 수용자가 어떤 정보를 요구하면 해당 정보를 찾아서 제공하는 쌍방향 소통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이지만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과 같은 장치가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인포그래픽을 제작하려면 먼저 작업에 앞서 인포그래픽 작업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목적을 설정한 후에는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하는데, 적은 양의 자료로는 알찬 내용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자료를 취사선택한 후 인포그래픽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게 된다. 이는 인포그래픽의 전체적인 구상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다음으로는 시각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같은 자료라도 막대그래프가 좋을지 원그래프가 좋을지 고려하거나, 구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제시할 것인지 고려하는 등 이미지로 표현할 때 어떤 방식이 효과적일지 생각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잘 거치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포그래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포그래픽을 만들 때는, ㉠

42. 학생은 쓴 초고의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명 대상인 ‘인포그래픽’의 정확한 용어 개념을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하여 전달한다.
 - ② 인포그래픽을 분류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명확히 밝혀서 전달하고 있다.
 - ③ 인포그래픽 작업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인터넷 매체의 특징인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포그래픽에 관한 내용도 언급하고 있다.
 - ⑤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인포그래픽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음을 전달하고 있다.

43. <보기>는 [A]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반영된 순서로 적절한 것은?[3점]

<보기>

- ① 많은 사람들이 인포그래픽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을 제시해야겠어.
- ② 인포그래픽이 지니고 있는 유용성과 활용 현황을 제시해야겠어.
- ③ 인포그래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인포그래픽의 어원을 통해 개념을 설명해야겠어.
- ④ 인포그래픽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를 간단히 언급해야겠어.

- ① a-c-d-b
- ② a-d-c-b
- ③ b-a-d-c
- ④ c-a-d-b
- ⑤ c-d-a-b

44. 윗글을 바탕으로 인포그래픽에 대한 발표 자료를 만들려고 한다. <보기>의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

커피 전문점의 메뉴판에 있는 커피 종류를 보면,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카푸치노 등으로 다양한데,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에스프레소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하여 원두를 분쇄한 가루에서 추출한 고농축의 커피이다. 거기에 뜨거운 물을 타면 아메리카노, 데운 우유를 타면 카페라테, 데운 우유와 우유 거품을 얹으면 카푸치노가 된다.

(나)

고 3

- ① (가)와 (나)의 공통점에 착안하여, 인포그래픽 작업을 하려면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시할 수 있겠군.
- ② (가)와 (나)를 비교하여, 인포그래픽의 시각화 전략을 통해 대상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사례로 제시할 수 있겠군.
- ③ (가)를 활용하여 (나)를 제작한 점을 들어, 인포그래픽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면 이미 제공된 정보 외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겠군.
- ④ (가)보다 (나)가 쉽게 이해된다는 점에서, 인포그래픽에는 자료의 수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료의 취사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⑤ (가)보다 (나)가 더 제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포그래픽 작업에 앞서서 인포그래픽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겠군.

45. 마지막 문단을 완성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비유를 활용하여 정보에 맞게 인포그래픽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 인포그래픽의 목적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 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첨단 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첨단 기기에다가 인포그래픽을 더한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②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작 방법을 먼저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인포그래픽을 통한다면 정보화 시대에 정보 전달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활용할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인포그래픽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④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편안하듯이 전달하려는 정보에 가장 적합한 유형의 인포그래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인포그래픽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음식 재료를 잘 써야 좋은 요리가 나오듯이 정보의 품질에 따라 인포그래픽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의 정확한 선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합성어는 두 개 이상의 어근이 붙어서 새로운 뜻을 지니게 된 단어를 말한다. 합성어의 분류 방법은 크게 셋으로, 의미 관계에 따른 분류가 있고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른 분류가 있으며 합성어의 품사에 따른 분류가 있다.

의미 관계에 따라 합성어는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 융합 합성어로 구분할 수 있다. 대등 합성어는 어근이 각각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대등하게 붙어서 된 합성어이다. 오가다, 논밭, 손발 등이 그 예에 해당하다. 종속 합성어는 한쪽의 어근이 다른 한쪽의 어근을 꾸며 주는 합성어이다. 콩나물, 돌다리, 빌어먹다, 알보다 등이 그 예가 된다. 융합 합성어는 각각의 어근이 가진 본래의 의미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이다. 밤낮(늘), 피땀(노력), 춘추(나이) 등이 그 예가 된다.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서 확인되는 단어의 배열법에 따라 형성된 합성어이다. 즉 통사적으로 쓰이는 구(句)나 어절의 구성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형성된 것이다. 알아듣다, 볼거리, 밤낮 등이 그 예가 된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서 벗어나는 단어의 배열법으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즉 통사적으로 쓰이는 구나 어절의 구성 방식과 다르기에 이를 일컬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단다, 부슬비, 덮밥 등이 그 예가 된다.

합성어를 품사에 따라 분류하면 합성 명사, 합성 동사, 합성 형용사, 합성 부사, 합성 관형사로 나뉜다.

- (ㄱ) 합성 명사 집안, 논밭, 껌쇠, 큰집
- (ㄴ) 합성 동사 뛰놀다, 붙잡다, 굶주리다, 본받다
- (ㄷ) 합성 형용사 높푸르다, 검붉다, 굳세다, 낮설다
- (ㄹ) 합성 부사 밤낮, 사이사이, 온종일, 곧잘
- (ㄹ) 합성 관형사 두서너, 몹쓸, 여남은, 온갖

(ㄱ)은 합성 명사인 데, '집안', '논밭'은 두 개의 명사로, ㉠ '껌쇠'는 '동사 + 명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큰집'은 '형용사 + 명사'로 이루어져 있다. (ㄴ)은 합성 동사인 데, '뛰놀다', '붙잡다', '굶주리다'는 '동사 + 동사'로 ㉡ '본받다'는 '명사 + 동사'로 구성되어 있다. (ㄷ)은 합성 형용사인 데, '높푸르다', '검붉다'는 두 개의 형용사로, '굳세다'는 '동사 + 형용사'로, '낮설다'는 '명사 +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다. (ㄹ)은 합성 부사인 데, '밤낮', '사이사이'는 두 개의 명사로, '온종일'은 '관형사 + 명사'로, '곧잘'은 두 개의 부사로 구성되어 있다. (ㄹ)은 합성 관형사인 데, '두서너'는 세 개의 수 관형사로, '몹쓸'은 '부사 + 동사', '여남은'은 '수사 + 동사', '온갖'은 '관형사 + 명사'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합성어의 품사는 가장 나중에 오는 어근의 품사에 따라 결정되지만, '밤낮', '온종일', '사이사이'와 같은 합성 부사, '몹쓸', '여남은', '온갖'과 같은 합성 관형사 등은 예외이다.

35.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 접칼은 칼날을 자루 안으로 접어 넣었다 폼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 돌부처를 보자 그는 없었던 불심마저도 마구마구 썬는 것 같았다.

㉢ 봄이 채 시작되기 전에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갔다.

㉣ 그녀는 친구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항상 대답을 잘해서 척척박사라고 불렸다.

㉤ 이 버스는 관광지 내에서만 하루에 열 번씩 오가는 순환 버스이다.

- ① ㉠의 '접칼'을 의미 관계에 따라 분류하면 대등 합성어이다.
- ② ㉡의 '돌부처'는 일반적인 문장 구조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③ ㉢의 '날아갔다'는 품사에 따라 분류할 때 '합성 형용사'이다.
- ④ ㉣의 '척척박사'는 뒤에 오는 '박사'에 의해 품사가 결정되었다.
- ⑤ ㉤의 '오가는'은 한쪽의 어근이 다른 한쪽의 어근을 꾸며 주는 합성어이다.

36. 밑글 친 부분이 ㉠, ㉡과 동일한 단어 배열을 가진 합성어의 예로 적절한 것은?

- ㉠: 자식 없는 늙은이가 가장 외로운 법이다.
- ㉡: 멀리서 거칠게 대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 ① ㉠: 어느덧 그의 얼굴에는 검버섯이 피기 시작했다.
- ㉢: 그는 젖은 옷을 서둘러 갈아입고 출발했다.
- ② ㉠: 오늘 점심엔 오징어를 볶아 덮밥을 만들었다.
- ㉣: 뱃사공들은 소리에 맞춰 힘내서 노를 저었다.
- ③ ㉠: 영수는 큰형보다는 나이가 한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작은 형과 더 친하게 지낸다.
- ㉤: 장독대에는 배부른 향아리들이 가득했다.
- ④ ㉠: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처음엔 친구로만 지내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들고 사랑하게 되었다.

37.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보기>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ㅇ'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 'ㄷ', 'ㅌ'이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ㄷ'이 된다. 그 예로는 '굳이'가 [구지]로, '뻗히다'가 [뻗치다]로 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① 마음을 굳히다[구치다].
- ② 날날이[난:나치] 밝혀라.
- ③ 콩고물을 물히다[무치다].
- ④ 미닫이[미:다지]를 열고 들어왔다.
- ⑤ 밭이랑[반니랑]에 옥수수를 심었다.

고 3

38.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과제를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오늘은 형태소에 대해 배워 보겠습니다.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의미라는 것이 문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 하고, 접사나 조사등과 같이 문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하지요. 한편, 형태소는 명사나 부사처럼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는 것과 동사의 어간이나 어미, 접사처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전자를 자립 형태소라고하고 후자를 의존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음 문장에 쓰인 형태소를 분석해 볼까요?

철수가 몰래 그런 데나 오가는 사람으로 보이냐?

- ① ‘철수가’에서 ‘철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는 문법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이루어졌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 ② ‘몰래’와 ‘사람’은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쓰이므로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라 할 수 있습니다.
- ③ ‘데나’의 ‘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형식 형태소이며 의존 형태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④ ‘오가는’은 ‘오가 -’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는’은 형식적 의미를 가지므로 하나의 실질 형태소와 하나의 형식 형태소로 이루어졌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 ⑤ ‘보이냐’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와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하나의 실질 형태소와 두 개의 형식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39~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에서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파생어를 만들어 내는 문법적인 방법을 파생법이라고 한다. 접사는 어근이 되는 원래 단어의 문법적인 성질은 바꾸지 않고 특정한 의미만을 덧붙이는 ㉠ 한정적 기능을 하거나, 어근에 특정한 뜻만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통사적 구조를 바꾸거나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 지배적 기능을 한다.

접두사에 의해 파생된 단어는 대체로 체언과 용언이다. ‘덧신’, ‘참기름’ 등과 같이 체언 앞에 접두사가 붙으면 접사는 체언의 의미를 한정한다는 점에서 관형사와 비슷하게 기능한다. 또한 ‘덧나다’, ‘새까맣다’ 등과 같이 용언 앞에 접두사가 붙으면 접사는 용언의 의미를 한정한다는 점에서 부사와 비슷하게 기능한다. 그리고 접두사에 의한 파생법은 주로 한정적인 기능만 갖는 데 반하여, 접미사는 한정적 기능뿐만 아니라 지배적 기능도 갖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동사의 어근에 접미사를 붙여 피동사를 만들고 그 피동사가 서술어인 문장을 만들면, 원래 동사가 서술어로 쓰였을 때의 문장과는 다른 문장의 구조가 만들어진다.

근대 국어에서도 파생법에 의한 단어의 형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체언 파생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먼저 근대 국어에서는 용언을 명사로 파생시키는 접미사로서, 중세 국

어에서부터 널리 쓰이던 ‘-이’, ‘-ㅁ/-음’ 외에도 ‘-기’의 쓰임이 나타났고, 기존의 ‘-ㅁ/-음’뿐만 아니라 ‘-음/-음’으로도 실현되었다. 또한 중세 국어에서 명사형 전성 어미로 쓰였던 ‘-음/-음’의 형태가 근대 국어에서는 대체로 ‘-ㅁ/-음’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근대 국어에서는 명사형 전성 어미인 ‘-ㅁ/-음’과 명사 파생 접미사인 ‘-ㅁ/-음/-음/-음’의 형태가 서로 혼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끝으로 중세 국어에서 형용사인 ‘크다, 높다, 깊다, 길다’ 등에서 파생된 명사의 형태는 각각 ‘키, 노퍽, 기퍽, 기퍽’ 등이었으나, 근대 국어 후반인 19세기부터는 명사 파생 접미사인 ‘-이/-의’의 형태가 ‘-이’로 바뀜에 따라 파생 명사의 형태는 파생 부사와 같아지게 되었다.

39. 윗글을 참고할 때, ㉠과 ㉡을 수행하는 접사가 사용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들이 헛소문을 퍼뜨렸다.
- ② ㉠: 개살구는 맛이 없었다.
- ③ ㉠: 남의 말을 엿듣고 있었다.
- ④ ㉡: 거리에 사람이 들끓었다.
- ⑤ ㉡: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었다.

40. 윗글을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거름(걸음), 쓰레밧기(쓰레받기)
- ㉡ 깃뿔(기뿔), 게으름(게으름)
- ㉢ 노피(높이), 기리(길이)
- * ()는 현대어 표기임.

- ① ㉠, ㉢는 모두 용언의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이겠군.
- ② ㉠와 달리 ㉡, ㉢에 쓰인 접미사는 지배적 기능을 가졌겠군.
- ③ ㉠에서 ‘거름’에 쓰인 접사에 비해 ‘쓰레밧기’에 쓰인 접사는 상대적으로 후대에 나타난 접사이겠군.
- ④ 근대 국어의 문헌에서는 ㉡와 형태는 동일하지만 파생 명사가 아닌 경우도 있겠군.
- ⑤ ㉢의 ‘노피’, ‘기리’에 붙은 접미사는 19세기 국어에서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와 형태가 같겠군.

고 3

[41~43] 다음 두 신문 기사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구시가 관광객을 이끌어 들이기 위해 팔공산에 구름다리를 놓으려고 하자 시민 사회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앞산·팔공산 막개발 저지 대책 위원회’는 기자 회견을 열고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 공동 대표는 “팔공산은 자연이 만들어준 대구의 명소이자 보전해야 할 유산인데 구름다리가 건설되면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말 것”이라며 팔공산 구름다리 계획을 거두어들일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구름다리 설치에 따른 방문객 증가 효과는 미미하고, 케이블카 이용자만 늘려 사업자의 배만 불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구름다리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교수는 “1985년 들어선 케이블카 때문에 낙타봉 ~동봉 구간은 나무뿌리 24퍼센트, 암석 47퍼센트가 노출되는 등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 현장 정밀 조사도 없이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면 팔공산 남부 지역 자연 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옥○○ 대구·경북 야생 동물 연합 운영 위원은 팔공산에는 동식물 4741종이 서식하고 있어 북한산(2945종), 계룡산(3375종)과 비교해 자원 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공 조형물이 설치되면 야생 동물 서식 환경을 위협해 생태계 교란 및 서식지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사회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환경 보호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민 단체, 전문가 등 여론을 수렴해 환경 영향 평가와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
 대구시는 올해 1월 핵심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건다고 발표했다. 이는 열악한 대구 관광 자원의 개발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 온 관광 전문가 및 관광 업계의 의견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대구시의 의지로 풀이된다.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기존 케이블카를 최대한 활용한 사업이다. 올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019년까지 정상 전망대, 스카이워크, 케이블카 정상과 동봉 방향의 낙타봉을 잇는 폭 2미터, 길이 230미터의 국내 최장의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등산로를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팔공산 케이블카는 정상부의 산악 체험 시설과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거리가 없어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에는 140억 원(국비 70억 원, 시비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구 핵심 관광 자원 개발 계획이 ㉠로 대두되고 있다. 시민 환경 단체들이 “팔공산은 대구 시민들이 보존해야 할 귀중한 자연 유산이다. 이곳에 대형 인공 구조물이 들어서면 생태계 훼손이 ㉡하다.”라며 구름다리 계획을 즉각 전면 ㉢하라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구시 관광 개발 팀장은 “우리나라에 구름다리가 50군데 있다. 최근에 건설한 옥지도, 경기도 파주 등에는 관광객들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팔공산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구름다리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해명했다.

41.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② 둘 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둘 다 시민 단체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구름다리 설치가 관광객 증가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⑤ (가)는 (나)와 달리 경제적 효과보다 자연경관과 생태계 보존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42. (가), (나)와 같은 매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표제, 부제, 전문, 본문과 같은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②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기자와 독자의 쌍방향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일반적으로 5W 1H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⑤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일부 수록되는 경우도 있다.
43. (가), (나)를 읽고 난 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① 필자의 관점으로 보아, (가)의 표제는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공감대 형성 후 추진해야’가 적절하겠군.
 ② 필자의 관점으로 볼 때, (나)의 표제는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로 지역 경제 살려야’가 적절하겠어.
 ③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에는 ‘뜨거운 감자’가 적절하겠군.
 ④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에는 ‘명약관화(明若觀火)’가 적절하겠어.
 ⑤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에는 ‘백지화(白紙化)’가 적절하겠군.

고 3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전 지킴이의 블로그
블로그 | 독서 | 여행 | 정보

스마트폰족을 위한 교통 표지판 등장

제가 사는 ○○시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동차와 맞닥뜨리는 위험한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형상화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이와 같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스마트폰 주 사용층인 10~30대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역 등 다섯 곳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상위 10국



수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죠.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67.6퍼센트로 세계 1위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인터넷 검색은 물론 누리소통망 이용, 은행 업무까지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스마트폰을 제 3의 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보행 습관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단에서 2013년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616명 중 95.7퍼센트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1회 이상 사용한다고 답했고, 5명 중 한 명은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가 휴대 전화 통화를 하느라 빨간 신호등을 못 본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퍼센트 보행자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통상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왔었는데, 이례적으로 보행자에게 100퍼센트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http://www.ts2020.kr> 교통안전 공단 누리집 참조함.)

다른 나라에서도 사고 예방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 표지판이 등장했고요, 벨기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전용 도로를 만들어 보행자 간 충돌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 스웨덴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주의 표지판



▲ 벨기에의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 도로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사고 인식률이 떨어지고 시야의 각도가 현저히 좁아집니다.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때문인 것만 봐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안전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 스웨덴과 벨기에의 사례 사진은 ○○시 누리집에서 가져옴.)

댓글 8 공감 20

종달새 비슷한 주제로 수행 평가 중이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해요. ^^

↳ 안전 지킴이 교통안전 공단 블로그인 ‘교통안전 연구소’에 관련 정보가 더 많이 있어요.

소울 제 주변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걷다가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윤주 엄마 교통 표지판 설치와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최소 5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사막여우 진짜로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대부분이 스마트폰 사용 때문인가요?

↳ 비틀비틀 찾아보니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23만 2,035건 중에 스마트폰 관련 사고는 1,360건밖에 안 됨.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서 내용을 긁어서 글을 쓰다니 한심하네. 꾀꾀.

↳ 안전 지킴이 자료 조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곧 수정하겠습니다.

몸비 스마트폰 보급률 그래프는 출처가 어디인가요? 믿을 만한 통계 자료인가요?

44.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글쓰기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열린 글쓰기로서 하이퍼텍스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
- ② 내용 전달을 돕는 그림, 그래프 등을 삽입함으로써 흥미 유발과 내용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③ 자극적인 내용과 흥미 위주의 글쓰기로 게시판 조회 수를 올려 글쓰기의 상업화를 조장할 수 있다.
- ④ 글이나 댓글을 익명으로 쓸 수 있어 의견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으나 책임감이 약한 측면이 있다.
- ⑤ 댓글을 통해 작가와 독자는 물론 독자와 독자 간에도 쌍방향 의사소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45. 책임감 있는 글쓰기 태도를 고려할 때, 댓글을 포함하여 윗글을 수정·보완해야 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통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법 외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보충한다.
- ②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말투도 존댓말을 사용한다.
- ③ 본문에서 제시한 스마트폰 보급률 상위 10국에 대한 그래프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힌다.
- ④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른 나라의 효율적인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충한다.
- ⑤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교통사고 중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관련 사고의 정확한 비율과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정답 및 해설

문학/독서

1	④	2	④	3	④	4	④	5	④
6	⑤	7	①	8	④	9	①	10	⑤
11	④	12	⑤	13	④	14	⑤	15	③
16	⑤	17	③	18	③	19	⑤	20	③
21	⑤	22	②	23	⑤	24	④	25	⑤
26	③	27	④	28	③	29	④	30	②
31	②	32	⑤	33	③	34	③	수고하셨습니다.	

[1~3] 문학 : 현대시
 [지문 분석]
 (가)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방공호(적의 항공기 공습이나 대포, 미사일 따위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땅속에 파 놓은 굴이나 구덩이, 전쟁을 환기하는 소재) 위에 / 어찌다 핀
채송화 꽃씨(극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이어 가는 존재,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함)를 받으신다.](작고 소박한 생명까지도 중시하는 할머니의 모습)
 방공호 위에 핀 채송화 꽃씨를 받으시는 할머니
호(壕) 안에는 / 아예 들어오시질 **않고**(행동을 통해 노여움을 표현함)
 말이 솟게 적어지신
 할머니는 그저 **노여우시다**.(전쟁 상황에 대한 할머니의 감정)(생명을 죽이는 전쟁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할머니의 분노)
 방공호 앞에서 노여워하시는 할머니
 [— 진작 죽었더라면 / **이런 풀 / 저런 풀**(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 상황)
 다 보지 않았으련만.....](할머니의 말을 직접적으로 제시 : 비극적이고 폭력적인 전쟁의 현실에 앞에서의 분노와 한탄)
 전쟁의 비극에 대한 푸념
 글쎄 할머니 / **그걸 어찌란 말씀이셔요**.(상황의 불가피함을 말할) 솟게 말이 적어지신 /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는 없었다.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 없는 화자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수미상관의 구조)
 인젠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대도**(극한의 상황에 대한 가정)
 할머니는 역시 살아 계시는 동안은
그 작은 꽃씨를 받으시리라.(생명에 대한 할머니의 의지와 희망을 보여 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꽃씨를 받으실 할머니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상징적, 대화체, 독백체, 반복적, 현실 비판적
- 특징

① 대조 : 전쟁의 참혹함과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마음(애정의 승고함이 채송화라는 작은 사물을 통하여 전쟁의 비정함, 야만스러움과 대조) 방공호 ↔ 채송화

② 시점의 변화(할머니의 직접적인 말)를 통하여 전쟁의 비정함을 나타내고 있다.

③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를 반복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고 있다.

• 주제 : 전쟁의 폭력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

구조

-1연 : 방공호 위에 핀 채송화 꽃씨를 받으시는 할머니

-2연 : 방공호 앞에서 노여워하시는 할머니

-3연 : 전쟁의 비극에 대한 푸념

-4연 :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 없는 화자

-5연 : 어떤 상황에서도 꽃씨를 받으시는 할머니

해제

이 시의 화자는 '할머니'의 손자이다. 화자와 그의 할머니는 함께 방공호에 대피해야 할 상황에 있다. 그런데 할머니는 방공호 위에 피어 있는 채송화에서 꽃씨를 받고 있다. 여기서 포탄 하나가 떨어져도 쭉대밭이 되어 버릴 '방공호 위' 공간은 전쟁의 포화 속에 놓인 인간의 위태로운 상황을, '꽃씨'는 전쟁의 비극을 넘어서는 휴머니즘적 희망을 상징한다. 결국 이 시는 꽃씨를 받으시는 할머니의 모습과 방공호 속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을 대조시켜 전쟁의 비정함과 야만스러움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해와 감상

박남수의 시. 1951년 1·4후퇴 때 월남(越南) 후의 첫 작품이다. <시원유전(始源流轉)> <원죄(原罪)의 거리> 등과 더불어 북한에서 겪은 전쟁의 상황이 주제가 되어 있다.

이 작품은 전쟁의 악의(惡意)와 비참상을 그려 민족상잔의 비극을 은연중 고발하고 있지만, 자연의 생명력과 영구불변(永久不變)의 아름다움을 통해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

절망 속에 놓이더라도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엿보인다. 스피노자의 유명한 말인,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심정과도 통하는 데가 있다.

흔히 전쟁의 상황을 다룬 작품들이 감정 과잉 때문에 전투적이거나 관념의 절규를 일삼기 쉬운데, 박남수는 전쟁의 벽찬 감회를 일단 억제하여 객관적 상관물(相關物)로 감정을 이미지화하고 있다. 전쟁시기의 기념비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꽃씨'의 상징성

시적 화자와 할머니는 방공호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즉 전쟁으로 인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할머니는 방공호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 왜일까? 그것은 전쟁이라는 폭력 사태를 온몸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직면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찌다 핀 채송화 꽃씨'를 받는다. 끔찍한 파괴와 죽음의 현장에서 피어난 채송화는 끈

고 3

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며, 그 '꽃씨'는 생명과 희망을 상징한다. 전쟁의 비정함에 굴복하지 않고 꽃씨를 받는 할머니의 태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휴머니즘을 그대로 드러낸다.

(나)

오늘 내(시적 화자)가
도시락 뚜껑을 열다가(화자의 행위)
눈물을 흘린 것(화자가 도시락 뚜껑을 열다가 눈물을 흘림)
아무도 모릅니다.(경어체 사용)
아무도 모를 거예요.(혼자만 겪는 상처와 아픔)
도시락 뚜껑을 열다가 눈물을 흘림

인간이 살면 얼마나 삽니까(인간의 유한한 삶)
 올해로 그분의 나이 아흔 살
 오늘은 그분의 아흔한 번째 생신날
 [마른 북어 몇 마리
 연시 몇 개
 그분이 좋아하시던 식혜 한 대접
 상을 차리고](정성과 사랑)
남한 여자와 북한 사내가(화자와 화자의 아내를 의미)
두루뭉수리로 된 아들딸 데리고(자식들)
 꿩어 얹드려
 천 번 만 번 빌었습니다.
가족의 생일상을 차리고 가족 상봉과 분단 극복을 간절히
기원함

신의주에서 안동까지
열차를 타고 소풍 갔던 그날처럼(분단 이전의 추억을 떠올림)
 (직유법)
임진강 녹슨 철로를 닦고 댄다(통일을 향한 염원과 노력)
 뽕뽕 신나는 기적을 울리며
 당신 품에 이 손주들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시라고
천만 번 빌고 빌었습니다.(반복을 통한 의미 강조)
분단 이전의 상황을 떠올리며 통일을 염원함

[당신의 생신날 아침
 아내가 싸 준 찰밥덩이(이산의 고통을 환기하는 매개체)
 무심코 도시락 뚜껑 열다가
 눈물 흘린 것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변용된 수미 상관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분단과 이산의 고통을 강조함

핵심 정리

- 갈래 : 현대시, 자유시
 - 성격 : 사실적, 회상적
 - 주제 : 분단과 이산의 상처에 대한 극복과 통일에 대한 염원
 - 특징
- ① 수미상관을 통해 이산의 아픔과 통일에의 염원을 강조함.

②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여 이산가족의 아픔을 형상화함.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이산으로 고통 받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분단으로 인한 이산의 슬픔을 드러내면서 통일과 가족 상봉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

1. <답> ④

<정답 풀이>

(가)는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를 반복하여 비극적인 전쟁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어 주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나)는 1연과 마지막 연이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분단으로 인한 이산의 슬픔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두 작품 모두 회상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 ② 두 작품 모두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 ③ 두 작품 모두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지 않다.
- ⑤ 두 작품 모두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지 않다.

2. <답> ④

<정답 풀이>

(가)의 ‘그걸 어찌란 말씀이श्य.’는 ‘풀 수는 없었다.’와 연관을 지어 이해하면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위로의 말을 한 것이고, (나)의 ‘인간이 살면 얼마나 삽니까’는 ‘그분(부모님 중 한 명)’의 나이가 아흔 살인 상황에서 ‘그분’이 이미, 또는 곧 돌아가실 수 있다는 염려의 심정이 내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의 ‘그걸 어찌란 말씀이श्य.’와 (나)의 ‘인간이 살면 얼마나 삽니까’는 시대적 상황의 지속으로 인한 체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답> ④

<정답 풀이>

㉠의 남한 여자는 화자의 아내, 북한 사내는 화자로 ㉠은 화자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북에 있는 ‘그분’의 생신을 기념하여 식을 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상상을 한 것도 아니고 남북 간의 이념적 대립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염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오답 풀이>

- ① ㉠에서 방공호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전쟁의 상황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 ② ㉡은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전쟁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의 심정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그분이 좋아하시던’에서 알 수 있듯이 ㉢은 ‘그분’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 ⑤ ㉣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화자가 겪고 있는 이산의 슬픔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고 3

[4~8] 문학 : 현대 소설
[지문 분석]

한데 황수건은 그의 말대로 노랑수건이라면 온 동네에서 유명은 하였다. ‘노랑수건’ 하면 누구나 성북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나(서술자)(1인칭 관찰자 시점)**는 차츰 알았다.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에다 그랬거니와 그에겐 우스운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삼산학교에 급사로 있을 시대(과거 ‘황수건’이 학교 급사로 일했음을 알 수 있음)에 삼산학교에다 남겨 놓고 나온 일화도 여러 가지라는데, 그중에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옮겨 보면, (‘황수건’과 관련된 일화는 동네 사람들에게 들었음)**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하기를 대단 즐기어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간 새 손님이 오면 으레 손님을 앉히고는 자기도 걸상을 갖다 떡 마주 놓고 앉는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는 곧 자기류의 만담 삼매로 빠지는 것인데,

한번은 도 학무국에서 시학관이 나온 것을 이따위로 대접하였다. **일본말을 못 하니까(‘황수건’이 일본말을 사용하지는 못함을 알 수 있음)** 만담은 할 수 없고 마주 앉아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하였다.

“센세이 히, 오하요 고자이마스카(선생님, 안녕하세요)? ... 히히 아메가 후리마스(비가 옵니다). 유키가 후리마스카(눈이 옵니까)? 히히 ...”

시학관도 인정이라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열 번 스무 번을 되풀이하는 데(‘황수건’이 눈치가 없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였음)**는 성이 나고 말았다.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황수건’이 종을 치는 일을 했음)** 한 선생이 나와 보니 종 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요 유키가 후리마스카 ...’ 하는 판이다.

그날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물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황수건’이 집사에서 쫓겨난 이유)** 그에 쫓겨나오고 만 것이다.

그는, **“너의 색시 달아난다.”(‘황수건’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

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한다. 한번은 어느 선생이 장난옛말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엔 옛날부터 색시들이 달아나기를 좋아하는데 어제도 저 아랫말에서 둘이나 달아났다니까 오늘은 이 동리에서 꼭 달아나는 색시가 있을걸 ...”

했더니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다.(간접 제시)**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어서 바빠 하학을 시키고 집으로 갈 양으로 오십 분 만에 치는 종을 이십 분 만에, 삼십 분 만에 함부로 다가서 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중략)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소?”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스카이(용인) 노릇을 합쇼. 밀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뼈젓이 장사를 할 텃몹쇼.”

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 될 때까지 차미 장사도 하몹쇼, 가을부터는 군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쇼.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몹쇼. 저를 선생들보다 낮게 치는몹쇼.(황수건의 허풍스러운 성격이 드러남)”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과 연민이 드러나는 소재)**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뼈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몹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실(부부간의 사랑)**은 팬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만에 수건이가 우리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멍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 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나’에 대한 황수건의 고마움을 상징함)**를 훔쳐 온 것을 **직각(보거나 듣는 즉시 곧바로 깨달음)**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 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길을 간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 ... 케 ... 와 나 ... 미다카 다메이 ... 키 ... 카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삶에 지친 황수건의 모습과 그의 심리를 드러냄)

를 부르며 큰길의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돈 삼 원을 갚지 못한 일, 훔친 포도를 가져다 준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흰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황수건에 대한 ‘나’의 배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달배(황수건의 내면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를 다 펍펍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주인공 황수건이 처한 불우한 상황과 비극적인 결말을 서정적인 분위기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함)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

고 3

였다.”

- '달밤'

■ 핵심 정리

- 갈래 : 단편 소설
- 성격 : 애상적, 서정적
- 배경

① 시간 : 일제 강점기(1930년대)

② 공간 : 서울 성북동

-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 주제 :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못난이 황수건의 삶에 대한 연민

- 특징

① 작가의 서정성과 인정미가 잘 드러남.

② 섬세하고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인물과 사건을 형상화함.

■ 이해와 감상

모자라고 우둔하지만 천진한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각박한 세상에 부딪히면서 실패를 거듭하며 아픔을 겪는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서술자이자 관찰자인 '나'가 학교 급사, 신문 보조 배달원, 참외 장사 등의 일을 하지만 계속 좌절하고 상처를 입는 황수건의 일화를 나열하여, 순박한 인물인 황수건이 사회와 일상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비극적이거나 절망적인 분위기로 흐르지 않는 데, 이는 어수룩한 황수건의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을 통해 웃음을 자아내는 한편, 서술자인 '나'가 황수건에 대해 애정 어린 시선을 보냄으로써 황수건의 천진하고 순박한 성격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품의 마지막 부분인 달밤 장면은 애상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소설의 비극적 결말을 막아 주고 있다.

4. <답> ④

<정답 풀이>

ㄴ : 전에는 본 적이 없는 담배를 피우거나, 슬픈 일본 가요를 되풀이하여 부르는 '황수건'의 행위를 통해 그가 현재 답답한 심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ㄷ : 밝은 달밤이라는 서정적 배경을 통해 '황수건'의 쓸쓸한 심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ㄹ : '나'가 달밤에 길을 걸어 나오는 '황수건'의 행위를 보면서 '황수건'에 대해 생각하고 느낀 점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A]는 서술자인 '나'가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을 회상하는 부분으로,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이 나란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ㄷ [A]에는 '황수건'을 아는 체할지에 대해 잠시 고민하는 '나'의 내적 갈등이 나올 뿐,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

5. <답> ④

<정답 풀이>

'황수건'은 삼산학교 학생들이 자신을 매우 좋아하므로, 학교 앞에서 어떤 장사를 해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가 요 며칠 사이에 '황수건'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가 우스운 일을 많이 저지른다는 것이다.

② '황수건'은 '시학관'과 마주 앉아서 자기류의 만담 삼매경에 빠졌다.

③ '황수건'이 학교에서 쫓겨난 것은 급사라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일들을 했기 때문이다.

⑤ '나'가 '황수건'에게 돈을 빌려 준 다음 날의 사건이므로 '황수건'이 장사에 실패했다고 할 수 없다.

6. <답> ⑤

<정답 풀이>

'나'가 어제 성북동 길에서 '황수건'을 보고도 먼저 피한 행위에는 '황수건'과 같은 인물을 소외시킨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한 '황수건'이 '나'를 보면 무안해할까 하는 마음 때문이다. 즉 '나'는 '황수건'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그를 피하려 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황수건'의 엉뚱한 행동은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② '황수건'은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에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행동을 할 정도로 순박한 인물이다.

③ 지식인인 '나'가 '황수건'에게 조건 없이 돈을 빌려 준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연민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정 많고 꾸밈없는 '황수건'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좌절하는 아픔을 겪는 모습을 통해 작가는 각박하고 인정 없는 당대 현실을 드러내려 하였다.

7. <답> ①

<정답 풀이>

'나'는 조건 없이 '황수건'에게 장사할 돈을 줄 정도로 '황수건'을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황수건'이 장사를 잘해 이득을 보았다는 소식 대신에 '황수건'이 장사를 망쳤으며, 심지어 아내까지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는다. 따라서 ㉠의 소식을 접한 '나'는 '황수건'에게 불행한 일이 거듭하여 일어나는 것을 걱정할 것이다. 불행한 일이 거듭하여 일어난다는 뜻의 관용어로는 '엮친 데 덮친 격'이 있다.

<오답 풀이>

② 어떤 일이라도 반드시 핑곗거리가 있다는 말

③ 이미 일을 그르친 뒤에 닦아도 소용없다는 말

④ 앞뒤 가리지 못하고 미련하게 행동함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⑤ 아니꼽거나 못마땅하여 남의 말을 들은 체 만 체 말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말

8. <답> ④

<정답 풀이>

황수건에게 돈 삼 원을 준 '나'는 황수건에 대해 애정 어린 연민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 ④번 시의 '팔원' 또한 흐느껴 우는 계집아이에게 화자가 연민의 시선으로 동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외세의 지배에서 탈피해야 할 민족의 현실을 보여 주고 이를 통해 진정하고 순수한 민족의 삶을 추구하는 화자의 열망이 담겨 있다.

② 일제 강점기라는 시련에 굴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결연한 의지

고 3

가 나타나는 작품이다.

③ 일제 강점기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작품이다.

⑤ 겨울을 이기고 꽃을 피우는 나무의 생명력을 보여 주며 이를 통해 나무로부터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유추하고 있는 시이다.

[9~14] 독서

[지문 분석]

4차 산업 혁명 시대(인공 지능 로봇이 급속도로 발전한 시기)에 이르러 인공 지능(AI) 로봇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인간에 준하는 능력과 지능을 갖춘 인공 지능 로봇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인간에 준하는 능력과 지능을 갖춘 인공 지능 로봇의 출현) 자연인이 중심이던 법체계에서 사회적·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법적 주체인 법인이 등장한 것처럼, 현존하는 인공 지능과 완전히 다른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추고 물리적 실체를 가지는 '충분히 발달한 인공 지능 로봇(SAAR)'(인간에 준하는 능력과 지능을 갖춘 로봇)이 등장할 경우, 이들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중심 내용)가 이루어지고 있다.

1문단 : 인간에 준하는 능력과 지능을 갖춘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

인공 지능은 인간이 지닌 총체적 지능의 창조를 지향하는 기술 또는 그러한 기술로 만들어진 결과물(인공 지능의 정의)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인공 지능의 개발 역시 궁극적으로는 복잡하게 주어진 여러 상황에서 모두 작동하는 총체적 지능을 모방하고 모사하는 것(인공 지능 개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인공 지능은 [약한 인공 지능(weak AI)과 강한 인공 지능(strong AI)](인공 지능의 종류)으로 나뉘어진다. 약한 인공 지능(weak AI)은 인간과 같이 마음을 지니지는 않고 한정된 분야에서 인간의 지능 활동과 유사한 결과물을 발생시키는 인공 지능(약한 인공 지능의 특징)이다. 한편, 강한 인공 지능(strong AI)은 인간의 마음 및 사고 체계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며, 문제를 분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공 지능이다.(강한 인공 지능의 특징) [결국 약한 인공 지능은 특정 데이터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시킴으로써 유형, 무형의 특정 작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강한 인공 지능은 인간의 뇌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약한 인공 지능과 강한 인공 지능의 차이점 : 목적) 또한 [약한 인공 지능이 특정 영역에서 기능하며 인간을 보조하는 수준을, 강한 인공 지능은 범용성을 지향하며 인간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한다.](약한 인공 지능과 강한 인공 지능의 차이점 : 목표) 그리고 궁극적으로 강한 인공 지능은 인간과 같은 SAAR의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문단 : 약한 인공 지능과 강한 인공 지능의 특징과 차이점

튜링 테스트는 이러한 인공 지능의 수준을 검사하는 대표적인 방법(튜링 테스트의 특징)이다. 튜링 테스트는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Alan Turing)이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튜링 테스트와 관련된 질문)를 판단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일련의 자연어 문답 과정을 통해 피험자가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별하는 시험(튜링 테스트의 핵심)이다. 튜링 테스트는 [자연어 구사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갖춘 여러 능력 중 핵심이며 자연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만 상호의 공감과 지식의 전달, 도덕의 전승 등이 가능하다](튜링 테스트의 전제)는 전제에 기반한다. 튜링 테스트는

질문자들이 컴퓨터를 통해 피험자와 대화하는 채팅 방식(진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체로 30% 이상의 판정자가 대화 상대자가 인간인지 인공 지능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시험 대상인 인공 지능의 알고리즘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3문단 : 튜링 테스트의 특징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검사(튜링 테스트)가 아니라, 인간과 인공 지능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인공 지능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간이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며, 인공 지능 로봇을 인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인공 지능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대표적인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 높은 지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때 이는 특정 개인의 인간이 실질적으로 고차원적인 지적 능력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갓난아기나 정신 질환자 등 지적 능력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들도 법적으로 인간이라는 점에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인간의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이유로 인공 지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의 문제점) 이 때문에 인간의 주요 특성이 지적 능력을 갖춘 것이라고 할 때, 이는 지적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잠재적 형태의 지적 능력) 내지는 극히 최소한의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인공 지능은 발달 초기부터 기억력이나 연산력 등 일부 지적 능력에서는 인간을 초월하고 있다.(일부 지적 능력은 인간을 초월한 인공 지능) 앞으로 인공 지능이 여러 영역에서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문단 : 인간의 지적 능력을 초월하는 인공 지능

또한 인공 지능 로봇은 슬픔, 기쁨, 두려움 등 감정이 없으므로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공 지능 로봇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고전적인 논거)은 인공 지능 로봇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가장 고전적인 논거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인간이 느끼는 감정 역시 개개인의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며, 인간만의 전유물은 아니다.(앞선 주장의 문제점) [어느 정도 발달한 동물들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감정을 갖는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분노와 슬픔·동정심을 지닌 동물도 있다. 그리고 SAAR 역시 부당한 비난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을 과격하게 하거나 거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분노 감정을 표현하게 할 수 있다.](인간과 비슷한 범주 내에서 감정을 지니고 있는 동물들, 인공 지능) 이것이 인간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는 논란이 있겠지만, 최소한 SAAR이 감정을 외부적으로 구현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인간이 다른 인간의 감정을 읽어 내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공 지능 로봇 역시 인간의 표정이나 몸짓으로부터 감정을 유추해 낼 수 있다.

5문단 : 감정을 외부적으로 구현하는 SAAR

인간은 자유 의지(인공 지능 로봇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중요 논거)를 갖추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자유 의지는 인간의 본성이자 핵심이고, 인공 지능 로봇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논거가 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인공 지능 로봇 혹은 SAAR은 프로그램된 대로만 움직이며 여기에는 어떤 형태의 자유 의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인간만이 자유 의지를 지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 하지만 최근 뇌과학의 연구들은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회의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벤자민 리벳(Benjamin Libet)의 실험(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결과를 내놓은 실험)

인데, 리벳은 [관찰자들이 피험자의 뇌 영상을 관찰함으로써 피험자가 인식하기도 전에 그가 왼쪽과 오른쪽 중 어느 버튼을 누를지 예측해 내기도 하였다.](간단한 실험 내용) 또한 여러 질병의 사례들은 인간의 의지나 의식이 없음에도 외부적·물리적인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헌팅턴 무도병(Huntington's Chorea) 환자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수시로 춤을 추듯이 몸을 움직이게 된다. 즉, 인간의 자유 의지와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 고리는 항상 견고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인간의 자유 의지와 관련한 새로운 주장) SAAR에게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자유 의지가 존재하기 전이라도 인간이 최초로 프로그래밍을 한 후에 별도로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공 지능 로봇이 스스로 복잡한 작업을 해낸다면 그 SAAR은 자율적인 성향 혹은 자율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인공 지능이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상호작용한다면(인간의 행동 양식과의 큰 유사점) 인간의 행동 양식과 큰 공통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6문단 : SAAR이 지닌 자율적인 성향 혹은 자율성

다만, 현재 인공 지능은 일부 영역에서 인간과 동일한 지적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인간을 능가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과 유사한 지능이나 능력을 갖춘 인공 지능은 개발되지 못했다.(인공 지능 개발의 현재 상황) 강한 인공 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극복하여야 할 과제가 많은데, 역설적이게도 그 과제들 중 상당수는 인간 입장에서 지극히 쉬운 것들(모라백의 역설)이다. 이를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한다. 복잡한 연산과 같은 일은 인공 지능에게 쉬운 일이지만, 담화의 문맥을 파악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7문단 : 모라백의 역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인공 지능의 법적 지위 부여와 관련한 논의에서, SAAR에 인간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갖는 '결여됨'의 주장과는 달리, 불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인간과 인공 지능 로봇 사이에는 공통점이 더 많다.(인공 지능의 법적 지위 부여와 관련한 논의에서의 핵심) 인공 지능 로봇은 완전하고(혹은 완전성을 지향하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결론을 짓는 것은 조급한 행동이며, 인간과 인공 지능 로봇은 모두 완전성을 지향하되 항구적으로 불완전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간과 인공 지능 로봇의 공통된 측면)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8문단 : 인공 지능의 법적 지위 부여와 관련된 논의의 핵심

- 주제: 인공 지능의 법적 지위 부여와 관련된 논의

[지문 확인]

1문단: 인간에 준하는 능력과 지능을 갖춘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

- 인공 지능(AI) 로봇의 발전 시기 = 4차 산업 혁명 시대.
- 인간에 준하는 능력과 지능을 갖춘 인공 지능 로봇의 출현이 예상됨 → '충분히 발달한 인공 지능 로봇(SAAR)'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2문단 : 약한 인공 지능과 강한 인공 지능의 특징과 차이점

- 인공 지능 : 인간이 지닌 총체적 지능의 창조를 지향하는 기술 또는 그러한 기술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의미함.
- 인공 지능의 개발 방법 : 복잡하게 주어진 여러 상황에서 모두 작동하는 총체적 지능을 모방하고 모사함.
- 인공 지능의 종류
 - ① 약한 인공 지능(weak AI) : 인간과 같이 마음을 지니지는 않고 한정된 분야에서 인간의 지능 활동과 유사한 결과물을 발생시킴.
 - ② 강한 인공 지능(strong AI) : 인간의 마음 및 사고 체계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며, 문제를 분석하고 행동할 수 있음.

3문단 : 튜링 테스트의 특징

- 튜링 테스트
 - ① 인공 지능의 수준을 검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임.
 - ② 일련의 자연어 문답 과정을 통해 피험자가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별하는 시험임.
 - ③ 전제 : 자연어 구사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갖춘 여러 능력 중 핵심이며 자연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만 상호의 공감과 지식의 전달, 도덕의 전승 등이 가능함.
 - ④ 진행 방식 : 질문자들이 컴퓨터를 통해 피험자와 대화하는 채팅 방식임.

4문단 : 인간의 지적 능력을 초월하는 인공 지능

- 인간의 지적 능력 : 지적 능력을 갖추 수 있는 가능성(잠재적 형태의 지적 능력) 내지는 극히 최소한의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 인공 지능의 지적 능력 : 발달 초기부터 기억력이나 연산력 등 일부 지적 능력에서는 인간을 초월하고 있음.

5문단 : 감정을 외부적으로 구현하는 인공 지능

- 인공 지능은 인간과 달리 감정이 없으므로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의 문제점 = 동물과 인공 지능도 어느 정도의 감정을 지니고 있음. / 다른 대상의 감정을 인공 지능이 판단할 수도 있음.

6문단 : SAAR이 지닌 자율적인 성향 혹은 자율성

- 자유 의지 : 인공 지능 로봇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중요 논거
- 벤자민 리벳(Benjamin Libet)의 실험
 - ① 인간이 자유 의지를 지니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확인함.
 - ② 뇌 영상 촬영을 통해 피험자가 인식하기도 전에 피험자의 행동을 예측함.
- 인간의 자유 의지와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 고리는 항상 견고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음.
- 인공 지능이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상호작용함 = 인간과 유사한 점을 지녔다고 할 수 있음.

고 3

7문단 : 모라벡의 역설

• 모라벡의 역설 : 강한 인공 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극복하여야 할 과제가 많은데, 역설적이게도 그 과제들 중 상당수는 인간 입장에서 지극히 쉬운 것들임.

8문단 : 인공 지능의 법적 지위 부여와 관련된 논의의 핵심

• 인간과 인공 지능의 공통점 : 인간과 인공 지능 로봇은 모두 완전성을 지향하되 항구적으로 불완전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

9. <답> ①

<정답 풀이>

여섯째 문단에 여러 사례를 들어 인간의 자유 의지와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 고리가 견고하게 인과 관계를 지니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일곱째 문단에 일부 영역에서 인간과 동일한 지적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인간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여덟째 문단에 불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인간과 인공 지능 로봇 사이에는 공통점이 더 많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넷째 문단에 갓난아기나 정신 질환자 등 지적 능력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들도 법적으로 인간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첫째 문단에 자연인이 중심이던 법체계에서 사회적·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법적 주체인 법인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10. <답> ⑤

<정답 풀이>

둘째 문단에 약한 인공 지능은 특정 영역에서 기능하며 인간을 보조하는 수준을, 강한 인공 지능은 범용성을 지향하며 인간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인공 지능이 발달하면 물리적 실체를 갖춘 인공 지능의 등장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약한 인공 지능과 강한 인공 지능이 물리적 실체를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약한 인공 지능은 강한 인공 지능과 달리 인간과 동등할 정도로 충분히 발달된 인공 지능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약한 인공 지능은 현실에서 인간을 보조하는 것을, 강한 인공 지능은 인간의 마음 및 사고 체계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구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약한 인공 지능은 한정된 영역에 인간의 지능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으로, 강한 인공 지능은 인간의 뇌를 시뮬레이션하고 범용성을 지향하며 인간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구별하고 있으므로 ㉠가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을 갖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답> ④

<정답 풀이>

존 설은 중국어로 된 질문에 대해 중국어로 올바른 답변을 하더라도 그것이 피험자가 중국어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고 본다. 이를 고려하면 존 설은 알고리즘에 따른 문답의 진행은 인간의 의사소통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존 설이 중국어 방 논증을 든 것은, 알고리즘에 의한 채팅 방식의 대화가 인공 지능이 생각할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대화의 진행 주체인 피험자는 튜링 테스트의 기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③ 피험자가 대답할 수 있도록 책자에 지시된 내용은 튜링 테스트의 알고리즘에 해당하며, 피험자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알고리즘에 따라 기계가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튜링은 알고리즘에 따른 채팅 방식의 대화에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험 대상인 인공 지능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2. <답> ⑤

<정답 풀이>

일곱째 문단에 강한 인공 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는 인간에게 지극히 쉬운 것이라고 서술하며, 복잡한 연산을 하는 일은 쉬우나 담화의 문맥을 파악하는 일은 어렵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해한 것으로 ⑤가 가장 적절하다.

13. <답> ④

<정답 풀이>

‘자유 의지’와 관련한 논의에서,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인공 지능 간 자율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인공 지능 로봇이 스스로 작업을 해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공 지능에도 자율성, 혹은 자율적인 성향이 존재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따라서 ㄴ과 같은 관점을 수용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일반적인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간도 법적으로 인간이라는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들어, 인간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지적 능력이란 그러한 능력을 갖출 가능성 혹은 최소한의 지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며, 이러한 수준에 대해서 SAAR도 지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발달한 동물들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감정을 갖는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감정이 인간만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점과, SAAR 또한 감정을 이해하고 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ㄱ과 같은 관점을 반박하고 있다.
- ③ SAAR로 하여금 분노 감정을 표현하게 할 수 있으나, 인간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간이 보이는 감정과 동일한 감정을 SAAR가 가지지 못 한다는 ㄷ과 같은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 ⑤ 벤자민 리벳의 실험이나, 질병의 사례를 들어 인간의 행동이 인간의 자유 의지에 인과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

히고 있다. 이는 자유 의지 여부를 SAAR에게 인간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주요 논의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14. <답> ㉔

<정답 풀이>

㉔는 ‘평가를 내리다. / 평가를 받다. / 아버지의 인물 평가엔 한계가 있었다.’에서의 쓰임과 같이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함. 또는 그 가치나 수준.’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물건 값을 헤아려 매김.’은 문맥에 부합하는 적절한 의미로 볼 수 없다.

[15~19] 문학 : 고전 산문

[지문 분석]

백공(숙영의 시아버지)은 비복을 시켜 이실직고할 때까지 매질을 하라고 호령하였다.(백공의 명령) 사정을 두지 않고 마구 치는 비복들의 매 밑에서 숙영 낭자(주인공)의 [백옥 같은 귀밑에는 피멍울 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눈같이 흰 살결은 핏물이 배어 붉은색으로 변하였다.](비유적 표현을 통해 숙영의 고통을 생생하게 드러냄) 낭자는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도 고통을 참고 이를 악물며 말하였다.

“[지난번에 낭군께서 길을 떠난 날 밤과 그 이튿날 밤, 두 번을 삼십 리쯤 가다가 숙소를 정하였으나 저를 잊지 못하고 밤중에 집으로 몰래 돌아왔습기에 제가 한사코 타일러서 다시 돌려보낸 일은 있었사옵습니다.](과거 일을 언급함) 그때는 어린 제 소견으로 시부모님께 꾸중을 들을까 봐 겁을 내어 지금까지 고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옵니다.(자신의 생각과 심리를 솔직하게 드러냄) 하오나 조물주가 그것을 밋게 여기시고 귀신이 그것을 시기하여 이런 찢지 못할 누명(숙영의 현재 상황)을 입은 듯하옵니다. 이제 와서 늦은 변명같이 되었사오나, 밝은 하늘이 날날이 살펴 아시오니 아버지께옵서는 그러한 사실을 밝히시어 저의 정상을 다시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번 눈과 귀로 확인한 의심인지라, 백공은 점점 더 노하여 비복에게 더욱 심한 매질을 가하도록 호령하였다.(낭자의 말을 믿지 않음) 낭자는 참을 수 없는 매질에서 하늘을 우러러 호소하였다.

““아아, 푸른 하늘은 무고한 이내 몸을 굽어살피소서. 오월에 서리가 내리고 십 년을 원망해야 할 이 원한을 어느 누가 풀어 주오리이까?””(자신의 억울함을 하늘에 호소함)

하고는 엎어져서 혼절하고 말았다. 이 참상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숙영의 말을 믿는 인물)가 울면서 영감에게 말하였다.

“옛말에 이르기를, 한 번 엎지른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다 하였사오니,(관용적 표현) 영감께서 사실도 잘 모르시면서 티 없이 굳은 정절을 가진 며느리(숙영)를 억울하게 음행(淫行)의 죄를 씌워 다스리시니, 만약 며느리의 무죄함이 밝혀졌을 때 무슨 면목으로 현부를 대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뜰 아래로 뛰어 내려가 낭자를 부여잡고 목을 놓아 울었다.

“너(숙영)의 백옥같이 티 없는 굳은 절개는 내가 잘 알고 있다. 오늘 이런 변은 꿈에도 생각지 못할 일이니 그 아니 원통하겠느냐?”

낭자가 절박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옛말에도 다른 소문과는 달리 음행의 소문을 씻기는 어렵다 하

였사온 즉, 동해 바닷물을 모두 기울인다 한들 이 누명을 씻으오리까? 이런 찢지 못할 누명을 쓰고 어찌 구차히 살기를 바라오리까?”

시어머니는 낭자를 가엾게 여기고 갖은 말로 무수히 위로하였다. 그러나 낭자는 듣지 않고 바른 손에 옥비녀를 빼어 들고 하늘을 우러러 절을 한 다음 빌었다.

““밝고 밝은 저 황천(黃泉)은 부디 굽어살피소서. 제가 만일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 사실이 있거든 이 옥비녀가 제 가슴팍에 꽂히고, 이것이 억울한 누명이거든 이 옥비녀가 저 섬돌에 박히도록 영험을 베풀어 주옵소서.””(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비현실적 노력)

하고는, 옥비녀를 허공에 높이 던지고는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잠시 후에 옥비녀가 떨어지면서 섬돌에 깊이 박히었다.(비현실성)

(중략) 그렇게 행차하여 남으로 사흘을 간 후에 백선군이 잠시 피로를 풀고자 주점에 들러 쉬고 있는데, 문득 졸음이 와서 눈을 감으니 비몽사몽간이라. 숙영 낭자가 온몸에 피를 흘리며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 선군의 옆에 앉더니 절통하게 울면서 호소하는 것이었다.

“낭군(백선군)께옵서 입신양명하여 영화롭게 오시니 기쁘기 그지없사오나, 저는 이미 박명하여 이 세상을 버리고 구천을 떠도는 원혼이 되었나이다.(숙영이 죽었음을 알 수 있음) 일전에 낭군님의 편지 사연을 들으니, 낭군께서 저에 대한 사랑은 간절하시오나, 이것 또한 저의 연분이 척박하여 벌써 이 세상을 하직 하였으니, 구천의 혼백이라도 한스럽기 그지없사옵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원통한 사연을 낭군께옵서 풀어 주시어 편히 눈을 감게 하여 주옵소서.(숙영의 부탁) 저는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썼기로 아직까지 분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 구천을 방황하고 있사오니 모름지기 낭군께서는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시시비비를 가려 누명을 벗겨 주시오면 죽은 혼백이라도 깨끗한 귀신이 되고자 하나이다.”

하고 나서는 낭자의 모습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비현실성) 선군이 크게 놀라 잠에서 깨어나 보니 온몸에 식은땀이 축축하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선군은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연유를 짐작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부터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인마를 재촉하여 서둘렀다. 며칠만에 풍산 마을에 이르러 숙소를 정하였으나, 낭자 생각에 골몰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앉아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전전반측) 그런데 밤이 점점 깊어갈 무렵이었다. 갑자기 하인이 와서 이르기를,

“대상공(大相公)(백공)께서 오셨나이다.” 하였다.

아들을 만난 백공은 망설이다가 가족들이 모두 무사하다고 거짓으로 알고는(숙영의 죽음을 알리지 않음) 선군이 장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한 사연을 물으면서 억지로 기뻐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선군을 향해 은근한 말로 권유하였다.(감언이설)

“장부가 뜻을 얻으면 아내를 얻는 것이 고금의 상례로 되어 있다 하니 너도 이제 그렇게 함이 좋을 듯하구나. 듣자 하니 이 마을 임 진사의 딸이 매우 현숙하다 하므로 내가 이미 구혼하여 혼례 일자를 잡아 놓았으니, 이곳에 온 김에 내일 당장 육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선군은 숙영 낭자가 꿈에 나타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일을 반신반의(한편으로는 믿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워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함)하고 있다가 막상 부친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보니 이상한 마음이 들어 생각하되, '부친께서 이렇듯 나에게 재취를 권유하시는 것을 보니, 숙영 낭자가 죽은 것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나를 속이고 임 남자와 결혼하게 하여 나를 위로해 주시려는 의도임에 틀림 없다.' 하고는 당장 부친께 말씀드렸다.

"아버님 말씀은 지당하시오나, 소자의 마음은 급하지 않사오니 나중에 청혼하여도 늦지 않을 줄로 아옵니다. 그러하오니 그 말씀은 지금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들의 성질을 잘 아는 백공은 더 이상 조르지 못하고 근심 속에서 그날 밤을 지냈다. 첫닭이 울고 먼동이 트기가 무섭게 선군은 행졸(行卒)을 재촉하여 곧바로 안동으로 향하였다.(공간의 이동)

(중략)

선군은 낮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다가 다시 아내의 빈소로 가서 크게 목을 놓아 울었다.(숙영의 죽음을 확인함) 그러다가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집안의 모든 남녀 노복들을 한 자리에 묶어서 마당에 꿰어 앉혔다. 그 가운데 매월이도 끼어 있었다. 선군이 옷소매를 걷어 올리고 빈소로 들어가 이불을 벗기고 보니 마치 살아 있는 듯 조금도 살이 썩지 않고 있었다.(비현실성)

선군은 울음을 삼키면서, '이제 내가 왔으니 낭자는 부디 안심하라. 가슴에 박힌 칼이 빠진다면 그 칼로 원수를 갚아 낭자의 원혼을 달래리라.'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칼을 잡고 당기니 가볍게 쑥 빠지는 것이었다. 그와 함께 낭자의 가슴팍에서 과랑새(사건 해결의 실마리) 한 마리가 나와서,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숙영을 죽인 범임을 밝힘)

하고 세 번을 울고는 날아갔다. 조금 후에 또 다른 과랑새가 날아와서,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하고는 또 세 번을 울고는 날아가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선군은 매월의 질투 소행인 줄을 알고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였다. 형통을 갖추고 모든 노복들을 차례로 문초하고 매질하였다. 하지만 죄가 없고 또한 비밀도 모르는 노복들이 어찌 진실을 말할 수 있으랴?(서술자의 개입) 마지막으로 매월을 끌어내다가 문초하였으나 간악한 매월은(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함) 줌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사실을 자백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죽을 때까지 사정 두지 말고 매우 처라!"

추상 같은 선군의 호령에 좌우 사령들이 매월을 향해 사정없이 매질을 가하였다. 매가 백 장(杖)에 이르자, 무쇠 같은 몸인들 어찌 터지지 않고 배기랴?(서술자의 개입) 그토록 모진 매월도 절반은 뉘이 나가서 개개승복(個個承服)(지은 죄를 낱낱이 인정하고 자백함)하면서 빌었다. 그리고 사건 전말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숙영 낭자가 이 덕 본실로 들어온 후로 선군이 자기를 멀리하고 낭자만 총애하기에, 질투가 생겨 그 원통한 마음을 풀려고 그와 같은 간계를 꾸며 낭자에게 누명을 씌웠노라고 하였다. 선군은 즉시 공모한 불량배 둘이를 잡아다가 문초를 하였다. 그런 결과 매월의 꼬임으로 돈에 팔려 숙영 낭자의 방에 드나드는 외간 남자처럼 꾸며서 백공의 의심을 사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에잇,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아!"

선군은 노기가 충천하여 칼을 들고 뜰로 내려와서 매월의 목을 한칼에 베어 버렸다.

■ 핵심 정리

- 갈래 : 국문 소설, 판소리계 소설, 애정 소설
- 성격 : 엄정적, 전기적, 비현실적
- 제재 : 숙영과 선군의 사랑 이야기
- 주제 : 현실을 초월한 절대적 애정의 승리
- 특징 : 애정 지상주의에 근간을 두어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냄.

■ 전체 줄거리

숙영은 천상에서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온 선녀로, 백상군의 외아들 선군은 꿈을 통해 숙영이 자신의 연분임을 알게 된다. 그러나 하늘이 정한 기간인 3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숙영과 선군은 혼인한다. 과거를 보러 떠난 선군이 숙영을 그리워하여 두 번이나 밤중에 집으로 되돌아와 아내 숙영과 자고 있는데, 이때 백상군은 선군을 외간 남자로 오인한다. 시비 매월의 농간으로 누명을 쓰게 된 숙영은 분함을 못 이겨 자결한다. 과거에 급제한 선군은 꿈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고 매월을 죽인다. 숙영은 옥황상제의 은덕으로 재생하여 선군과 연분을 잇게 되고, 임 소저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여 세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같은 날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 이해와 감상

'숙영낭자전'의 전체적인 사건은 '만남(인간과 선녀의 만남) → 이별(숙영의 억울한 누명과 죽음) → 재생과 재회'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숙영낭자전'은 애정 지상주의를 내세워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도전과 탈피를 꾀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효는 유교 도덕에 바탕을 둔 봉건적·전통적 가치관이고, 애정의 추구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긍정하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양자의 갈등은 시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그런데 '숙영낭자전'에서 후자가 전자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조선 후기 사회의 가치관이 변모한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5. <답> ③

<정답 풀이>

선군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노복들을 차례로 문초하고 매질할 때 '하지만 죄가 없고 또한 비밀도 모르는 노복들이 어찌 진실을 말할 수 있으랴?'나 '매가 백 장(杖)에 이르자, 무쇠 같은 몸인들 어찌 터지지 않고 배기랴?'와 같은 부분에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작중 인물이나 사건,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는 숙영 낭자의 일부 외양 묘사(백옥 같은 귀밑, 눈같이 흰 살결)를 제외하고 다른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외양을 묘사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으며, 인물의 성격은 인물의 말을 통해 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숙영의 시어머니가 "너의 백옥같이 티 없는 굳은 절개는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숙영이 지조와 절개를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으며, 백공이 "임 진사의 딸이 매우 현숙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임 낭자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② 이 작품은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서사가 전개되는

순차적 구성의 작품이므로,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교차되면서 사건의 개연성이 확보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선군이 ‘풍산 마을’에 이르러 숙소를 정하였다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배경이 제시되긴 하지만, 별다른 상징적 의미를 지니지 않을 뿐더러 이곳을 통해 ‘현실을 초월한 절대적인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작품의 주제가 드러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뽀뽀하지 않던 칼이 선군에 의해 빠지면서 숙영의 가슴에서 파랑새가 나오고, 그 파랑새가 나오며 범인을 알려 주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이러한 비현실적 요소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여 인물이 처한 비극적 운명이 해소되는 계기로, 부정적인 세태에 대한 풍자 의식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16. <답> ⑤

<정답 풀이>

백공이 임 진사의 딸과 선군을 결혼시키려는 것은 선군이 숙영의 죽음을 알고 슬퍼하기 전에 아내를 얻어 정을 붙이게 하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임 진사 집안과의 결연을 통해 입신양명에 대한 욕망을 이루려고 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백공은 선군이 숙영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오히려 가족들이 모두 무사하다고 거짓을 알리며 장원 급제한 사연과 임 낭자와의 혼사 이야기를 꺼낸다. 이는 선군이 숙영이 아닌 다른 쪽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야기의 화제를 돌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숙영 남자가 꿈에 나타나 이야기한 것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있었지만 부친인 백공이 임 진사의 딸과 혼례 일자를 잡았다는 말을 듣고 ‘부친께서 이렇듯 나에게 ~ 숙영 남자가 죽은 것이 분명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선군의 어머니가 숙영에게 “너의 백옥같이 티없는 ~ 그 아니 원통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숙영의 절개에 대한 믿음과 그녀의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선군의 모진 매질에 매월이 털어놓은 사건 전말을 보면 ‘선군이 자기를 멀리하고 남자만 총애하기에, ~ 남자에게 누명을 씌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숙영에 대한 질투와 자신을 멀리하는 선군에 대한 원망의 감정에서 숙영을 모함하였고, 그로 인해 백공 집안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기에 적절하다.

17. <답> ③

<정답 풀이>

과거에 급제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군이 잠에 들어 꾸 꿈에 숙영이 나타나 자신이 죽었음을 알리고, 억울한 누명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잠’은 선군이 죽은 숙영의 혼이라는 초월적 존재와 만나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발생한 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숙영은 사건의 당사자이므로 조력자로 볼 수 없으며, 꿈을 통해 선군이 숙영의 죽음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된 것이지 본인의 인식이나 가치관이 바뀐 것은 아니다.

② 죽은 숙영이 자신의 억울함을 선군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 선군이 숙영의 원한을 풀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인물에게 닥칠 부정적인 운명을 암시하는 복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숙영이 제 죽음과 관련된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으로, 현재와 대비되는 장면을 제시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꿈에 나타난 숙영이 자신의 억울함과 분한 마음을 호소하며, 선군에게 자신의 누명을 벗겨 주길 부탁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현실에 대한 인물의 체념적 정서가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18. <답> ③

<정답 풀이>

㉠은 누명을 쓴 숙영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이것이 억울한 누명이거든 이 옥비녀가 저 섬돌에 박히도록 영험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말과 함께 숙영이 던진 옥비녀가 떨어지면서 섬돌에 깊이 박혔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숙영이 결백함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은 숙영이 죽음을 맞게 된 원인이 매월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 매월이 범인임을 밝힘으로써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숙영이 누명을 쓴 억울한 심정을 나타내고 결백함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 선군에 대한 매월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② ㉠은 숙영이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추억을 언급한다는 설명과 맞지 않다. 반면 ㉡을 통해 진범이 밝혀지고 숙영의 원한이 풀리고 훗날 숙영이 다시 환생한다는 점에서는 선군과 숙영의 다가올 밝은 미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을 통해 숙영의 사연을 들은 선군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기 보다는 숙영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절한 마음을 느끼게 되며, ㉡이 선군에게 자아성찰의 계기가 되지 않는다.

⑤ ㉠은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숙영에게 현실적 고통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은 선군이 현실에 대해 어떠한 의심을 품고 회의감을 갖게 만드는 소재로 볼 수 없다.

19. <답> ⑤

<정답 풀이>

임 낭자와의 재혼에 대한 자신의 명을 거역하는 선군에게 아무 말하지 못하는 백공의 모습은조선 후기 가부장적 권위가 많이 약화되고 ‘효’를 근본으로 하는 봉건적 질서가 흔들리는 사회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신분 질서의 약화로 인해 봉건적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숙영이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 호소하지만 백공은 믿지 않으며, 그로 인해 숙영이 자결하게 된다. 또한 선군의 의사를 묻기 전, 이미 임 낭자와의 재혼을 결정하는 등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백공은 선군과 숙영의 애정 실현 및 유지를 방해하는 외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숙영과 선군은 애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백공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며 사건을 전개하는 중심인물로서 자신들의 애정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효’를 중시하는 봉건적 가치보다는 사랑이라는 인간의 감정을 긍정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③ 선군은 임 진사 딸과의 혼사를 권유하는 부친의 말에 “아버님 말씀은 지당하시오나 ~ 지금은 하지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선군은 자신의 애정 문

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주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④ 혼사를 거절하는 선군은 가문의 명예와 ‘효’를 중시하는 봉건적, 관습적인 가치보다는 숙영과의 사랑을 중시하는 인물로,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긍정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20~24] 문학 : 갈래 복합
[지문 분석] : 고전 시가
(가)

무정히 서 있는 바위(입암)(예찬의 대상, 인간의 삶에 교훈을 주는 대상) 유정하여 보인다
 [최령(最靈)(가장 영특한) 혼 오인(吾人)도 직립불의(直立不倚)(꽃꽂이처럼 바로 섭) 어렵건만
 오랜 세월 굳게 선 자태 고칠 적이 업는다](인간과 바위의 대조)
 <제1수> : 항상 굳게 서 있는 입암에 대한 예찬
 [강가에 우뚝 서니 쳐다볼수록 더욱 높다](우뚝 솟아 있는 바위의 높은 기상)
 바람 서리(시련, 고난)에 불변하니 뚫을수록 더욱 굳다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흐노라](인간과 바위의 비교를 통해 바위의 굳셈을 강조함)
 <제2수> : 시련에도 변치 않는 바위 예찬
 탁연직립(卓然直立)하니(우뚝이 굳게 서니 : 주체 = 입암) 본받음 직하다마는
 구름 깊은 골짜기에 알이 있어 츠즈오라(설의법 : 세상 사람들이 입암이 있는 골짜기까지 찾아오지 않음)
 이제나 광야에 옮겨 모두 보게 혀야라(화자의 바람 : 세상 사람들이 입암의 덕을 본받길 바람)
 <제5수> : 입암의 장관을 찾아 앓는 사람들의 우매함을 지적
 [세정(世情)이 하 수상하니 나(입암)를 본들 반길년가](설의법과 의인법, 어지러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왕기순인(枉己循人)(자기 몸을 굽혀 남을 좇음)혀야 내 어딴 읍 아가리오(읍기지 않을 것이다.)
 산 도쿄 물 도흔 골에 삼긴 대로 늘그리라(‘나’를 입암으로 본다면 자연 속에서 그냥 생긴 대로 늘고 싶다는 것으로 입암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입암을 활용함)
 <제6수> : 세상이 수상하여 산골에서 그대로 살기로 함
종용(從容)히(조용하게) 다시 묻자 너(입암, 의인화) 난 지 몇 천 년고
 네 나인 필연(必然)하코(나이는 반드시 많고) 내 나인 적건마는 이제나 너(입암)과 나(화자)와는 함께 늙자 흐노라
 <제9수> : 바위와 함께 늙어가고자 함
당우(唐虞)(중국 요순 임금 때의 태평성대)를 그제 본 듯 한당송(漢唐宋)(중국에서 경학이 융성하던 시절)을 어제 본 듯
 꿈같이 지나가니 남은 해도 적다마는
 십이회(十二會) 못다 간 뜻이라면 나(입암)도 너(화자)와 늘그리라.
 <제10수> : 바위도 작가와 함께 늙어 가고자 함 - ‘입암이십구곡’

■ 핵심 정리

- 갈래 : 평시조, 연시조(전체 29수)
- 성격 : 예찬적, 교훈적
- 주제 : 바위의 곧고 변함없는 모습 예찬
- 특징
 - ① 중국의 고사를 인용함.
 - ② 단정적 어조로 대상을 예찬함.
 - ③ 바위를 의인화하여 표현함.

■ 이해와 감상

박인로가 입암이라는 곳에서 지은 29편의 연시조로 원래 처음 발견되기는 22편의 시조였지만 추후 7편이 다시 발견되어 모두 29편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창작 연대는 1629년(인조 7년)과 1637년(인조 15년)의 두 가지 추정치가 있다.

노계 박인로가 당시의 학자인 여헌 장형광을 찾아가 교유하며 지은 작품들로 입암 28경을 중심으로 한 자연 속의 한가로운 심정과 그로부터 연상되는 중국의 고사를 엮어 창작하였다. 작가 박인로의 문집인 <노계집>에 22수가 실려있고 경상북도 포항시 죽장면 매현리 노계 종손가 고사본에 나머지 7수가 전한다.

우뚝 솟아있는 바위가 지닌 긍정적 속성에 중점을 두고 인간에게 주는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는 작품이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항상 변함없이 꽃꽂이처럼 서있는 바위의 곧음과 굳은 절개 등을 예찬하고 있다.

[지문 분석] : 고전 수필
(나)

나는 어제 하룻밤 사이에 한 강(江)을 아홉 번이나 건넜다.(‘일야구도하기’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드러나는 구절, ‘일야구도하기’는 ‘하룻밤에 아홉 번 강을 건넌 기록’이라는 뜻임. 글쓴이가 글을 쓰고 있는 날 경험한 일을 보여 줌. 시간상 현재에 해당함.) 강은 해외(塞外)로부터 나와서 장성(長城)을 뚫고 유하(榆河), 조하(潮河), 황하(黃河), 진천(鎭川) 등의 여러 줄기와 어울려 밀운성(密雲城) 밑을 지나 백하(白河)(중국에서 발해만으로 흐르는 강)가 되었다. 내가 어제 두 번째로 백하를 건넜는데, 이것은 바로 이 강의 하류(下流)였다.

내가 아직 요동(遼東) 땅에 들어오지 못했을 무렵, 바야흐로 한여름의 띄약별(계절적, 시간적 배경) 밑을 지척지척 걸었는데, 홀연(忽然)히 큰 강이 앞을 가로막아 붉은 물결이 산같이 일어나서 끝을 알 수 없었다.(강물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함) 아마 천리 밖에서 폭우(暴雨)로 홍수(洪水)가 났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을 건널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들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기에, 나는 그들이 모두 하늘을 향하여 묵도(默禱)를 올리고 있으려니 생각했었다.

그러나 오랜 뒤에야 비로소 알았지만, 그때 내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다.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탕탕(蕩蕩)히 돌아 흐르는 물을 보면, 굽실거리고 오르렁거리는 물결에 몸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서 갑자기 현기(眩氣)가 일면서 물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 얼굴을 젖힌 것은 하늘에 기도(祈禱)하는 것이 아니라, 숫제 물을 피하여 보지 않기 위함이었다.(사람들이 하늘을 보는 이유는 물에 대한 공포 때문임) 사실, 어느 겨울에 그 잠깐 동안의 목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으랴.

그건 그렇고, 그 위험(危險)이 이와 같은데도, 이상스럽게 물이

성나 울어 대진 않았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요동의 들이 넓고 평평해서 물이 크게 성나 울어대지 않는다고 말했다.(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태도) 그러나 이것은 물을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서 나온 오해(誤解)인 것이다. 요하(遼河)(청나라의 북쪽 국경 너머에서 발원하여 봉천(지금의 선양)과 금주 사이를 흐르는 큰 강)가 어찌하여 울지 않았을 것인가? 그건 밤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한 곳을 보고 있는 눈에만 온 정신이 팔려 오히려 눈이 있는 것을 걱정해야 할 판에, 무슨 소리가 귀에 들려온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젠 전과는 반대로 밤중에 물을 건너니.(낮과 달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귀에 들리는 위험에 현혹되었음) 눈엔 위험한 광경(光景)이 보이지 않고, 오직 귀로만 위험한 느낌이 쏠려, 귀로 듣는 것이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아, 나는 이제야 도(道)를 깨달았다.(새로운 의미를 발견함)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자는 귀와 눈이 누(累)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더욱 밝아져서 큰 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글쓴이의 깨달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남)

이제까지 나를 시중해 주던 마부(馬夫)가 말한테 발을 밟혔기 때문에, 그를 뒷수레에 실어 놓고, 이젠 내 손수 고삐를 붙들고 강 위에 떠 안장(鞍裝) 위에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모아 앉았는데, 한 번 말에서 떨어지면 곧 물인 것이다.(매우 위태로운 상황, 명재경각(命在頃刻), 누란지위(累卵之危), 누란지세(累卵之勢), 백척간두(百尺竿頭) 거기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물로 땅을 삼고, 물로 옷을 삼고, 물로 몸을 삼고, 물로 성정(性情)을 삼을 것이리라.(물아일체의 경지를 통해 죽음에 대해 초연한 자세를 취함) 이러한 마음의 판단(判斷)이 한번 내려지자, 내 귓속에선 강물 소리가 마침내 그치고 말았다. 그리하여, 무려 아홉 번이나 강을 건넜는데도 두려움이 없고 태연(泰然)할 수 있어, 마치 방안의 의자 위에서 좌와(坐臥)하고 기거(起居)하는 것 같았다.

옛적에 우(禹)(중국 고대 전설상의 임금)가 강을 건너는데, 누런 용(龍)이 배를 등으로 져서 지극(至極)히 위험(危險)했다 한다. 그러나 생사(生死)의 판단(判斷)이 일단 마음속에 정해지자, (생사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게 되자) 용이거나 지렁이거나, 혹은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아무런 관계(關係)도 될 바가 없었다 한다.(우 임금은 황룡을 도마뱀처럼 여겨 황룡을 쫓아냄 → 외물에 초연함) 소리와 빛은 모두 외물(外物)이다. 이 외물이 항상 사람의 이목(耳目)에 누(累)가 되어, 보고 듣는 기능(機能)을 마비(痲痺)시켜 버린다. 그것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강물보다 훨씬 더 험하고 위태(危殆)한 인생의 길을 건너갈 적에 보고 듣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치명적(致命的)인 병이 될 것인가.

[나는 또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 앞내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면서 이것을 경험(經驗)해 볼 것이라니와, 몸 가지는데 교묘(巧妙)하고, 스스로 총명(聰明)한 것을 자신(自信)하는 자에게 이를 경계(警戒)하고자 하는 것이다.](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

- '일야구도하기'

■ 핵심 정리

- 갈래 : 중수필, 기행문
 - 연대 : 조선 영조 때
 - 성격 : 비유적, 교훈적, 사색적, 분석적
 - 특징
- ① 치밀한 관찰력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색적(思索的)이

고 관조적(觀照的)인 글임.

- ② 체험의 적절한 예시 및 반론으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함.
- ③ 추상적, 개념적인 서술을 피하고,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결론을 이끌어 낸, 설득력이 있는 글임.
- 제재 : 물소리
- 주제 : 외물(外物)에 현혹되지 않는 삶

■ 해제

이 글은 자신의 도강(渡江) 체험과 평소의 관찰을 바탕으로 깊은 인생의 진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고 있다. 묘사와 서사를 이용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그것을 인간의 삶과 연결 짓는 방식은 매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가운데 현상에 얽매어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현대인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글이다. '마음을 잠잠히 가지면 외물(外物)에 현혹됨이 없다.'는 진리를 분석적, 명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격조 높은 글이다.

■ 이해와 감상

일반적으로 기행문은 여정과 견문을 그린 것이라 하여 단순한 기록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경험의 기록이 아니라 사색과 발견의 기록이다.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깨달음이나 얻는 것이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차이는 서로 사고하는 방식이 다른 데서 비롯된다. '일야구도하기'는 바로 그러한 독특하고 개성적인 사고가 드러나 있는 글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 글을 읽다 보면 지은이의 사고는 무척 주도면밀하고 폭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사고는 사물이나 현상을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관찰,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삶의 진실된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큰 강물을 건너면서 누구나 겁을 먹게 마련인데, 그것은 강물의 흐름이나 소리만을 염두에 두기 때문임을 깨닫는 과정이 잘 그려져 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진실한 삶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지은이 나름의 답도 구하고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경험이 있기에 가능했고 설득력을 얻고 있음도 보여 준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수필이라는 양식이 발견과 사고의 과정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답> ③

<정답 풀이>

(가)에는 '구름 ~ 찻조오라', '세정이 ~ 반길런가'의 설의법이 쓰였고, (나)에는 '사실 ~ 있으랴', '무슨 소리가 ~ 말인가' 등의 설의법이 쓰였다. 두 작품에서 설의법은 모두 화자와 글쓴이가 느낀 점이나 인식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쓰였다.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 모두 대조의 방식이 쓰이기는 했지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묘사하는데 활용되지는 않았다.
- ② (나)는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정서의 변화가 나타났으나, (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 ④ (나)에는 청각적 이미지가 활용되었지만 애상적 분위기를 그리고 있지는 않다.
- ⑤ (가)와 (나) 모두 바람직한 세계나 삶에 대한 동경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의미상 상반된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고 3

21. <답> ⑤

<정답 풀이>

제9수에서 화자는 바위에 비해 자신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바위와 더불어 늙어가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화자는 자신이 유한한 존재인 점을 뉘우치거나 한탄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제1수에서 화자는 인간은 곳곳이 서 있기 어렵지만 바위는 오랜 세월 굳은 자태를 유지한다고 칭송하고 있다.
- ② 제2수에서 화자는 바위의 높고 굳은 속성을 닮은 사람이 대장부임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제5수에서 화자는 바위에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깊은 골짜기에서 광야로 옮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
- ④ 제6수에서 바위는 깊은 골짜기에서 늙어가겠다고 밝히며 제5수에서의 제안한 바를 거절하고 있다.

22. <답> ②

<정답 풀이>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은 요동의 들이 넓고 평평해서 ‘물이 성나 울어 대진 않았다’고 했는데, 글쓴이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오택이라고 했다. 배를 탄 사람들이 감각에 구애됨이 없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강물에 현혹되었기 때문에 성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물을 건널 때’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 본’ 것은 강물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 ③ ‘귀와 눈만을 믿는 자’들은 외물에 현혹되어 본질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 글쓴이는 이런 태도를 경계하라고 하였다.
- ④ ‘내 귓속에선 강물 소리가 마침내 그친 상태는 감각에 구애됨이 없도록 마음을 다스린 상태이다.’
- ⑤ ‘몸 가지는 데 교묘(巧妙)하고, 스스로 총명(聰明)한 것을 자신(自信)하는 자’는 외물에 현혹되어 자신이 감각한 것을 본질로 인식하는 자들로, 글쓴이는 이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23. <답> ⑤

<정답 풀이>

㉞는 매우 오래전에 태평성대를 실현했던 인물로, 이는 자연물(바위)이 인간과 더불어 오래전부터 함께 해 왔음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 ㉟는 마음먹기에 따라 사물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할 수 있으며, 밝은 판단을 갖고 살아야 함을 전달하기 위해 활용한 인물이다.

24. <답> ④

<정답 풀이>

글쓴이는 요하가 낮에 울지 않는 이유가 밤에는 요하의 물소리에 정신을 쏠리지만 낮에는 정신이 온통 시각에만 쏠려 그 물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답 풀이>

- ① ㉞를 통해 화자는 감정 없이 서 있는 바위이지만 화자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음을 표출하고 있다.
- ② ㉟를 통해 화자(바위)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 이르고 있다.

③ ㉞를 통해 글쓴이는 사람들이 물을 건널 때 고개를 쳐드는 것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물을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⑤ ㉞를 통해 글쓴이는 물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다고 여겨야 물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25~30] 독서 : 주제 통합

[지문 분석]

(가)

정조는 [‘법이란 천하 공공(公共)의 명기(名器)’이므로 국왕이 사은(私恩)으로 굽혀서는 안 되며, ‘형정 운용은 천리의 공정함에 맞아야 한다’](정조의 법률관, 법의 공공성을 강조함)라는 법률관을 지니고 있었다. 법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 주장에는 세 가지 의미(설명할 대상 소개)가 내포되어 있다.

1문단 : 법의 공공성을 강조한 정조의 법률관 하나(순서를 나타내는 표지)는 법이 사회의 척도로서 국가 통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도구라는 인식(정조의 법률관에 내포된 인식①)이다. 즉,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데 교화(教化)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순서를 나타내는 표지) 모든 사람이 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정조의 법률관에 내포된 인식②)이다. 즉, 왕은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이지만 일단 법이 제정된 후에는 왕 자신도 마음대로 법을 위반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순서를 나타내는 표지) 법 집행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정조의 법률관에 내포된 인식③)이다. 즉, 형벌은 공의(公義)와 대의(大義)로 결단해야 하며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다. 법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주장은 통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

2문단 : 정조의 법률관에 내포된 인식 법률에 의거하는 법치주의가 실현하려면 국왕 통치는 다음의 세 가지(법률에 의거하는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국왕 통치의 조건)를 충족해야 한다. 먼저(순서를 나타내는 표지) 성문법전이 만들어져야 한다.(조건 ①) 모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행위 규범을 담은 성문법이 반포될 때 비로소 법제의 통일성과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경제육전』·『경국대전』·『대전속록』·『속대전』 등이 편찬되어 법제를 갖추었으나, 각 기관별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통합이 되지 않아 관리가 참고하여 증거로 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조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 법전인 『대전통편』(성문법전)을 편찬하였다. 법전의 편찬은 관행이나 관습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를 극복한다(법전 편찬의 의미)는 의미가 있는데, 정조의 법전 편찬은 법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관료를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정조의 법전 편찬에 담긴 의지)이었다.

3문단 : 법률에 의거하는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국왕 통치의 조건 ① 다음으로(순서를 나타내는 표지) 국가가 형벌권을 장악하여야 한다.(조건 ②) 양반 사대부들의 사형(私刑)을 금지하고 공형벌권(公刑罰權)을 강화하는 것(형벌권 장악의 세부 내용)이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국가가 형벌권을 장악하는 공형벌 체계가 추구되면서 양반 토호가 임의로 백성에게 형벌을 가하던 사문용형(私門用刑)이 불법으로 간주되었다. 권세 있는 양반 토호가 백성을 사사

고 3

로이 감금하거나 매질을 가하는 사형, 향약이나 동계에서 집을 헐어 없애고 동리 밖으로 쫓아내는 훼가출동(毀家黜洞)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정조는 소민(小民)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4문단 : 법률에 의거하는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국왕 통치의 조건 ②

마지막으로(순서를 나타내는 표지) 형정 운용은 일정한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조건 ③) 형벌 사용을 가벼이 하는 것은 세금을 가볍게 하는 것과 함께 인정(仁政)의 요체였다. 영조 대에 이르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각종 악형·혹형이 거의 폐지되었다. 영조의 이러한 홀형(恤刑) 정신을 계승한 정조는 즉위 직후 『흙홀전칙』을 반포하여 곤장·신장 등의 형벌 도구의 규격을 정함으로써 형벌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잘못된 형구를 바로잡는 형구이정윤음(刑具釐正綸音)을 내리기도 하였다.(홀형의 정신을 계승한 것) 그리고 수시로 어사를 파견하면서 정해진 형구가 아닌 다른 형구를 사용하는 수령의 폐단을 각별히 살피고 감시하도록 지시하였다.

5문단 : 법률에 의거하는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국왕 통치의 조건 ③

• 주제: 법의 공공성을 강조한 정조의 법률관과 국왕 통치의 조건

1문단 : 법의 공공성을 강조한 정조의 법률관

• 정조의 말 : 법이란 천하 공공(公共)의 명기(名器)이므로 국왕이 사은(私恩)으로 굽혀서는 안 되며, '형정 운용은 천리의 공정함에 맞아야 한다. = 법의 공공성을 강조함.

2문단 : 정조의 법률관에 내포된 인식

- 정조의 법률관에 내포된 인식
① 법이 사회의 척도로서 국가 통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도구라는 인식
② 모든 사람이 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
③ 법 집행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3문단 : 법률에 의거하는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국왕 통치의 조건 ①

- 법률에 의거하는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국왕 통치의 조건 ① : 성문법전이 만들어져야 함.
• 정조의 성문법전
① 대전통편
② 법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관료들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임.

4문단 : 법률에 의거하는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국왕 통치의 조건 ②

- 법률에 의거하는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국왕 통치의 조건 ② : 국가가 형벌권을 장악하여야 함.

5문단 : 법률에 의거하는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국왕 통치의 조건 ③

- 법률에 의거하는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국왕 통치의 조건 ③ : 형정 운용은 일정한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지문 분석]

(나)

정조는 세종과 더불어 조선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지적인 통치자(정조의 특징 : 지적인 통치자)였다. [수십 권의 개인 문집을 남겼고, 왕실 아카데미인 규장각을 설치하여 신료들에게 직접 강의를 주도했으며, 수시로 신하들에게 시문을 짓는 과제를 냈다.] (정조의 지적 통치의 세부 내용) 이런 정조였으므로 당시 유행하는 문체가 '불온'하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다. 그는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정조가 부정적으로 인식한 대상) 때문에 문체가 타락했다며 연암에게 반성문을 요구한다.

1문단 : 정조와 당대에 유행하던 문체

문체는 한 시대가 지나는 사유 체계의 표현 형식('문체'의 개념)이다. 그것은 단지 내용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내용을 규정하는 장치이다.('문체'의 특징) 고문(古文)은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사유의 틀('고문'의 특징)이었다. 육경(六經)의 문장과 사마천과 반고로 대표되는 선진양한(先秦兩漢)의 문장 및 한유와 소식 등 당송(唐宋) 팔대가의 문장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고문(古文)이란 중국의 고대에 완성된 문장들의 전범이다. 즉, 고문은 '지금, 여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조선 왕조의 체제 유지를 위한 교묘한 장치(고문의 의미)였다.

2문단 : 고문이 지닌 사회적·역사적 의미

이 견고한 장치(고문)에 명말 청초의 문집이 유입되면서 고문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문체들이 번성하게 된 것이다. 가령, (예시) 소품문(小品文)(청초의 문집, 고문과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문체 ①)은 '어린아이가 우는 것', '사나운 개가 서로 싸우는 것'과 같이 미시적인 세계를 다룬다. 정조가 보기에 이는 우주와 천하를 논하는 고문의 권위를 해체하는 것('소품문'에 대한 정조의 비판)이었다. 한편, 당시에 '금병매', '수호지' 등과 같은 중국 소설들(고문과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문체 ②)이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소설 마니아들이 속출했는데, 웬만큼 사상 무장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유희를 물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소설은 그 허구성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기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정조는 중국 서적 수입을 금지하고, 사대부의 글쓰기 전반에 대해 대대적 검열을 실시하는 문체 반정을 일으켰다.(정조의 문체 반정) 타락한 문체를 구사하는 사대부는 고문체로 글을 짓거나 반성문을 제출해야 했고, 심지어는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체 반정의 바람은 마침내 문풍 타락의 출발점으로 '열하일기'를 찾아 낸다.

3문단 : 이질적 문체의 번성과 문체 반정

'열하일기'는 연암이 청 건륭 황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로 북경에 들어갔다가 귀국하기까지 6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기록한 연행록('열하일기'의 내용)이다. '산천, 배와 수레, 벽돌, 언어' 등으로부터 '수행원의 귀밀 사마귀, 여인네들의 몸치장, 말의 행렬' 등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세심한 측수로 잡아 낸다. 소설과 소품문, 고문과 변려문이 자유자재로 섞이는 한편, 천고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거대 담론과 시정의 우스갯소리, 잡다하고 황당한 이야기들이 공존한다.

고 3

4문단 : '열하일기'의 수록 내용

정조는 이러한 '열하일기' 때문에 문체가 타락했다며 연암에게 고문체로 글을 지어 죄를 씻으면 벼슬을 주겠노라고 했다. **당근(벼슬)**과 채찍을 동시에 휘두른 이 노획한 조치에 대해 연암은 **자신의 글이 임금의 눈을 더럽혔다고 자책하면서도, 글을 지어 이전의 잘못을 덮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연암의 대처) 정조가 비난한 연암체는 당대 주류의 언어였던 고문체를 더듬거리게 하고, 나아가 문체의 경계조차 무의미하게 만드는 균열이었던 것이다.

5문단 : 문체 타락의 주범으로 몰린 '열하일기'

- 주제: 문체 반정의 역사적 의미와 시대적 변화 양상

1문단 : 정조와 당대에 유행하던 문체

- 정조
 - ① 세종과 더불어 조선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지적인 통치자
 - ② 지적 통치의 내용

: 수십 권의 개인 문집을 남겼고, 왕실 아카데미인 규장각을 설치하여 신료들에게 직접 강의를 주도했으며, 수시로 신하들에게 시문을 짓는 과제를 냈음.
 - ③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 때문에 문체가 타락했다며 연암에게 반성문을 요구함.

2문단 : 고문이 지닌 사회적·역사적 의미

- 문체 : 한 시대가 지나는 사유 체계의 표현 형식 / 단지 내용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내용을 규정하는 장치임.
- 고문
 - ①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사유의 틀임.
 - ② '지금, 여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조선 왕조의 체제 유지를 위한 교묘한 장치임.

3문단 : 이질적 문체의 변성과 문체 반정

- 고문과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문체
 - ① 소품문(小品文) : 미시적인 세계를 다루어서 정조가 보기에 우주와 천하를 논하는 고문의 권위를 해체하는 것이므로 비판함.
 - ② '금병매', '수호지' 등과 같은 중국 소설.
- 정조의 문체 반정 : 중국 서적 수입을 금지하고, 사대부의 글 쓰기 전반에 대해 대대적 검열을 실시함.

4문단 : '열하일기'의 수록 내용

- 열하일기 : 연암이 청 건륭 황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로 북경에 들어갔다 귀국하기까지 6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기록한 여행록임.

5문단 : 문체 타락의 주범으로 몰린 '열하일기'

- 정조가 비난한 연암체 : 당대 주류의 언어였던 고문체를 더듬거리게 하고, 나아가 문체의 경계조차 무의미하게 만드는 균열이었던 것임.

25. <답> ⑤

<정답 풀이>

정조는 고문체를 통해 타락한 문체와 문풍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연암에게 고문체로 반성문을 쓰게 한 조치를 통해 정조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듯이 정조는 고문체를 통해 타락한 문체와 문풍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26. <답> ③

<정답 풀이>

형구의 규격을 정한 것은 형벌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어사를 파견하여 형구의 규격에 따르지 않은 수령들을 감시하고자 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백성들에게 가해질 위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지 수령들의 형벌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27. <답> ④

<정답 풀이>

<보기>와 같은 사고 과정을 통해 글쓴이가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쓴이는 결론적으로 보아 이 시기는 고문체로 대표되는 규범적인 사유 체계와 '열하일기'로 대변되는 자유롭고 개성적인 사유 체계가 충돌을 일으킨 변화의 시기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오답 풀이>

- ① 충돌의 양상을 소개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억압이나 탄압의 양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 ② 이질적 문체와 규범적 문체가 함께 사용되던 시기였다.
- ③ 자유롭고 발달한 사유가 정형화된 규범을 제압했던 시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⑤ 원래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언급이다.

28. <답> ③

<정답 풀이>

이 글을 통해 문체 반정이 체제 유지적인 성격, 즉 부정적인 성격을 지닌 운동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화 혁명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성격의 운동은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당·국가·인민에게 건국 이래 가장 심한 좌절과 손실을 가져다 준 모택동의 극좌적 오류이며 그의 책임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오답 풀이>

- ① 문체 반정은 사대부의 의식을, 문화 혁명은 전 국민의 의식 변화와 연관된 운동이었다.
- ② 문체 반정과 문화 혁명은 모두 최고 통치자에 의해 촉발된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 ④ 문체 반정은 고문체를, 문화 혁명은 상층 구조의 이념을 문체 삼으며 시작되었다.
- ⑤ 문체 반정과 문화 혁명은 운동의 변화 양상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 3

29. <답> ④

<정답 풀이>

‘열하일기’는 소설과 소품문, 고문과 변려문이 자유자재로 섞이며, 천고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거대 담론과 소소한 주변 이야기들이 공존하는 글이라고 평가하였다.

<오답 풀이>

- ① 지적인 통치자라고 하였다.
- ② 완성된 문장들의 전범이며, 체제 유지를 위한 장치였다고 했다.
- ③ 미시적인 세계를 다루며 문풍 타락의 출발점으로 지목되었다고 했다.
- ⑤ 정조의 노획한 조치에 대해 이러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0. <답> ②

<정답 풀이>

‘위반하다’는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기다’는 의미이고, ‘그르치다’는 ‘잘못하여 일을 그릇되게 하다’는 의미이므로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위반하거나’는 ‘어기거나’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내포되다’는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었다’는 의미이고, ‘담다’는 ‘품거나 가지다’는 의미이므로, ‘내포되어’는 ‘담겨’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③ ‘준수하다’는 ‘전례나 규칙, 명령 따위를 그대로 좇아서 지키다’는 의미이고, ‘지키다’는 ‘규정, 약속, 법, 예의 따위를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하다’는 의미이므로, ‘준수해야’는 ‘지켜야’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④ ‘간주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여겨지다’는 의미이고, ‘여기다’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는 의미이므로, ‘간주되었다’는 ‘여겨졌다’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⑤ ‘방지하다’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다.’는 의미이고, ‘막다’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다’는 의미이므로, ‘방지하도록’은 ‘막도록’으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31~34] 독서

[지문 분석]

현대의 정보화 기술은 컴퓨터의 성능 개선(정보화 기술 발전 배경)과 더불어 발전하고 있으며, 컴퓨터의 성능 개선은 실리콘 반도체 집적화 기술의 발전(컴퓨터 성능 개선의 배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판되고 있는 실리콘 반도체칩의 집적화는 90나노미터 이하로 내려가면 단열 물질의 두께 감소에 따른 주변 회로 사이의 전자 유출과 전자의 통계적 흔들림 등으로 전자의 운동 방향이 무질서해진다.(현재 시판되는 실리콘 반도체칩의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의 집적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그래서 무기물 반도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생체 분자를 이용한 생물전자소자(무기물 반도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칩)이다.

1문단 : 생물전자소자의 등장 배경

생물전자소자는 지방, 단백질, 신경 세포 등의 생체 물질로 구성되며 생명체의 신호 전달 처리 등 다양한 생체 기능을 모방한 것

(생물전자소자의 개념)이다. 그래서 생물전자소자는 정보를 전달하고 저장하는 전자의 흐름이 무기물인 실리콘에서 수행되던 기존의 반도체칩과 달리(대조의 방식) 생물 분자인 효소 단백질에서 수행되며 정보의 전달과 저장이 단백질 분자상에서 전자나 광을 제어함으로써 행해진다.(정보 전달하고 저장하는 방식) 그리고 이렇듯 분자 수준에서 수행되는 신호 전달 및 저장 기능은 피코초(1피코는 1조분의 1초) 이내의 빠른 전달 속도와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생물전자소자가 기존의 실리콘칩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바탕이 된다.

2문단 : 생물전자소자의 정보 전달 및 저장 방식의 특징

생물전자소자는 생체 분자를 분자 수준에서 제어하여 전자 소자로 응용한 것(특징)이다. 생물전자소자에 응용되는 생체 분자는 그 크기가 수십 옴스트롬(1옴스트롬은 100억분의 1미터)에서 수 나노미터 단위의 크기이기 때문에 생체 분자를 소자로 이용하면 열 발생이 매우 적어 정보 처리의 안정성이 높아지며 집적화 밀도는 기존의 실리콘칩에 비해 1,000만 배 이상으로 증가(생물전자소자의 장점)한다. 이는 더욱 좁은 공간에 더욱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생체 분자는 생화학 반응을 통해 인간의 신경계와 같이 신호를 병렬로 처리하는 등 매우 우수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뇌와 같이 한번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다.(장점) 이런 까닭에 생물전자소자는 시스템의 소요 동력을 줄이며 비약적으로 연산 처리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정보 교환시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3문단 : 생물전자소자의 기능적 우수성

생물전자소자가 사용된 바이오컴퓨터를 구현한 기술이 DNA 컴퓨팅 기술(생물전자소자를 사용해 바이오컴퓨터를 구현한 기술)이다. DNA 컴퓨팅 기술을 사용한 바이오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와 달리 처리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도 빠른 시간 안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바이오컴퓨터의 장점) 이는 DNA 컴퓨팅 기술이 병렬 연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DNA 컴퓨팅은 생체 분자의 병렬성을 이용해서 주어진 문제와 관련해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을 전부 탐색한다. 여러 방향으로 연산을 수행한 후 생성된 수많은 해 중에서 최종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발견하는 것이다.] (DNA 컴퓨팅 기술의 특징) 반면에(대조의 방식) [기존의 컴퓨터는 주어진 연산 방향으로 하나의 연산만을 수행하는 직렬 연산 방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연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거나 잘못된 연산이 수행되면 컴퓨터는 연산의 처음 시점으로 돌아가 다른 변수를 이용한 연산을 수행한다.] (기존 컴퓨터 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4문단 : 생체 분자의 병렬성을 이용하는 DNA 컴퓨터 기술

생물전자소자 기술은 어느 한 학문에 의해 발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생물전자소자는 [완전히 실용화되지 못했지만 최근 20여 년 동안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생물공학, 화학공학 기술 등이 매우 빠르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조만간 실용적이며 상업성 있는 생물전자소자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황과 전망) 그렇게 되면 생물전자소자는 미래의 컴퓨터에서 정보의 처리와 저장 및 검색을 담당하는 중추가 될 것이다.

5문단 : 생물전자소자의 발전에 대한 전망

- 주제: 생물전자소자의 기능적 우수성

고 3

1문단 : 생물전자소자의 등장 배경

- 실리콘 반도체칩의 문제점 : 집적화가 90나노미터 이하로 내려가면 단일 물질의 두께 감소에 따른 주변 회로 사이의 전자 유출과 전자의 통계적 흔들림 등으로 전자의 운동 방향이 무질서해짐. → 무기물 반도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칩의 필요성이 대두됨 → 생체 분자를 이용한 생물전자소자가 등장.

2문단 : 생물전자소자의 정보 전달 및 저장 방식의 특징

- 생물전자소자
 - ① 개념 : 지방, 단백질, 신경 세포 등의 생체 물질로 구성되며 생명체의 신호 전달 처리 등 다양한 생체 기능을 모방한 것임.
 - ② 정보 전달 및 저장 방식 : 물 분자인 효소 단백질에서 수행되며 정보의 전달과 저장이 단백질 분자상에서 전자나 광을 제어함으로써 행해짐.

3문단 : 생물전자소자의 기능적 우수성

- 생물전자소자의 특징과 장점
 - ① 생체 분자를 분자 수준에서 제어하여 전자 소자로 응용함.
 - ② 열 발생이 매우 적어 정보 처리의 안정성이 높아지며 집적화 밀도는 기존의 실리콘칩에 비해 1,000만 배 이상으로 증가함.
 - ③ 인간의 뇌와 같이 한번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음.

4문단 : 생체 분자의 병렬성을 이용하는 DNA 컴퓨터 기술

- DNA 컴퓨팅 기술
 - ① 생물전자소자가 사용된 바이오컴퓨터를 구현함.
 - ② 생체 분자의 병렬성을 이용해서 주어진 문제와 관련해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을 전부 탐색함.

5문단 : 생물전자소자의 발전에 대한 전망

- 생물전자소자의 현재 상황과 전망
 - ① 완전히 실용화되지 못했음.
 - ② 실용적이며 상업성 있는 생물전자소자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됨.
 - ③ 미래의 컴퓨터에서 정보의 처리와 저장 및 검색을 담당하는 중추가 될 것임.

31. <답> ②

<정답 풀이>

1문단에서 생물전자소자가 실리콘 반도체칩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말한 후, 2문단과 3문단에서 생물전자소자의 여러 특성과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문단에서는 생체 분자를 사용한 DNA 컴퓨팅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한 후 마지막 문단에서는 생물전자소자의 학문적 특성을 제시하며 실용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32. <답> ⑤

<정답 풀이>

생물전자소자는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칩과 달리 수십 나노미터 크

기로 집적화하더라도 열이 적게 발생되기 때문에 열로 인해 전자의 운동 방향이 무질서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처리 능력은 생화학 반응을 통한 생체 분자의 병렬성 때문에 더욱 정확해질 수 있다. 생화학 반응의 이용 여부가 정보의 정확한 전달을 결정짓는 필연적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은 1문단에서, ②는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 ③ 생체 분자는 수십 옴스트롬에서 수 나노미터 단위의 크기이기 때문에 고밀도로 집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④ 직렬 연산 방식은 연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연산의 처음으로 돌아가 연산을 다시 수행한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연산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33. <답> ③

<정답 풀이>

<보기>에서는 생체 분자가 자신의 상대가 되는 분자를 발견해 그것하고만 결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분자를 자동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분자 수준에서 생체 분자를 제어해 전자 소자로 응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는 생체 기능을 모방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② <보기>를 활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또는 원리를 제시할 수 있으나 전자의 흐름이 수행되는 위치를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보기>는 칩을 고밀도로 집적화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⑤ <보기>는 생체 분자의 자기 조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생체 분자의 병렬성과 정보 탐색 기능 간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지 않다.

34. <답> ③

<정답 풀이>

<보기>의 ㉠은 연산을 시작해 해를 도출하기까지의 연산 과정을 나타낸다. 바이오컴퓨터는 실리콘 반도체칩 대신에 생물전자소자를 이용해 연산을 수행한다. 생물전자소자를 사용하면 생체 분자의 병렬성으로 인해 정보 처리가 빨라지며 동시에 여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 에너지가 적게 들며 열이 적게 발생되어 전자의 운동 방향이 무질서해지는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은 직렬 연산 방식과 관련 있는 설명이다. 직렬 연산 방식을 실리콘 반도체칩을 이용한 컴퓨터가 사용하는 것이다.

고 3

화법과 작문

35	④	36	⑤	37	④	38	⑤	39	⑤
40	⑤	41	②	42	①	43	①	44	②
45	④	수고하셨습니다.							

[35~37] 화법

[지문 분석]

사회자: 얼마 전 정부가 ○○시의 갯벌을 해상 복합 공간과 국가 전략 산업 단지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과 환경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토론 배경) 그래서 오늘의 토론 논제는 '갯벌을 개발해야 한다.'(토론 논제)입니다. 찬성 측에서 먼저 입론을 해 주시고 이후에 반대 측이 입론을 해 주십시오.(토론 순서 설명)

찬성 측: 갯벌을 개발하면 생산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갯벌 개발의 장점) [그 용지에 산업 단지, 주거 단지 등을 조성해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갯벌의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는 개발 시점부터 갯벌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내용 열거)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저희 팀은 갯벌의 개발을 주장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측: 갯벌은 [수산 자원이 풍부하고 각종 동식물의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자연 관찰의 장입니다. 그리고 습지 생태계를 연계한 교육 공간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 관광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반대 측이 생각하는 갯벌의 특징과 장점) 이런 점에서 갯벌을 개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갯벌은 홍수나 태풍 같은 자연 재해의 피해를 줄여 주는 기능(갯벌의 기능)을 합니다. 갯벌의 흙과 모래는 스펀지처럼(비유적 표현 활용) 그 틈새에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때 순간적으로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아 줍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저희 팀은 갯벌의 개발을 반대합니다.

사회자: 양측의 입론을 들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경제적 효과에 관한 것과 환경 파괴에 대한 것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쟁점 정리) 그럼, 1차 반론에서는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반대 측, 찬성 측의 순서로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측: 찬성 측에서는 갯벌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강조하시는데요, [저희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보존된 갯벌이 지닌 경제적 가치는 연간 16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는 2006년부터 8년에 걸쳐 갯벌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로, 단 위 면적당으로 따지면 연간 가치는 약 63억 원이나 됩니다.](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반론을 제기함) 따라서 개발보다는 보존으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큼니다. 그러므로 찬성 측의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 반대 측에서 갯벌의 보존에 따른 이익을 강조하시는데요,(반대 측 발언 확인) 갯벌의 보존보다는 개발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갯벌을 개발하면서 인공 호수를 만들어 그 물을 농업 및 공업용수로 활용한다면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갯벌과 주위의 섬, 해변 등 풍부한 해양 자원을 활용해 관광 레저

단지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구체적 근거를 들음)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반대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사회자: 양측에서 1차 반론을 했습니다. 2차 반론에서는 환경 파괴와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1차 반론과 같습니다.

반대 측: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갯벌의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보고서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 실제로 갯벌은 바다에 흘러드는 오염 물질을 정화해 줍니다.(갯벌의 기능) 공장이나 가정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이 바다로 흘러갈 때 갯벌의 퇴적층은 거름종이처럼 오염 물질을 걸러 냅니다. 이렇게 걸러진 오염 물질은 갯벌에 사는 각종 동식물에 의해 분해되고 정화됩니다. 그런데 갯벌을 개발하면 갯벌의 정화 기능이 사라지는 데다가 새로운 토지 이용으로 인한 각종 폐수와 쓰레기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환경 파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갯벌이 개발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찬성 측: 반대 측은 갯벌의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강조합니다. 즉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환경 관리 시설 설치, 천연 동식물 보호 대책 수립, 동식물들을 위한 깨끗한 서식처 제공,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습지 생태 공원 건설 등의 예방 대책을 통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 측은 너무 환경 파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네, 양측의 반론을 잘 들었습니다. 잠시 숙의 시간을 거친 후에 최종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문 확인]

- 갈래: 토론
- 주제 : '갯벌을 개발해야 한다.'의 찬반 토론
- 특징
 - ① 토론에서 수행하는 사회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음.
 - ② 갯벌 개발을 통한 예상 장점 및 효과를 상세하게 전달함.
 - ③ 갯벌의 기능을 바탕으로 갯벌 개발을 반대함.
 - ④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반론을 제기함.
 - ⑤ 보고서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남.

35. <답> ④

<정답 풀이>

갯벌의 개발 방식에 대한 비과학성을 따지는 것은 토론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찬성 측은 입론에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근거로 들어 갯벌 개발에 대한 찬성 주장을 펼치고 있다.
- ② 찬성 측은 2차 반론에서 환경 관리 시설 설치, 천연 동식물 보호 대책 수립, 동식물들을 위한 깨끗한 서식처 제공,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습지 생태 공원 건설 등의 대책을 근거로 들어 반대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③ 반대 측은 입론에서 갯벌의 보존이 개발보다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 ⑤ 반대 측은 2차 반론에서 갯벌의 개발로 인해 갯벌의 오염 물질 정화 기능이 상실되며 새로운 토지 이용으로 각종 폐수와 쓰레기가 추가되어 환경 파괴가 가속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

고 3

대 측은 이를 통해 찬성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36. <답> ⑤

<정답 풀이>

이 토론에서 제기된 모호한 용어의 정의를 토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회자 발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② 사회자의 첫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사회자의 세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사회자의 세 번째, 네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7. <답> ④

<정답 풀이>

<보기>는 반박의 핵심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반박의 핵심은 상대 측 주장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찬성 측은 2차 반론에서 환경 파괴 예방 대책을 통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발언에서 갯벌의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를 막을 수는 없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이것은 찬성 측 주장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② 찬성 측 2차 반론 내용과 관련이 없다.
- ③ 경제와 환경을 모두 고려한 대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 측은 입론과 반론을 통해 이미 언급하였다. 따라서 ③은 찬성 측 주장의 약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
- ⑤ 갯벌의 개발에 따른 어민들의 생계와 삶의 터전 상실은 찬성 측의 입론에 대한 반론에 해당하지만, 찬성 측 2차 반론 내용과 관련이 없다.

[38~41] 화법과 작문

[지문 분석]

화법

라디오 대담

사회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인사말) 지난 시간에 이어 과학 전문가 ○○○ 선생님을 모시고(전문가 소개)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해 주실 건가요?

전문가: 사회자님은 혹시 '펠레의 저주'라고 들어 보셨나요?(질문하는 방식을 활용함)

사회자: 펠레의 저주라면 축구계의 전설인 펠레가 우승 후보로 예상한 팀들이 어이없게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긴 말 아닌가요?(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전달함)

전문가: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펠레의 말에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펠레의 저주는 확률과 관련된 문제로, 오늘 제가 이야기할 '머피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이야기할 대상 소개)

사회자: 머피의 법칙이라면 나에게만 불행한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들은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 아닌가요?(설명 대상의 개념 설명) 이게 어떻게 펠레의 저주와 연관이 될 수가 있지요?(질문)

전문가: 혹시 사회자님은 월드컵 우승팀을 예측해서 맞으신 적

이 있나요?

사회자: 세 번의 월드컵에서 예측을 해 보았는데, 제가 예상한 팀이 우승한 적은 없어요.

전문가: 사회자님의 제주도 만들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웃음) 여기에는 펠레의 저주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승팀을 알아맞힐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펠레의 저주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 아무리 강한 팀이라 하더라도 우승 확률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맞는 것이 대단한 것이지 틀리는 것이 불운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자: 그래도 10번 예측해서 10번 다 틀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질문)

전문가: 확률이 10%라는 것은 10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맞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8번째까지 틀리다가도 19, 20번째에 맞힐 수도 있지요. 통계학자들은 이처럼 특정 사건이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현상(군집 현상의 개념)을 '군집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규칙적으로 분포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운은 없을 때는 없다가도 때로는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운이 없는 시기에 놓이게 되면 자기만 불운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머피의 법칙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운이 좋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운이 없는 것은 더 크게 느끼는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머피의 법칙이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군집 현상을 바탕으로 머피의 법칙에 대해 설명함)

사회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요?(질문)

전문가: 혹시 마트 계산대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계산대의 줄이 먼저 줄어드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회자: 네, 있어요. 어떨 때는 줄이 좀 짧다 싶은 쪽으로 가면 원래 있던 줄이 더 빨리 줄어들더라고요.

전문가: [그것도 사회자님이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개의 계산대가 있다고 할 때 내가 줄 선 계산대의 줄이 제일 먼저 줄어들 확률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으니, 여간 운이 좋지 않은 한 다른 줄이 먼저 줄어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제일 먼저 줄어드는 줄만 바라보니까 운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지요.](실생활의 예를 들어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함)

진행자: 그러고 보니 우리가 너무 운이 좋은 일만 일어나 주길 바라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청취자들의 질문을 받고 계속하겠습니다.

[지문 확인]

- 갈래: 라디오 대담
- 주제 : 확률의 문제와 관련된 '머피의 법칙'
- 특징
 - ① 전문가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함.
 - ②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함.
 - ③ 사회자가 청취자들도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질문함.

고 3

[지문 분석]

작문

학생의 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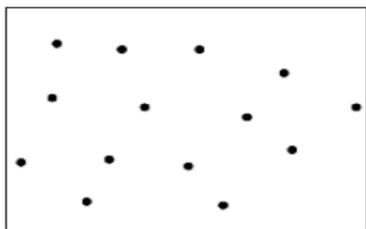
머피의 법칙은 과학이다(제목이 글의 중심 내용을 담음)

살다 보면 꼭 나만 운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마트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 다른 줄은 빨리 줄어드는데 꼭 내가 선 줄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 날은 물건을 잔뜩 들고 있는데 버스도 빨리 오지 않는다.](실생활에 예를 들) 이럴 때 쓰는 ‘머피의 법칙’이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꼬이기만 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머피의 법칙’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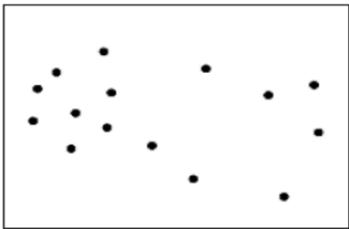
[머피의 법칙은 1949년 미국의 에드워드 공군 기지에서 일하던 머피 대위가 ‘어떤 일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 하나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누군가는 꼭 그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머피의 법칙’의 유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필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까 하는 생각이 머피의 법칙을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의 상당수는 확률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들**(‘머피의 법칙’을 과학적(수학)으로 접근함)이다. **예를 들어**(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함) 마트에서 4개의 계산대가 있다고 할 때 자신이 선 줄이 가장 먼저 줄어들 확률은 1/2이다. 나중에 줄어드는 줄에 선 자신이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먼저 줄어드는 줄에 선 사람이 운이 좋은 것이다.

안 좋은 일은 몰려서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역시 마찬가지다. 아래 그림에서 종이에 찍은 점을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림 1>은 규칙적으로 골고루 일어나는 경우이고, <그림 2>는 안 좋은 일이 몰려서 일어나는 경우이다. 통계학자들은 <그림 2>와 같은 분포를 ‘군집 현상’이라고 부르며 <그림 1>보다 일어날 확률이 높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본다.](시각적 자료를 통해 ‘군집 현상’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함)



<그림 1>



<그림 2>

세상에서 불운을 경험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그 불운이 몰려서 오는 것도 아주 특이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좋은 상황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불운을 겪으면 자신에게만 불운이 몰려서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때로는 행운이 연속되는 날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머피의 법칙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머피의 법칙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

[지문 확인]

- 갈래 : 신문 기고문
- 주제 : 과학 법칙인 ‘머피의 법칙’
- 특징
 - ① 실생활을 예를 들어 이야기를 시작함.
 - ② ‘머피의 법칙’의 개념과 유래를 밝힘.
 - ③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용어를 설명함.
 - ④ ‘머피의 법칙’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언급하여 마무리함.

38. <답> ⑤

<정답 풀이>

전문가가 펠레의 법칙, 월드컵 예측, 마트에서의 경험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은 사회자의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끌어내 화제를 이끌어 가기 위한 것이지, 사회자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사회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머피의 법칙을 바탕으로 그것이 펠레의 저주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② 사회자는 “펠레의 저주라면 ~ 아닌가요?”, “머피의 법칙은 ~ 아닌가요?”라는 말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③ 사회자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머피의 법칙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대답을 진전시키고 있다.
- ④ 전문가는 월드컵 예측, 마트에서 줄 서기와 같은 사회자의 경험을 확인하고, 이를 머피의 법칙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39. <답> ⑤

<정답 풀이>

대답에서 전문가는 특정 사건이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것이 규칙적인 것보다 자연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대답에서 전문가는 월드컵 우승팀 예상이 빗나가는 이유에 대해 맞힐 확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이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대답에서 전문가는 운이 좋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운이 나쁜 것만을 생각하는 편향성 때문에 머피의 법칙을 그럴듯하게 생각한다고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대답에서 전문가는 확률이 10%라는 것은 열 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대답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질문이다.
- ④ 대답에서 전문가는 ‘펠레의 저주’라는 말은 확률의 문제이지 펠레의 말에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대답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질문이다.

40. <답> ⑤

<정답 풀이>

초고에서는 머피의 법칙에 작용하는 심리적 요인을 배제하지 않고 확률적인 관점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나)에서는 방송에 나왔던 마트에서 줄 서기의 예를 이용하여 머피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 ② (나)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머피의 법칙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라는 주제 의식을 보여 준다.
- ③ (나)에서는 규칙적으로 분포하는 <그림 1>과 불규칙적으로 분포하는 <그림 2>를 활용하여 군집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방송에서는 머피의 법칙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나)에서는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41. <답> ②

<정답 풀이>

1문단의 세 번째 문장은 뒤에 나오는 머피의 법칙에 대한 정의와 연관되며, 4문단에서 말한 불운이 몰려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연관되는 것이므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오답 풀이>

- ① (나)에서는 과학적 법칙처럼 보이는 일을 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머피의 법칙은 과학이다’라는 제목을 사용했을 경우 머피의 법칙 자체가 과학적 법칙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방안과 같이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③ 머피의 법칙은 불운을 자신이 겪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을 ‘자신’으로 고쳐야 한다.
- ④ 4개의 계산대 중 한 줄에 서는 것이므로 자신이선 줄이 가장 먼저 줄어들 확률은 ‘1/4’이 되어야 한다.
- ⑤ 불운을 겪는 것이 특이한 일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신만 불운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므로 ‘그리고’가 아니라 역접의 ‘그렇지만’이 적절하다.

[42~45] 작문

[지문 분석]

요즈음 인포그래픽이라는 말을 여러 매체에서 듣게 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인포그래픽은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의 ‘인포’와 ‘그래픽’이 합쳐진 말(인포그래픽의 어원)로, 정보를 그래픽 형태로 나타낸 것을 일컫는다.**(인포그래픽의 뜻) 인포그래픽이 요즈음 각광받는 이유는 **우리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찾는 것은 가능해도 그 핵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인포그래픽이 각광받는 이유)**이다. 인포그래픽은 **정보를 선별한 후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중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수많은 정보를 뒤져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인포그래픽의 유용성)**에서 유용성이 있다. 이러한 인포그래픽은 **광고, 통계 자료, 학술 저서 등(인포그래픽의 활용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인포그래픽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순서를 나타내는 표지) 이미지형 인포그래픽(종류 ①)**은 정보를 이미지 형태로 표현하여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른 인포그래픽에 비해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현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어 단조롭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영상으로 구현되는 **모션 인포그래픽(종류 ②)**이 있다. 영상의 특성을 살려서 배경 음악이나 해설 등의 청각적 요소를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치 자료와 같은 것도 다양하게 삽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지형 인포그래픽에 비해 제작 비용이 많이 들고 정보의 수정이나 업데이트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대화를 한다는 의미의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종류 ③)**은 정보 수용자가 어

떤 정보를 요구하면 해당 정보를 찾아서 제공하는 쌍방향 소통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이지만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과 같은 장치가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인포그래픽을 제작하려면 **먼저(인포그래픽 제작 순서를 전달함) [작업에 앞서 인포그래픽 작업이 왜 필요한지(목적)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순서 ① : 목적 확인)** 이렇게 목적을 설정한 후에는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순서 ② : 자료 수집)**해야 하는데, 적은 양의 자료로는 알찬 내용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자료를 취사선택한 후 인포그래픽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게 된다.(순서 ③ : 자료 취사선택과 구성)** 이는 인포그래픽의 전체적인 구상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다음으로는 시각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같은 자료라도 막대그래프가 좋을지 원그래프가 좋을지 고려하거나, 구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제시할 것인지 고려하는 등 이미지로 표현할 때 어떤 방식이 효과적일지 생각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잘 거치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포그래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포그래픽을 만들 때는,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편안하듯이(비유적 표현을 활용함)** 전달하려는 정보에 가장 적합한 유형의 인포그래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인포그래픽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문 확인]

- 갈래 : 설명문
- 주제 : 인포그래픽의 특징과 올바른 제작 방법
- 특징
 - ① 인포그래픽의 어원과 명확한 의미를 밝히고 있음.
 - ② 인포그래픽이 활용되는 분야를 안내함.
 - ③ 인포그래픽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명확히 밝힘.
 - ④ 인포그래픽을 제작하는 순서를 전달함.

42. <답> ①

<정답 풀이>

설명 대상인 ‘인포그래픽’의 정확한 용어 개념을 ‘인포그래픽은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의 ‘인포’와 ‘그래픽’이 합쳐진 말로, 정보를 그래픽 형태로 나타낸 것을 일컫는다.’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하여 전달한 것은 아니다.

43. <답> ①

<정답 풀이>

‘요즈음 인포그래픽이라는 말을 여러 매체에서 듣게 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에서 ㉠를, ‘인포그래픽은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의 ‘인포’와 ‘그래픽’이 합쳐진 말로, 정보를 그래픽 형태로 나타낸 것을 일컫는다.’에서 ㉡를, ‘인포그래픽이 요즈음 각광받는 이유는 우리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찾는 것은 가능해도 그 핵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에서 ㉢를, ‘인포그래픽은 ~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있다. 이러한 인포그래픽은 광고, 통계 자료, 학술 저서 등에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에서 ㉣를 확인할 수 있다.

44. <답> ②

<정답 풀이>

(가)와 (나)를 비교하여 보면 줄글로 쓰인 (가)와 달리 인포그래픽의 시각화를 거친 (나)에서는 커피의 여러 종류가 각각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의 공통점은 커피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자료의 충분한 수집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가)를 활용하여 (나)를 제작한 것은 맞지만 (가)에서 제공된 정보 외에 추가적인 정보가 더 들어간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가)보다 (나)가 쉽게 이해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를 통해 자료의 취사선택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가)보다 (나)가 제작하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인포그래픽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45. <답> ④

<정답 풀이>

④의 경우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하여 전달하려는 정보에 가장 적합한 유형의 인포그래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는 인포그래픽의 목적을 언급하였으므로 <보기>에 조건에 부합한다.

<오답 풀이>

⑤ 표현하는 과정에서 내용과 어울리는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보의 품질에 따라 인포그래픽이 달라진다는 내용은 <보기>의 조건과 관련이 없다.

언어와 매체

35	④	36	③	37	⑤	38	④	39	④
40	②	41	③	42	③	43	①	44	③
45	④	수고하셨습니다.							

[35~40] 언어

35~36번 언어 이론: 합성어, 파생어

1) 단어의 형성

파생법(派生法)과 합성법(合成法)에 의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다.

2) 구성 방식에 따른 단어의 갈래

갈래		형태
단일어(單一語)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말)		실질형태소(1개)
복합어(複合語)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말)	파생어	형식형태소+실질형태소(접사+어근) 실질형태소+형식형태소(어근+접사)
	합성어	실질형태소+실질형태소(어근+어근)

3) 어근과 접사

어근(語根)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
접사(接詞)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거나, 어근의 품사를 바꿔주는 형식 형태소.

35. <답> ④

<정답 풀이>

‘대체적으로 합성어의 품사는 가장 나중에 오는 어근의 품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합성 부사나 합성 관형사 등이 예외라고 하였는데, ‘척척박사’는 합성 명사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고 실제로도 ‘척척’이라는 부사와 ‘박사’라는 명사가 결합되어 ‘척척박사’라는 명사가 되었으므로 나중에 오는 어근의 품사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접칼’은 ‘접을 수 있는 칼’이다. 그러므로 어근은 ‘접-’과 ‘칼’로 볼 수 있다. ‘접-’이 ‘접을 수 있는’의 의미로 ‘칼’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의미 관계에 따라 분류하면 ‘종속 합성어’로 볼 수 있다.
- ② ‘돌부처’는 어근 ‘돌’과 ‘부처’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이들이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와 일치하게 배열되어 있으므로 ‘돌부처’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셋째 문단에 예시로 제시된 ‘밤낮’은 ‘밤’과 ‘낮’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며, ‘명사+명사’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우리말 배열법과 일치하는 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한다는 것을 보면 ‘돌부처’도 통사적 합성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③ ‘날아가다’는 ‘동사+동사’로 이루어진 ‘합성 동사’이다. 가장 나중에 오는 품사에 따라 합성어의 품사가 결정된다는 원칙에 따라 보더라도 ‘날아가다’는 ‘합성 동사’인 것이 분명하다.
- ⑤ ‘오가는’은 ‘일정한 곳을 오고 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오다’와 ‘가다’의 의미가 모두 살아 있다. 한쪽의 어근이 다른 한쪽의 어근을 꾸며 주는 것이 아니고, ‘어근이 각각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대등하게 붙어서 된 합성어’, 즉 ‘대등 합성어’이다.

36. <답> ③

<정답 풀이>

‘뒹뒹’은 동사의 어간 ‘뒹-’과 명사 ‘뒹’이 결합된 합성어이므로 ‘동사+명사’인 ㉠과 단어 배열이 같다. ‘힘내서’는 ‘힘’과 ‘내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힘’은 명사이고 ‘내다’는 동사이다. 그러므로 ㉡과 단어 배열이 같다.

<오답 풀이>

- ① 동사인 ‘늪다’가 활용한 형태인 ‘늪은’에 명사 ‘이’를 결합한 형태이므로 ㉠과 단어 배열이 같은 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닫는’은 ‘열다’와 ‘닫다’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동사+동사’ 결합이라 ㉡과 단어 배열이 다르다.
- ② ‘검버섯’은 형용사 ‘검다’의 어간인 ‘검-’과 명사 ‘버섯’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동사인 ‘썩다’의 어간인 ‘썩-’과 명사 ‘쇠’가 결합한 ㉠과 단어 배열이 다르다. ‘갈아입다’는 ‘갈다’와 ‘입다’라는 두 동사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과 단어 배열이 같지 않다.
- ④ ‘작은형’은 형용사인 ‘작다’와 명사 ‘형’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과 배열이 같지 않다. ‘배부르다’는 명사 ‘배’와 형용사 ‘부르다’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과 단어 배열이 같다.
- ⑤ ‘새해’는 관형사 ‘새’와 명사인 ‘해’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과 단어 배열이 같지 않다. ‘정들다’는 명사인 ‘정’과 동사인 ‘들다’가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었으므로 ㉠과 같은 단어 배열로 이루어졌다

37번 언어 이론: 음운의 변동

* 음운의 동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의 특질을 닮아 가는 현상
 - 자음 동화 :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 자음을 닮아서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자음이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바뀌기도 함.

1) 음운 변동의 개념과 유형

개념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유형	교체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탈락 원래 있던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모음 탈락
	첨가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현상 - 반모음 첨가
	축약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 하나가 되는 현상 - 거센소리되기

2) 음운의 교체

종류	규칙	예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발음됨.	부엌[부억], 바깥[바깼]
비음화	‘ㄱ, ㄷ, ㅂ’이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됨.	국물[궁물]
유음화	‘ㄴ’이 ‘ㄹ’을 만나 유음 [ㄴ]로 발음됨.	산림[살림]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주로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 [ㅈ, ㅊ]으로 발음됨.	굳이[구지], 같이[가치]
된소리되기	‘ㄱ, ㄷ, ㅂ, ㅅ, ㅈ’이 일정한 환경에서 된소리인 [ㄱ, ㄷ, ㅂ, ㅅ, ㅈ]으로 발음됨. 음절 끝 ‘ㄱ, ㄷ, ㅂ’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용언의 어간 받침 ‘ㄴ, ㅁ’ 뒤에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에서 일어남.	독서[독써], 품고[품꼬], 발전[발쩐]

3) 음운의 탈락, 첨가, 축약

유형	종류	규칙	예
탈락	모음 탈락	용언 어간 끝의 모음 ‘ㅏ /ㅑ’나 ‘ㅡ’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탈락함.	‘가-’+‘-아서’ →가서[가서]
첨가	반모음 첨가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반모음이 첨가됨.	되어[되어/되어]
축약	거센소리되기	‘ㄱ, ㄷ, ㅂ, ㅅ’이 ‘ㅎ’과 결합하면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됨.	법학[벼팍]

37. <답> ㉠

<정답 풀이>

<보기>는 음운 변동 중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밭이랑’의 경우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 첨가’가 일어나 [반니랑]이 되고 이어 비음화가 진행되어 [반니랑]이 된다. 따라서 구개음화는 이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굳히다’는 축약이 일어나 [구티다]가 되고, 이어 구개음화가 일어나 [구치다]가 된다.
- ② ‘날날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날 : 나티]가 되고, 이어 구개음화와 비음화가 일어나 [날 : 나치]가 된다.
- ③ ‘물히다’는 축약이 일어나 [무티다]가 되고, 이어 구개음화가 일어나 [무치다]가 된다.
- ④ ‘미단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미 : 다지]가 된다.

38번 문법 이론 : 형태소

형태소 : 뜻(의미)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1) 자립성 유무(有無)에 따른 종류

자립 형태소	자립성을 지닌 홀로 설 수 있는 형태소 (예) 철수, 이야기, 책, 어머니, 저녁
의존 형태소	자립성이 없어, 홀로 서기가 어려워 다른 말에 의존하여 쓰이는 형태소 (예) 가, 을, 읽-, -었-, -다, 는, 가지-, -고, 들-, -어, 오-, -시-, -었-, -다.

2) 의미의 유무(有無)에 따른 종류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 (예) 철수, 이야기, 책, 읽-, 어머니, 저녁, 가지-, 들-, 오-
형식 형태소	자립성이 없어, 홀로 서기가 어려워 다른 말에 의존하여 쓰이는 형태소 (예) 가, 을, -었-, -다, 는, -고, -어, -시-, -었-, -다.

3) 형태소의 종류와 문법 요소

자립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의존 형태소	조사, 용언의 어간, 어미, 접사
실질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용언의 어간
형식 형태소	조사, 용언의 어미, 접사

38. <답> ④

<정답 풀이>

‘오가는’은 동사의 어간 ‘오-’와 ‘가-’가 결합된 것으로 두 개의 실질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는’은 어미로 형식 형태소이다. 따라서 ‘오가는’은 두 개의 실질 형태소와 한 개의 형식 형태소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철수’는 명사로 실질 형태소이고, ‘가’는 조사로 형식 형태소이다.
- ② ‘몰래’는 부사로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이고, ‘사람’은 명사로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이다.
- ③ ‘데나’의 ‘나’는 조사로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식 형태소이고, 자립성이 없으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 ⑤ ‘보이냐’는 동사의 어간 ‘보-’에 피동 접사 ‘-이-’와 어미 ‘-냐’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하나의 실질 형태소와 두 개의 형식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39번 문법 이론은 35~36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39. <답> ④

<정답 풀이>

‘거리에 사람이 들끓었다’의 ‘들끓다’는 ‘마구, 몹시’의 뜻을 지닌 ‘들-’이라는 접사가 붙어 ‘끓다’에 의미를 더한 것이다. 이는 접사가 한정적 기능을 한 사례이다.

<오답 풀이>

- ① ‘헛소문’은 ‘쓸데없는’의 뜻을 지닌 접사인 ‘헛-’이 붙어 한정적 기능을 수행한 사례이다.
- ② ‘개살구’는 ‘야생에서 자라는, 질이 떨어지는’의 뜻을 지닌 접사인 ‘개-’가 붙어 한정적 기능을 수행한 사례이다.
- ③ ‘엿듣다’는 ‘몰래’의 뜻을 지닌 접사인 ‘엿-’이 붙어 한정적 기능을 수행한 사례이다.
- ⑤ ‘잡히다’는 피동의 뜻을 지닌 접사 ‘-히-’가 붙어 지배적 기능을 수행한 사례이다.

40번 문법 이론 : 근대 국어

* 근대 국어

1) 개념: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의 국어

2) 표기

- 종성 ‘ㄷ’과 ‘ㅅ’의 표기 혼란, ‘ㄷ’을 ‘ㅅ’으로 적는 경향
- 이어적기 표기가 점차 끊어적기 방식으로 가는 과도기로 거듭적기 표기가 나타남

3) 음운

① 자음

- ‘△’이 완전히 소실됨
- ‘ㅇ’이 종성에서만 실현됨
- 어두자음군이 사라짐
- 거센소리화와 된소리화가 나타남
- 두음법칙에 변화가 생겨 어두의 ‘ㄴ’이 탈락되기 시작
- 구개음화 현상이 점진적으로 나타남

② 모음

- ‘ㆍ’ 소실: 16세기부터 둘째 음절의 ‘ㆍ’는 ‘ㅡ’로, 18세기부터 첫째 음절의 ‘ㆍ’는 ‘ㅏ’로 바뀜
- 이중모음 ‘ㅘ’, ‘ㅙ’가 단모음으로 바뀜
- 입술소리 아래 ‘ㅡ’는 원순모음 ‘ㅓ’로 바뀜

③ 성조

- 16세기 후반부터 동요하던 성조가 완전히 사라짐
- 상성은 대체로 장음으로 변화하여 남아있음

4) 문장

- 주격조사 ‘가’의 출현(‘이’와 구별)
- 붕계 활용이 15세기부터 반모음[w]로 변하여 ‘ㅂ’불규칙 활용으로 변함

예) 도박 → 도와

- △계 활용은 근대에 소실되면서 ‘ㅅ’불규칙 활용으로 변함

예) 지셔 → 지어

-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줍-/-습-’ 소멸
- 시제 선어말 어미 ‘-었-’ 확립, ‘-겠-’도 형성
- 명사형 어미 ‘-(으)ㄴ’보다 ‘기’의 사용이 많아짐

5) 단어: 서양 문물이나 사상의 유입으로 인한 한자어 사용

40. <답> ②

<정답 풀이>

㉠, ㉡, ㉢에 쓰인 접미사는 모두 어근의 품사를 용언에서 체언으로 바꾸었으므로, 지배적 기능으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는 형용사의 어근에 ‘-ㄴ/-음’이 붙어서, ㉢역시 형용사 어근에 ‘-이’가 붙어서 파생된 단어이다.
- ③ ㉠의 ‘거름’은 접미사 ‘-음’에 의해 파생된 것으로, ‘쁘레밧기’는 ‘-기’에 의해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쁘레밧기’에 쓰인 접사가 상대적으로 후대에 나타난 접사임을 알 수 있다.
- ④ 근대 국어에서는 명사형 전성 어미인 ‘-ㄴ/-음’과 명사 파생 접미사인 ‘-ㄴ/-음/-음/-음’의 형태가 서로 혼용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깃뽀’, ‘게으름’이 체언으로 파생된 형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 ⑤ 19세기부터는 명사 파생 접미사인 ‘-이/-의’의 형태가 ‘-이’로 바뀔에 따라 파생 명사의 형태가 파생 부사와 형태가 같아지게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노피’, ‘기리’에 붙은 파생 접미사 ‘-이’는 체언을 만드는 것과 부사를 만드는 것의 형태가 같았을 것이다.

고 3

[41~43] 매체
[지문 분석]
(가)

대구시가 관광객을 이끌어 들이기 위해 팔공산에 구름다리를 놓으려고 하자 시민 사회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 상황)

시민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앞산·팔공산 막개발 저지 대책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기자 회견 핵심 내용)했다. 대책위 공동 대표는 [“팔공산은 자연이 만들어 준 대구의 명소이자 보존해야 할 유산인데 구름다리가 건설되면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말 것”](발언 내용 직접 인용)이라며 팔공산 구름다리 계획을 거두어들이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구름다리 설치에 따른 방문객 증가 효과는 미미하고, 케이블카 이용자만 늘려 사업자의 배만 불릴 가능성이 크다는(지적 내용) 지적도 나왔다.

한편 구름다리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교수는 [“1985년 들어선 케이블카 때문에 낙타봉 ~동봉 구간은 나무뿌리 24퍼센트, 암석 47퍼센트가 노출되는 등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 현장 정밀 조사도 없이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면 팔공산 남부 지역 자연 생태계는 붕괴될 것”](전문가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함, 신뢰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이라고 지적했다. 옥○○ 대구·경북 야생 동물 연합 운영 위원은 팔공산에는 동식물 4741종이 서식하고 있어 북한산(2945종), 계룡산(3375종)과 비교해 자원 가치가 매우 높으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함) 인공 조형물이 설치되면 야생 동물 서식 환경을 위협해 생태계 교란 및 서식지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사회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환경 보호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민 단체, 전문가 등 여론을 수렴해 환경 영향 평가와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문 확인]

- 갈래 : 신문 기사
- 주제 :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
- 특징
- ①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인용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부여함.
- ②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음.
- ③ 구름다리 설치로 인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지문 분석]

(나)

대구시는 올해 1월 핵심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건다고 발표했다. 이는 열악한 대구 관광 자원의 개발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 온 관광 전문가 및 관광 업계의 의견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대구시의 의지(발표에 대한 해석)로 풀이된다.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기존 케이블카를 최대한 활용한 사업이다. 올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019년까지 정상 전망대, 스카이워크, 케이블카 정상과 동봉 방향의 낙타봉을 잇는 폭 2미터, 길이 230미터의 국내 최장의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등산로를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팔공산 케이블카

는 정상부의 산악 체험 시설과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거리가 없어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에는 140억 원(국비 70억 원, 시비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에 관한 상세한 내용 소개)

그러나 이러한 대구 핵심 관광 자원 개발 계획이 뜨거운 감자(중요한 문제이지만 쉽게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대두되고 있다. 시민 환경 단체들이 “팔공산은 대구 시민들이 보존해야 할 귀중한 자연 유산이다. 이곳에 대형 인공 구조물이 들어서면 생태계 훼손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직접 인용)라며 구름다리 계획을 즉각 전면 백지화(白紙化)하라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구시 관광 개발 팀장은 “우리나라에 구름다리가 50군데 있다. 최근에 건설한 옥지도, 경기도 파주 등에는 관광객들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팔공산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구름다리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지문 확인]

- 갈래 : 신문 기사
- 주제 :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에 관한 상반된 입장
- 특징
- ① 구름다리 설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함.
- ② 사업에 관한 상반된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함.
- ③ 발표에 대한 기자의 판단을 기사 앞부분에 기재하고 있음.

41. <답> ③

<정답 풀이>

(가)는 시민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앞산·팔공산 막개발 저지 대책 위원회’의 공동 대표의 말을 인용했고, (나)는 시민 환경 단체들이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경우, 인용된 시민 환경 단체의 말은 (나)의 입장에 반대하는 내용이므로,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는 설명이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에 대해 (가)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② (가)는 자연환경이 훼손된 정도와, 팔공산에 서식하는 동식물 종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고, (나)는 추진하고 있는 팔공산 구름다리의 규모와 설치 비용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기사문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구름다리가 50군데 있다. 최근에 건설한 옥지도, 경기도 파주 등에는 관광객들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구름다리 설치가 관광객 증가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⑤ (가)는 관광 자원 개발을 중점으로 다루는 (나)와 달리, 경제적 효과보다 자연경관과 생태계 보존에 비중을 두어 구름다리 건설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 3

42. <답> ③

<정답 풀이>

신문 기사는 기자와 독자의 쌍방향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43. <답> ①

<정답 풀이>

(가)의 중심 내용은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우려’이다. 관련자들의 ‘공감대 형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려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구름다리 건설을 철회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표제로는 ‘팔공산의 자연환경 훼손하는 구름다리 건설 철회해야’와 같은 내용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나)는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므로 표제로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로 지역 경제 살려야’가 적절하다.

③ ‘뜨거운 감자’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쉽게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④ ‘명약관화(明若觀火)’는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이라는 의미이므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⑤ ‘백지화(白紙化)’는 ‘어떠한 일을 하기 이전의 상태가 됨. 또는 그런 상태로 돌림’이라는 의미이므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44~45] 매체

[지문 분석]

안전 지킴이의 [블로그](#)(인터넷 블로그 매체임을 확인)
블로그 | 독서 | 여행 | 정보

스마트폰족을 위한 교통 표지판 등장(제목)

제가 사는 ○○시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동차와 맞닥뜨리는 위험한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효과) 다음과 같이 형상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스마트폰 주 사용층인 10~30대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역 등 다섯 곳입니다.(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



(시각자료를 통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수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죠.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67.6퍼센트로 세계 1위입니다.(구체적 수치를 제시함) 스마트폰 하나로 인터넷 검색은 물론 누리소통망 이용, 은행 업무(스마트폰의 기능)까지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스마트폰을 제3의 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사람들(현재 상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보행 습관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문제점 제시) [교통안전 공단에서 2013년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616명 중 95.7퍼센트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1회 이상 사용한다고 답했고, 5명 중 한 명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구체적 통계 자료를 제시함) ‘보행자가 휴대 전화 통화를 하느라 빨간 신호등을 못 본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퍼센트 보행자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통상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왔었는데 요, 이례적으로 보행자에게 100퍼센트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http://www.ts2020.kr 교통안전 공단 누리집 참조함.)

다른 나라에서도 사고 예방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 표지판이 등장했고요, 벨기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전용 도로를 만들어 보행자 간 충돌을 방지한다고 합니다.(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함)



▲ 스웨덴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주의 표지판



▲ 벨기에의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 도로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사고 인식이 떨어지고 시야의 각도가 현저히 좁아집니다.(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때문인 것만 봐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안전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 스웨덴과 벨기에의 사례 사진은 ○○시 누리집에서 가져옴.)(출처를 명확히 밝힘 : 올바른 자세)

고 3

댓글 8 공감 20
 종달새 비슷한 주제로 수행 평가 중이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해요. ^^
 ↳ 안전 지킴이 교통안전 공단 블로그인 '교통안전 연구소'에 관련 정보가 더 많이 있어요.(쌍방향 소통)
 소울 제 주변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건다가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윤주 엄마 교통 표지판 설치와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최소 5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사막여우 진짜로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대부분이 스마트폰 사용 때문인가요?
 ↳ 비틀비틀 찾아보니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23만 2,035건 중에 스마트폰 관련 사고는 1,360건밖에 안 됨.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서 내용을 끊어서 글을 쓰다니 한심하네. 쫄쫄.(잘못된 태도)
 ↳ 안전 지킴이 자료 조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곧 수정하겠습니다.(잘못을 인정함)
 뽀뽀 스마트폰 보급률 그래프는 출처가 어디인가요? 믿을 만한 통계 자료인가요?

[지문 확인]

- 갈래 : 인터넷 블로그 글
- 주제 : 스마트폰족을 위한 교통 표지판 설치
- 특징
- ①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 자료를 제시함.
- ②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함.
- ③ 댓글을 통해 글을 쓴 사람과 읽은 사람이 소통을 하고 있음.
- ④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있음.

44. <답> ③
 <정답 풀이>
 제시된 글을 통해서 글쓰기의 상업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글쓰기의 특징을 확인할 수 없다.

45. <답> ④
 <정답 풀이>
 이 글에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아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되어 있다. 이 글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글이므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소울'과 '윤주 엄마'의 댓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